



11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11호

(루게 445)



◆◆◆◆◆◆◆◆◆◆ 차 례 ◆◆◆◆◆◆◆◆◆◆

수령님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	4
신포에서 (외 1 편).....	4
첫 발자욱에 이어	5
불멸의 그 자욱우에 락원은 솟아.....	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각하의 탄생은 인류의 행복	7
김정일 동지께 영광의 노래를 드립니다.....	7
들국화.....	8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	9
갈매섬 (외 1 편).....	15
조국의 새 기슭을 펼치며	16
그날에 산다	16
간이역에서	18
아, 쇠돌 나의 기쁨아	21
수령님 아끼시는 빛나는 땅이여 (외 1 편).....	22
돌격대원들이 남긴 자욱은.....	22
청춘들이 사는 랑만의 집 (외 1 편).....	23
위훈의 일력장 번지며	24
삶의 기쁨	25
번개불 (외 1 편).....	28
꽃다운 꽃으로	28
환 희 (외 1 편).....	29
리 정 표.....	30
내 한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절이	30
《4 월 13 일》 (외 1 편).....	31
들국화 곱게 핀 언덕길에서.....	32

젊은 연공에게 주는 말	32
선향나무	33
너의 집은 어디냐	37
광부들이 가는 길	38
락광정에서	38
정광과 미광	38
날과 날이 바뀐다	39
평양이 가까운곳	39
봉선화	40
수령님은 만풍년의 들길을 걸으시네	44
향도성 따라 가고가리라	44
철령의 샘물	44
바다의 저녁 (외 1 편)	45
양금산 도래굽이에	45
벼 바다	46
질은 향기	47
산촌의 종소리	57
새 일터	58
병사시절	67
무쇠기둥	68
강냉이밭속의 서정	72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이 추구하는 《내면화》의 본질과 그 반동성	73
어 머 니	78
네가 내 마음이지	78
2 월의 백두산	79
단죄한다, 매국역적을	79

수령님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

로 재 룡

수도의 거리거리
용해장과 지하막장
벌목장과 천리어장
조국땅 그 어디 가나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것들도
텔레비죤앞에 옷깃 여미고 앉아
외국방문의 길 이어가시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라

머나먼 대륙 형제의 나라들
넓고넓은 초원과 기름진 들판
무수한 거리와 오붓한 마을들
수령님께 열렬히 환영인사 드리누나

기발의 물결 바다처럼 설레이고
춤과 노래 넘치는 환영연도
친선의 그 길따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어라

수령님 가시는 수만리에
환영의 꽃물결도 수만리
그이의 위대한 자욱자욱에 비끼어
친선의 무지개도 수만리

불가강변에서 엘바강기슭까지
위솔라강반에서 발칸반도까지

친선, 단결, 협조의 꽃피워가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영원한 메아리 되어
우주의 끝까지 울리어가라

베오그라드의 배우들
《김일성장군의 노래》 부르고
옴스크에 흙모의 정 담은 장미꽃 피였어라
가없는 포도밭에 소담한 열매 주렁지고
폴초브의 들판에 곡풍이 설레여라

아 멀리에 가계실수록
마음속에 더욱 그리운
우리 수령님
조선의 영광 떨치시며
평화
친선
단결의 꽃을 피우신
불멸의 그 업적
인민들은 대를 이어 노래하리라

연연수만리 머나먼 길에
꽃으로 피고싶은 인민의 마음
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며
조국땅에 위훈의 새 전설을 꽃피워라
수령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여라
1984. 5

신포에서 외 1 편

리 광 선

여기가
여기가 우리 수령님
먼바다 어로공들을 기다려주신
그 사랑의 포구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장은 목이 메이는구나

먼 현지지도의 길
원라선을 주름잡으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여기 신포땅만은 그냥 지나실수 없으시다고
그날도 첫새벽에 찾아오셨던 수령님

잠시후이면
원양어로공들이 포구에 닿는다는
사업소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오래도록 서시여
어로공들을 기다리던 그날을 못잊는다고
마디마디 감격에 젖은 선장이여

천리 먼 어장
천만파도를 헤치면서도
가슴한번 드놀아본적 없던 어로공도

어찌하여 그날
그토록 가슴가슴이 들먹이었던가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을어귀 동구밖에서 맞아주듯
그렇게 이 포구에 나오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던 수령님!

수고가 많았다고
하나하나 손잡아주시고
고생들이 많았겠다고
하나하나 넘려해주시며
오래도록 떠나실줄 모르시었나니

멀고 가까운 고장 따로 있었던가
아버이수령님 그 보살핌속에
멀고 가까운 사람 따로 있던가
아버이수령님 그 사랑속에서

멀리 떠나 조국땅이 그리우리라고
타는 배 이름마다 명산을 달아주시고
고향이 그림고 어머니가 그리우리라고
편지도 신문도 어김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

멀리 있을 때는 멀어서 그리운것이
가까이 오면 가까워서 또 그리운것이
언제나 불러도 더 부르고싶고
언제나 모셔도 더 모시고싶은
우리 수령님!

여기라고
여기서 수령님 어로공들을 기다려주셨다고
선장은 떠날줄 모르고 이야기 들려주고
기슭에 칠썩이는 파도도
전설같은 그 이야기 대양 멀리로 실어가는
신포여, 너 사랑의 포구여

첫 발자욱에 이어

늘 걸어도 싫지 않은
정든 바다기슭
언제나 내 거닐으는
기슭의 모래터여!

잠시도 진정 못하는
바다처럼 파도처럼
내 읊기는 자욱자욱
생각깊어 이리도 무거운것인가

나는 거닌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속삭이며
이 기슭에 내 자랑높이
발자욱 남긴 일 있던가

와와 밀려와
기슭에 부서지는 파도
그 천만물방울 말마디 되여 묻는구나
한번 지나면 지워지는 자욱 그대 남긴 일 없는가고

내 발자욱 남기기전

얼마나 많은 발자욱이 바다기슭
이 모래불에 찍히었던가

불연기에
바다마저 타던 그 전화의 날
원쭉을 맞받아 이 기슭 지켜낸
그 해병들의 자욱 오늘은 붉은 해당화로 되었고

청춘의 활무대로
바다를 활짝 펼쳐주었을 때
저 푸른 파도처럼 와 밀려와
이 바다를 위훈으로 수놓은
젊은이들의 그 자욱 뚜렷한 기슭

아, 피로 새긴 그 자욱자욱우에
위훈으로 수놓아진 그 자욱자욱우에
나도 발자욱 덧찍으리
우리 시대앞에
우리 수령님과 당 앞에
부끄럼없이
뉘우침없이...

불멸의 그 자욱우에 락원은 솟아

박 희 구

피어나는 백두의 노을이
웃음치는 무수한 창문들에 비끼고
불어오는 못가의 부드러운 바람결이
물결쳐흐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밀림속의 도시 삼지연의 거리여

집집마다
층층마다
웃음과 노래를 가득 담고
나래편 너의 파아란 지붕들은
하늘에 닿아
그리도 눈부신 해살이 추너밑에 흘러내리느냐

가로수의 푸른 가지를 흔드는
바람결에
문득 귀 기울여도
천고의 밀림에 군복자락 스치는 소리
락엽을 밟으며 걸어오시던
그날의 발자국소리 들려올듯

못잊어라
항일의 대오를 거느리시고
위대한 수령님 찾아오신 력사의 그날을
정녕 못잊어라
조국이 광복되면 이 호수가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자 하시던 그 말씀

찾아오느니 없어
알아주느니 없어
천년세월 덧없이 간직해온
삼지연의 그 아름다움속에
인민을 먼저 세워보시던
아버이수령님

그 뜻 그 사랑으로
삼지연이여, 아름다운 네 기슭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아 백두의 하늘아래
가장 가까이 솟아오른 공산주의 리상촌이여!

뜨거운 눈길로 쏘아보며 생각한다
행복의 추너를 받들고 대리석기둥들이
깊이 뿌리내린 이 흙을 두고
삶의 향기에 목매여 생각한다
오늘의 락원이 꽃피난 이 땅을 두고...

그 어디를 봐도
수령님의 그 자욱 어려오고
그 어디를 걸어도
숭고한 그 뜻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땅

아침이면 백두의 첫해살이
거룩하신 그 자욱우에 먼저 내리고
밤이면 하늘의 별들과 함께
억만 불빛들이
불멸의 그 자욱을 비쳐 꺼질줄 모르는곳

아, 수령님 조국진군의 그 자욱우에
먼저 꽃피날 공산주의락원
온 인민이 찾아오고
온 조국이 사랑하는
영광의 땅 삼지연이여
백두산과 더불어
무궁토록 번영하고 빛나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은 인류의 행복

아히야 아흐메드 아브델 자와드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날
산도 들도 이날을 노래하고
혁명가들도 자유투사들도 이날을 경축하네

지도자각하는 예속의 그늘을 밀어제끼시는 자유의
태양

그 태양은 찬연한 2월의 태양이여라
그 태양은 인민에게 불굴의 의지를 주고
용솟음치는 혁명의 힘을 주나니
그 태양은 세계의 영광이고 조선의 행복이여라

지도자각하의 탄생은 새시대의 경사였나니
5대륙인민들은 이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식민주의자들은 이날 공포에 떨었네
정녕 지도자각하의 탄생은
억압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시대의 탄생
인간이 가장 힘있고 값높은 존재로 된 새시대의
경사였나니

친애하는 지도자각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의 천재
그이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하시었다네

그이께서는 50년대의 전화속을 헤치시고
어려웠던 공업화의 단계도 넘으시었네
그이께서는 공장과 농촌들에 주체의 힘을 심으시고
김일성 주석의 원대한 구상을 모든 분야에
꽃피우셨네

지도자각하께서는 인민의 행복 위해 밤을
지새우시는 인민의 총복
그이의 집무실 불빛은 꺼질줄 모른다네
그이의 탁월한 지략과 령도로 70년대의 기적이
창조되어

진보적인류의 눈길 조선으로 쏠리었다네
오늘 《80년대속도》의 승리적전진속에
위대하고 찬란한 기적들이 솟아나고있다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에
온갖 꽃들 아름답게 피어나고
산과 들에 무성한 숲은 설레이고
태양은 높이 솟아 붉은 빛발 온 세계에 뿌리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
그이께서 탄생하신 경사스러운 명절에
우리모두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드리네
(필자 요르단 공보부 파장)

김정일동지께 영광의 노래를 드립니다

코페무샤

김정일 동지
당신은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해발
당신은 세계인민들이
흠모하며 따르는 희세의 위인

김정일 동지
당신은 벌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해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의 존경의 상상봉에 높이 서계십니다

세계인민들은

동방에 솟아오른 인류의 태양
김일성 동지와 함께
세계혁명의 향도성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당신을 존경하고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은
드넓은 백두고원으로부터
군사분계선을 따라 펼쳐진
농장마을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미치고있습니다

김정일 동지

당신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천재
당신은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계시는분

정녕 당신은 위대하신분
태양 없이 지구에 밝은 날이 없고
해빛 없이 만물이 존재할수 없듯이
당신을 떠나서
세계인민들이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조선의 룡성변영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20세기가 맞이한 당신은
가없는 사막에서 생명수를 찾는 사람들이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심장의 목소리로 찾은
해방의 은인 **김정일**동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선의 슬기로운 기상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향도의 별로
공산주의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이신
김정일동지께 칭송의 노래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웁니다

(필자 탄자니아사람)

들국화

윤 병 규

단풍잎 흘날리는
산기슭에 들가에
떨기떨기 피어 웃는
들국화야

내리는 찬바람에 홀로 뒹어도
험하고 외진곳을 가리지 않아
은은하고 청아한 자태
이리도 돋보이는가

찾아와 반기여주는
다정한 벌나비 없어
맑고도 그윽한 향기
이리도 목메이는가

그늘에 울밑에 피는 꽃이 아닌
스치는 비에도 지는 꽃이 아닌

변태와 시샘은 더욱 모르는
내 사랑하는 들국화

휩쓰는 서리바람 웃음으로 맞받아
꽃지고 잎진 산야에
온몸의 빛과 향기를 다 뽐어주는
아 신념의 꽃, 절개의 꽃이여!

삶이 온통 투쟁인 한생에
순간의 평온도 바라지 않는 꽃
네가 나를 닮았나
내가 너를 닮았나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내 천길 낭끝에 선다 해도
들국화, 너처럼 살리라
꽃중에도 꽃다운 꽃이여!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스무돛을 맞으며-

오 승 련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며 수령이 개척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온 보람찬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주체의 해발로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기치밀에 새로운 경지를 끊임 없이 개척하여온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영광스러운 길우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64년 11월 7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문헌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승고한 사명에 대하여 다시금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주제내용과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구현한 우리 시대의 불멸의 문예강령이며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혁명을 위하여 철저히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철저히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문학예술의 혁명적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일꾼들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북두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혁명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만 로동계급문학예술을 그에 맞게 아무런 편향없이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에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 문학예술건설의 력사와 경험이 없으며 이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본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출현한 문학예술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며 혁명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량식을 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 되기때문이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철저히 이바지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 요구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혁명임무로부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남반부에서 혁명투쟁을 전진시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

는 역사적위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있으며 남반부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반혁명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이 실시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은 오직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인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것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과의 계급투쟁이 국제무대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반인민적이며 반혁명적인 책동이 날로 우심해가고있는 조건에서 또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투철한 계급의식과 반제반미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인민들은 단일한 생활에만 몰적어 사상적으로 해이되고 혁명의식이 무디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준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기능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로동계급의 역사적위업,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 끝까지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 주제방향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노래하는 문학예술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할뿐아니라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적고 절실히 필요한것은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교양하며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문학예술작품들입니다.》

혁명과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는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작품의 주제에서 나타나며 주제는 작품의 정치사상적내용과 계급적성격, 그 사명을 규정하는 출발적전제로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주제방향, 특수적으로는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시기 문학예술의 사상주제적내용문제는 지난 시기 그 누구에 의하여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주제작품과 혁명투쟁주제작품창작을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시대와 혁명이 사회주의문학예술앞에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가장 주도적인 주제분야의 하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주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으로 교양하는 분야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그 본성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레찬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하는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위훈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구체적발현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현실이 낳은 이 영웅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성격들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그 모범으로 인민대중을 보다 휘황한 공산주의기치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주제와 함께 남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혁명투쟁주제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계속 많이 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항일빨치산투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항일유격투쟁이 우리 혁명운동의 뿌리인것만큼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것을 계속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그것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깊은 감동성으로 하여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끝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한없이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특히 혁명전통의 폭을 넓힐데 대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혁명전통주제분야작품창작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을 발전풍부화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투쟁의 길을 역세계 걸어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해방후 민주개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놈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이 자랑스러운 투쟁속에서 나온 수많은 인민영웅들과 영웅적사적, 감동적인 사실들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의 한없이 귀중하고 풍부한 소재로 되고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의 훌륭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전통의 폭을 넓힐데 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상으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영향력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방도를 마련하여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이 해방후 당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 로지개혁을 위한 투쟁, 산업국유화를 위한 투쟁,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자랑찬 투쟁로정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릴수 있게 되였으며 사람들에게 끝없는 혁명적자부심과 영예감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기치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수립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원형으로 하여 대작을 쓸수 있을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전기를 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것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가령 쓴다면 해방전에 혁명군의 임무를 받고 투쟁하던 동무들을 원형으로 하여 하나의 대작을 쓸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가장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전혀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가장 폭넓고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게 되였으며 수령의 령도 따라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빛나는 전형을 훌륭히 그릴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혁명이란 무엇이며 혁명가의 인생이란 간고한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 사람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부르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게 되였다.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으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본질과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탄생과정을 혁명의식의 장성과정으로 진실하고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문학예술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현실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반영할뿐아니라 예술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발전의 끝없는 전망을 열어줌으로써 로동계급문학예술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은 소설과 영화의 특성과 예술적가능성, 그 형상적기능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며 우리 시대 혁명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 특히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

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과 미학적취미를 반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기능을 강화하고 그 풍부한 화원을 다채롭게 꽃피울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며 우리 음악을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의 감정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에 대한 문제 등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참으로 우리 시대와 혁명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제기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사상미학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어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학예술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땅위에 장엄하게 펼쳐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한 주체적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천명, 이것은 실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시원을 알리는 장엄한 역사적선언이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의 계기를 열어준 위대한 사변이다.

우리 당은 이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수령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이바지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방침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 연극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길데 대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작보급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주체적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이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대를 두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킬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당이 밝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들에 옮길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수령이 개척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끝까지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준 위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와 가극, 소설에 옮기고 《성황당》을 연극에 옮기며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영화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따라배워야 할 고전적본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킨 우리 당 문예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로 되게 하는데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힘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위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가장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빛나게 해결한 사상이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한 참다운 문학예술로 발전할수 있

는 끝없이 넓은 또하나의 전당을 열어주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서사시적화폭속에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장편소설이 총서형식으로 창작되게 되었으며 그 거대한 사상예술적감파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 《근거지의 봄》, 《대지는 푸르다》 등 수많은 작품들은 수령형상문제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초미의 문제로 제기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은 수령형상문제와 함께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참다운 전형형을 창조할데 대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었다.

당은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려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화폭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이 확고히 자리잡게 하여 주었다.

주체형의 인간이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를 말한다.

이 새롭고 빛나는 인간전형이 창조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자기 발전의 전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또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를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미학적과제로 제시하고 혁명가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혁명적대작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보물고를 발전 풍부화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해명된 혁명적대작에 관한 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대작의 본질을 규모에서가 아니라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서 본 탁월한 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대작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며 규모나 형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대

작창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제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의 모든 다양성과 풍부성 속에서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며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은 그 중심에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성격을 그리면서 그의 사상의식이 장성하는 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되었으며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며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장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그리는것, 다시말하여 혁명적수령관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혁명적대작의 철학적심오성을 담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적특징이 다른 아닌 혁명적수령관이 가장 철저히 선데 있으며 사람들의 혁명투사로서의 성장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은 다른아닌 혁명적수령관이 수립되어가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지 않고서는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창조를 기대할수 없으며 인간의 사상의식의 장성과정의 본질적내용을 심오하게 반영할수 없다.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참으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고 등장인물들의 성장과정을 가장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그것이 레외없이 주인공들의 성격속에 혁명적수령관이 훌륭히 구현되어있으며 수령을 대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자세와 립장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예술영화 《군대책임비서》와 장편소설 《너대원》, 《뜨거운 심장》 등만을 보더라도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것처럼 뜨겁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서 그토록 투철하기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색과 행동이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을 향하여서만 의의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소설과 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꽃피워 주었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나가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소설문학과 가사문학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종합예술, 생활과 행동의 예술로서의 영화의 특성과 예술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혁명적영화예술창조사업을 진두에서 조직령도 하심으로써 영화예술발전의 일대 개화기를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영화예술창조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1970년대는 혁명적영화예술의 고조기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영화의 전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혁명영화 《조선의 별》(1~8부), 《군당책임비서》,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등 사회주의적영화예술의 본보기작품들이 창조보급되어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은 영화와 함께 소설문학과 시문학, 가사문학발전에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었으며 육친적 지도를 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의 특성과 그 창작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밝히시고 소설작품의 구체적인 사상주체적내용과 종자, 그 제목과 세부에 이르기까지 실로 육친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우리나라 소설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소설의 전성기를 마련하여주시었으며 해방후와 전후시기에 있어 보지 못한 장중편소설의 새로운 량적장성을 보게 되었으며 그 사상예술적수준도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장편소설들인 《생명수》, 《새봄》을 비롯하여 최근에 발표된 《뜨거운 심장》, 《너당원》, 《높새바람》(상권), 《대지의 아침》(1부) 아동중편소설인 《1학년생》 등은 그 한 실례들로 된다.

이 소설들은 그 형태적특성과 묘사적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있으며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사상미학적기호와 요구에 훌륭히 대답하고

있다.

소설문학작품의 왕성한 창작과 그 질, 량적 장성은 소설문학창작을 앞세우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되며 혁명적소설문학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수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시문학과 가사창작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혁명적인 시문학과 노래창작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시문학사상과 가사문학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시문학분야에서는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풍부한 서정으로 노래한 훌륭한 시들이 창작되었으며 가사 《우리의 신념은 하나》, 《꽃잎을 삼일포의 메아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어머니 우리 당》 등 명가사들이 창작되어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참으로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이 온 사회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사상예술적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은 로동계급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특히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 사상미학적영향력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한계단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이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방침이며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창조적사상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가져와야 한다.

그 누구를 마중하려는듯
물로부터 멀리
푸른 바다 한복판에 나앉은
갈매섬

도래 굽이 해당화도
저 홀로 피고지고
미역따는 처녀들의 노래
물결우에 조용히 비껴가더니...

은혜로운 사랑은 파도 넘어
섬마을에 의사도 보내주시고
세명의 아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사랑의 분교 햇빛밝은 창가엔
손풍금소리도 정다운
행복의 섬

베푸신 그 은정
새 전설로 꽃피여
살기 좋은 섬마을에
그이 모시고픈 마음
사람마다 가슴속에 불타올랐으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잠시라도 여기 오시여
낚시를 드리웠으면
현지지도 마치고 가시는 그 길에
쌍이신 피로 덜고 가셨으면

간절한 그 마음들
섬기습에
석축도 돌기돌기
티없는 그 마음들

은모래 금모래도 깔아놓고

해질녘에 오실가
걸으실 그 길엔
밝은 수은등
온갖 고기 다 모이라고
때없이 먹이도 뿌려주며-

아침이면 밝은 창문들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리고
밤이면 등대불이
배길우에 은빛다리 놓아드리건만

아 한순간 휴식마저
인민의 기쁨으로 바꾸시며
북방의 험한 령 넘으시여
철산봉에 오르시고
새벽이슬 헤치시며
온 나라의 농장길 다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쁘시여
못오시는 그이시련만
그래도 기다려지는 마음
낙지철에 오시려나
송어철에 오시려나

아, 간절한 우리의 마음 안고
갈매섬 너는
푸른 바다 한복판에 나앉았구나
오시는 그 길에
남먼저 마중하려고-

조국의 새 기슭을 펼치며

청춘의 억센 팔뚝인가
검붉은 파도만이 들고나는
광막한 바다 한복판으로
아득히 방조제가 뻗어간다
십리
또 십리

처절씩
석축에 부서지는 흰파도
청춘들의 가슴에 안겨주는 꽃보라인가
끼룩끼룩 날아에는 갈매기들
영웅돌격대원들의 빛나는 위훈을
이 바다의 영원한 노래로 새기려는듯

해풍에 머리태를 훌훌 날리며
석축을 쌓아가는 처녀들아
봄철이면 교정에 꽃씨를 묻던
그 희맑은 너희 손들이
오늘은 넓어지는 조국의 새 기슭에
아름다운 꽃수를 놓고있구나

어머니 기다려 정든 고향집
멀어져가는 기적소리속에 남겨놓고
간식지로 달려온 제대병사들아
젊은 날에 대자연개조의 선구자가 된
삶의 희열 청동빛 얼굴에 불타는것이 아니냐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이 빛나는곳

여기서 청춘이 서야 할 자리를 찾은
피끓는 심장들
사나운 날바다와 맞섰거니

개고막이 전투의 그 밤
방조제를 지켜
산악같은 파도우에 솟구친
무명전사들의 빛나는 모습
그대들이 아니었던가

해일처럼 밀려드는 얼음산
굴착선을 들때릴 때
살점이 짹짹 붙는 동체에
어깨를 들이대던 그 밤
바다도 잠들지 못했거니

뻗어가고있구나
날바다위에 점점이 널려있던 섬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며
넓혀가고있구나
조국의 지도를 대양 저 멀리

아, 수평선의 끝을 모르는 청춘갈매기들아
날으거라, 더 억세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어주신 설계도 따라
해안선 멀리 아름다운 새 기슭을 펼치며
백리
또 백리-

그날에 산다

조 성 래

바위는 파도에 패이고
다박술은 로송이 되었구나
파도의 등대를 지켜 수십년
내 오늘처럼
약동하는 청춘의 숨결을 안고
벽찬 나날을 보내기는 처음이여라

감회도 새로워라
이름 없는 저 기슭 감탕길우에

영광의 자욱을 찍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잊을수 없고

파도가 키를 넘는 갑판우에 서시여
갑문건설의 웅대한 전만을 열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
뜨겁게 우러르면 그날이
엿그제같은데

이리도 빨리
이리도 거창한 갑실언제가
온 세상에 대고 장훈을 부르며
이 기슭에 높이 솟아오를줄
내 미쳐 몰랐거니

남포갑문건설의 첫시작을 알리는
호장도의 대발파소리
<캉-캉>
지심을 울리던 그날엔
폭음소리마저 정답게 들었더라

날바다를 가로질러
토언제 뻗어오고
푸른 물결 에돌던 관식철배가
어깨걸고 이어지던 그날엔
기쁨에 온밤 잠못들었더라

파도야 너는 알리라
내 어이하여
이다지도 가슴 부풀어하는지
기슭을 두드리는
저 파도소리 들으면
눈앞에 다가서는 흘러간 옛추억

그 얼마였던가
해마다 대홍수 밀려올 때면
네 기슭을 지나
망망한 서해로 흘러간 운명들은
정녕 그 얼마였거나
네밑에 묻힌 마을과 집들은

하지만 그것은 먼 옛날
해방의 기쁨 넘치던 그날
새 조국 건설의 우렁찬 노래소리
흰 돛배에 실려왔고

오늘은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
강선의 붉은 노을 담아신고
대동강 푸른 물결도
기쁨에 넘쳐 달려오는곳

아!
나는 벌써 그날에 산다!
저 사랑의 젖줄기 흘러넘치는
대동강기슭 기름진 들마다
세세년년 만풍년의 기쁨 넘치고

휴양의 노래 끝없는
천리 물결우엔
고동소리 정답게
행복의 배들이 오갈
그날에 산다

기적소리 높이
아득한 바다를 넘어
웃음을 싣고 기쁨을 싣고
남포와 은룡로
전기기관차 질풍같이 내달릴 그날에!...

고마움에 젖어 공지에 넘쳐
조국의 숨결이 모여오고
희망의 노래 신념의 노래부르며
세계의 마음들이 달려올
주체시대의 대기념비
남포갑문을 지켜선
나는 피도의 등대원!

세상에서 가장 이름 높은
행복의 교차점에
립초병으로 서있는 이 영광
언제나 가슴 가득 꽃피우며
나는 벌써 그날에 산다!
위대한 승리의 그날에!

간이역에서

오 광 호

사진기자 리형우는 푸른 동쪽우로 걸었다. 간이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역은 10리 좀 남짓한곳에 있었다.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시간이 없었다.

간이역에 가 오후 5시 15분에 떠나는 통근차를 타고 승시로 가고 그곳에서 또 급행차도 평양에 가야 했다. 늦어도 래일 오후에는 이곳 농장에 와 촬영한 사진들을 편집부에 제출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면 그 사진들은 곧 다음날 신문에 편집될것이다.

형우는 신문에 난 사진을 보며 기뻐할 이곳 농장원들의 모습이 금시 눈에 보이는듯싶었다.

방금전 동구밖까지 따라나왔던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동글동글한 처녀분조장은 수집함에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용기를 내어 물었었다.

《정말 날가요?... 저 그리구...신문에 어느 농장이라고 쓰는가요?》 그리고는 부모들이 싱싱 자라나는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사진을 찍을 때 처녀들이 《아버이수령님께서 쓰련으로 떠나시던 날 모내기를 한 포전이에요.》라고 자랑하던 논이었다.

《쓰구말구. 어느 농장 누구들이라고 이름까지 꼭 꼭 박아서 내지. 허허허. 이제 총각들한테서 술한 편지가 날아올게요.》 그는 희고 넓은 얼굴에 너그러운 미소를 담고 대답했다.

《어마나...그래 묻는게 아니예요. 전 그저 신문에 난 그 사진을...》 처녀는 더욱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행복한 얼굴로 흰 구름이 떠가는 푸른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와요. 우린 일을 더 잘하겠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순간 형우는 처녀가 무엇인가 생각하고있음을 느꼈다.

무엇일까?...

별에 타 가무스레해진 처녀의 손이 부풀어오르는 봉긋한 가슴을 누르고있었다.

멀리서 《잘 가세요》하는 쟁쟁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논에서 모내는기계를 몰아가던 처녀들이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있었다. 그도 손을 들었다.

명상에 잠겼던 분조장이 생긋 웃으며 인사했다. 《그럼 또 오세요.》 그리고도 처녀는 무엇인가 더 할말이 있는듯 간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활짝 얼굴을 붉히며 그대로 돌아서 달려갔었다.

처녀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형우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처녀의 생각을 알고은근히 애썼다. 짐작이 가지 않았다. 기차시간이 아니면 다시 돌아가 알아보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었다. 그 어떤 귀중한것을 놓쳐버리는것같은 아쉬움에 저절로 걸음이 굼뻐졌다.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휴...》 그는 저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며 씩씩한 쑥 냄새가 풍겨왔다.

형우는 동쪽에서 내려 큰길에 들어섰다. 파수원을 돌고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내려다보았다.

멜가방과 농립모들...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승시에서 모내기를 도와주기 위해 농장에 왔다 가는 사람들 같았다.

간이역으로 갈것이다. 형우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부지런히 걸었다.

오른쪽에 솟은 낭떠러지로 하여 길우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드리워져있었다.

그늘속은 서늘하였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벌써 그늘을 벗어나 찢찢한 햇빛을 받으며 가고있었다.

드디어 형우는 농립모를 쓰고 가는 일행보다 조금 떨어져 걷고있는 한사람을 따라섰다. 그는 중키에 어깨와 허리가 좀 굽을사한 예순 대여섯 나보이는 아바이였다. 아바이는 한쪽 손에 포장지로 싼 인민학교 아이들 책가방만한 짐을 들었는데 몹시 무거운지 땀을 철철 흘리며 걷고있었다.

《수고합니다. 짐이 무거운 모양입니다.》

《예?...예.》

그를 흘끔 쳐다본 아바이는 그대로 몇발자욱을 가더니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리는지 《에이, 좀 섰다 가자.》고 하며 손에 들었던 짐을 땅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게 뭘니까?》

《치차우다.》

아바이는 물이 날아 허여스름해진 회색모자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며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허, 거참...로친네는 숙여두 나인 못속인다구 기계공장 사람들이 좀 기다리다가 역까지 자동차로 가라는걸 요까지거하고 떠났드니...쯔쯔 이제 틀렸수다.》

아바이는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흰 여름샤쯔 웃단

추를 벗겨놓았다.

《참, 어디루 가는길인지 어서 가보시오. 나도 인츰 마르겠수다.》

《저도 역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서 가십시오.》

형우는 시계를 보고 땅우에 놓인 짐을 들었다. 묵직하였다.

《아, 이거 이러지 마시우.》

아바이가 당황해하며 그의 손을 붙들었다.

《일없습시다. 그럴 같이 듭시다.》

《하, 이런...》

그리하여 그들은 길동무가 되었다. 길동무들 사이에는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법이다. 더우기 수지일용품공장 노동자인 아바이는 이야기를 무척 즐겼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모내기에 대한 이야기...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참, 그런데 거 모스크바가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머우? ...손주녀석이 가지고있는 지도를 보니까 한뼘도 못될것 같은데... 하기야 멀긴 멀겠지, 거긴 유럽 땅이니까.》

아바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바지주머니에서 누르스름한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러더니 문득 생각이 난듯 흥분하여 말했다.

《그렇지. 기자선생이라니 내 말 좀 해야겠소. 기계공장사람들말이요. 글썄 우리 공장에서 수지제품 몇가지를 더 만들자고 하니 이 치차들이 걸리지 않았겠소. 그래 기계공장에 갔는데 어디 말이 떨어져야지요. 다 잘 알겠지만 그곳 사람들두 지금 얼마나 바빠 지내오.

그래 눈치를 보며 머뭇머뭇 하다가 예라 이왕 온김에 말이나 한번 해본다구 쭉 이야기할 하지 않았겠수. 그랬더니 글썄... 참 사람들두... 온 작업반이 몽땅 달라붙어 도와주더라말이요. 요즘은 모두가 달라졌다니.》

아바이는 진정으로 감심하고있었다. 형우는 아바이의 말을 들으며 기계공장 노동자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보고싶었다.

아바이도 그들의 모습을 되새겨보는듯 말이 없었다. 두사람은 서로 자기 생각에 잠겨걸었다.

저 앞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흰 집이 보였다. 간이역이었다.

...

역 대기실에는 손님들이 적었다.

결혼식을 하고 부대도 돌아가는듯한 해군 군관과 그의 새색시, 그리고 얼굴이 빨간 갓난애를 안은 젊은 여인과 그밖의 몇 사람이 눈에 띄었다.

진달래색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는 결혼식으로 하여 생긴 흥분과 부끄러움이 채 가셔지지 않았는지 발그레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듯 숙이고 있었고 새 신랑인 군관은 대단히 만족한듯 병글사한 얼굴로 색시의 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의 옆 의자에 앉은 젊은 여인은 행복에 빠진 군관의 모습을 재미있게 넘겨다 보며 해사하게 생긴 얼굴에 새물새물 웃음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형우와 아바이는 빈자리에 가앉았다.

바빠 걸어온탓으로 의자에 앉자 마음속 탕개가 확 풀리고 다리맥이 없었다.

《기자선생이 아니였으면 기차를 놓칠번했수다. 허허 참...》

아바이는 또다시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하며 발열에 놓인 치차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저쪽 신문게시판뒤에서 벽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났다.

게시판에 가리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몇이 신문을 읽다가 논쟁을 벌리고있는 모양이었다. 《씨비리》, 《모스크바》라는 말마디들이 들려왔다. 통근생들 같았다. 대기실 한쪽 벽면에 설치해놓은 천연색텔레비죤으로부터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아직 다섯시가 채 못되어 화면에는 경기장모양의 둥그런 원과 격자무늬가 비치고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무척 신비하고 재미있는듯 텔레비죤앞에는 바지가랭이와 파란 비닐신발이 온통 물에 젖은 일곱살쯤 되어보이는 소년이 땀살 나보이는 녀동생의 손목을 꼭 잡고 서서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녀동생의 한쪽 손에는 오빠의 수확물인 풀줄기에 펜 두마리의 미꾸라지가 들려있었다. 역마을의 조무래기들 같았다. 밖에서는 형우네 앞에서 걸어오던 농립모를 쓴 패들이 백양나무그늘밑에 앉아 웃고 떠들고있었다. 오락회가 벌어진 모양이었다.

형우는 시계를 보았다. 30초전 5시였다. 이윽고 텔레비죤에서 개시음악이 울리고 순서가 소개되었다. 뒤이어 낮익은 방송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보도시간이었다. 방송원의 얼굴은 저으기 상기되어있었다. 형우는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다.

《지금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 텔레비죤앞으로 확 다가갔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가!...

형우는 심장이 세차게 뿔을 느꼈다. 누가 알렸는지 밖에 있던 패들이 와르르 쓸어들어왔다.

《거 소리를 줌 높입니다.》

뒤쪽에서 흥분한 군관이 소리쳤다. 형우는 앞으로 나가 음양조절기를 돌렸다.

이윽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렬차가 화면에 나타났다. 렬차는 환영일색으로 단장된 모스크바의 야로슬라블리역에 들어 서고있었다.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역전광장을 짝 메운 군중들, 명예위병대원들과 기자들, 조선의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정중한 자세로 렬차가 멎어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역전광장은 승엄한 정적에 휩싸여있었다.

대기실안 역시 숨소리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온 우주가 장엄한 해돋이를 앞두고 움직임을 멈춘듯 싶었다.

긴장된 자세로 서있던 조선의 한 일군이 빨간꽃다발을 들고 서있는 소녀의 모자를 재빨리 바로 잡고 자신의 옷매무시를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드디어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오르는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렬차에서 내리시었다.

《아, 수령님!》

형우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온 나라 인민의 축원속에 조국을 떠나가신 그날부터 화면을 통해 뵈고 뵈워왔지만 얼마나 그림고 그림던 어버이수령님이신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형우는 뿌듯하게 흐려지는 두눈을 습벅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빛같은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마중 나온 조선의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시고 명예위병대쪽으로 걸어가시었다. 레닌이 창건하고 도이쉴란드 파시즘을 격멸한 붉은 군대의 명예위병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었다.

지축을 울리는 발구름소리, 나팔소리, 만세소리... 문득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인가 《좀 조용하시오.》라고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다. 다시 조용해지었다.

...

수십리 연도에 늘어선 군중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모터쉴클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고있었다.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력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모스크바의 거리들을 들었다 놓고있었다.

대기실 여기저기서 《야!》하는 감격의 웨침들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순간 형우는 자기자신이 모스크바의 거리에 서있는듯싶었다.

크레믈리궁전마당에서 조선의 고위급간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성대하게 영접하고있었다.

크나큰 흥분과 감격에 휩싸인 형우는 보도가 끝났어도 자리에서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두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리고있음을 느꼈다.

무엇인가 자기가 더 풍부해지고 더 커진듯싶었다.

오래도록 그러고 서있던 형우는 무심중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5시 45분이었다. 통근차가 지나간것이였다.

(그러면 아까 그 기적소리?...)

그는 당황하였다. 본능적으로 앞뒤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의 뒤에 아바이와 해군 군관부부, 그리고 갓난애를 안은 젊은 녀인과 통근생들도 두가 그대로 서있지 않는가. 그제야 그는 통근차를 놓친 사람이 자기뿐이 아님을 알았다.

해군 군관은 색시에게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있었고 젊은 녀인은 품에 안은 어린것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끝없이 애무하고있었다. 자식의 미래를 축복받은 행복한 어머니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였다. 아바이가 형우앞으로 다가왔다. 눈물에 젖은 불그스레한 얼굴이 저녁해빛에 번들거렸다.

《기자선생, 정말 대단하우. 우리 수령님을 환영하여 국경역에서부터 줄을 지어 꽃다발을 올리드니 오늘은 온 모스크바가 다 떨쳐나선것 같수다. 참...》

《예.》

그 말에 형우도 수궁하고 다른 사람들도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한동안 그자리에 서있었다. 누구도 통근차를 놓친데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있었다.

잠시후 아바이가 큰소리로 말했다.

《자, 우리 등시까지 걸읍시다. 기껏 해야 30리우.》

아바이의 말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마치도 함께 길을 떠난 한 가족 같았다. 아바이와 형우가 앞서고 그뒤로 서로 짐들을 나누어 둔 젊은 녀인과 신희부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섰다. 그리 크지 않은 대렬이였다. 그러나 형우에게는 이 크지 않은 대렬이 마치 하나의 거창한 흐름으로 보였고 이 흐름은 지금 온 나라뿐 아니라 모스크바와 와르샤와 이 세상 그 어디서나 다 흐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 흐름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벼 한포기, 강냉이 한포기를 세

여가며 키우던 그가 만난 농장처녀들도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자기들의 일처럼 도와나섰다는 기계공장으로동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해 모셔가는 소련사람들도 있었다. 그제야 형우는 아까 처녀분조장이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였고 수령님께 자신들의 모내기소식을 담

은 신문을 보여드리게 될 행복으로 가슴을 들먹였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위대한 인민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의 소박하고 깨끗한 모습, 형우의 영원한 주인공들의 모습이였다. 형우와 일행은 힘있게 걸어갔다. 푸른 들, 푸른 하늘이 앞에 있었다.

아, 쇠돌 나의 기쁨아

김 성 일

번쩍이네
번쩍이네
간데라 불빛에
쇠돌이 빛나네

쇠돌아
너 이 불빛 기다렸느냐
나를 기다렸느냐
금빛을 뿜으며
웃어주는 나의 기쁨아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너는 수수한 막돌
캐고캐면
너는 빛나는 금돌

내 가슴에 묻어두었던
나의 희망
나의 소원

네가 빛을 뿜어야
조국앞에 빛이 나

백년을 캐고
천년을 캐도
만년을 더 캐고싶은 너

내 마음
네가 알아 빛을 뿌리고
내 마음
내가 알아 기쁨에 넘치는
이런 나날에 떠받들려
조국은 부강의 채운을 펼치거니

나의 땀으로 네가 빛나고
나의 빛으로 착암공의 위훈펼치는
아, 쇠돌
나의 기쁨아

수령님 아끼시는 빛나는 땅이여 외 1 편

리 영 봉

대동강 물결우에 어리던 노을도
조용히 도면우에 내려와 앉고
이제 펼쳐질 대강철기지를 안아보는가
별바람도 시원히 불어드는 이른아침

강선은 백번도 더 와본곳이어서
설명없이도 알수 있다고 하시며
아버이수령님
멀리 가까이 눈길 보내시고
손을 높이 드시여 가리키신다

-동무들 저기다 합시다
20년전에 보아두고
아껴두었던 자리입니다-
도면에도 없던 빈터를 가리키시며
감회깊이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우리 식의 제철소를 일떠세우시려
그 터를 짚으신것은 오늘이여도
그 터를 보아두신것은 수십년세월전...

그날에 그려보신 오늘이기에
오늘이 기쁘시여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회억깊으신 사랑의 눈길을 드시여
낮익은 산과 벌을 바라보시는 수령님

물안개 서리는 강반

갈숲우에 날아에는 새들
그날에 아껴두셨던곳이기에
그토록 불노을속에 빛나오르는 땅이여

아, 용해공 압연공을 만나시여도
아이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보시여도
그 모든 행복을 받들어줄 터전만은
수령님 마음속에 흐르는 세월속에
그처럼 소중히 간직되어있었구나

영광넘쳐라
철의 고장으로 이름난 강선이여
80년대 오늘에도
조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그 손길
버림받던 이 진펄에도 닿아
굴지의 대야금기지로 너는 빛나거니

간고했던 12월의 눈바람을 헤치시며
수령님 다 걸어보신 철의 기지
높뛰는 가슴들을 끌어안고
수령님 높은 뜻 쇠물빛노을로 펼쳐갈
억척같은 어깨들이 산악처럼 솟구치는 여기

아, 우리 수령님
한자옥한자옥 다 걸어보시고
한치한치 다 새겨보신 이 땅
이 땅이 아무리 넓다 해도
한평생 인민 위해 바쳐오시는
수령님 생각속엔 빈 구석이 없구나
수령님 아끼시는 빛나는 땅이여!

돌격대원들이 남긴 자국은

예서 천년을 살듯
만년을 살듯
마음속 모든것을 남겨놓았구나
해저문 들길로 떠나는 돌격대원들아

저 아슬한 철탑우엔
구슬같은 땀방울을 남기고
로체가 뿌리내린 이 땅우엔

벌나비를 부르고 꽃향기를 남겨놓았구나

떠나온 고향을 그리던 마음
고향의 뜨락에 피던 꽃씨를
정든 뒤동산에 실레던 나무를
천년을 살듯 만년을 살듯
여기에 심어논 그 마음

8월의 삼복더위에
자기 머리엔 그늘 한점 받을
그자리는 찾지 않았어도
용해공의 머리우에 시원한 바람을 안겨줄
그 그늘만은 나무밑에 남겨놓았구나

수천년을 내려오며 절어든
비릿한 감탕내에 습관불이면서도
용해공의 가슴에 안겨줄 꽃향기만은

꽃밭속에 모두 남겨주고
이제 그대들은 준공식과 함께 떠나누나

아, 돌격대원들은 여기에
무쇠기둥만 세우지 않았구나
억만년 가도 예서 나온 쇠물빛처럼 변함없을
조국의 향기, 조국의 참웃음을
돌격대의 자욱으로 그들은 남겨놓았구나

청춘들이 사는 랑만의 집 외 1편

리 정 기

예로부터 세상에는 대대손손
살아가는 정든 고향집 많건만
지금은 우리네 청춘들
때없이 옮겨사는
그런 집도 있다

힘한 산악을 뚫고
깊은 계곡을 꺾지르며
아득히 뻗어가는 두줄기 궤도
한눈에 다 보는
북부철길건설장의 정든 집

벌써 여러번째 옮겨 지은
너를 두고
생각도 깊어지고
추억도 많아져라

정든 교정을 마친 열여덟나이에
당의 부름 받들고 달려온
새 철길건설장
배낭을 풀어놓은 높은 산벼랑우에
처음 서투른 솜씨로 지은 집
우리 어찌 잊으랴

한낮이면 지붕에서 내리는 눈석이를
밤이면 고드름으로 맺히고
키 큰 사나이들 이른새벽
문 열고 나설 때면
낮게 드리운 처마의 고드름에
이마를 맞부딪쳐도
우리는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별들이 빛나는 밤이면
우리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자랑찬 위훈을 담은
불타는 열정의 시도 읊었지

까치가 우짖는 아침에는
기다리던 고향의 편지도 받는 나날속에
더없는 보금자리로 정들던 집이여

그 어느해 가을이었던가
우리를 위한듯 집뜨락 가득
산열매는 한창 익기 시작하는데
멀리 뻗어가는 철길을 따라
우리는 하루사이에 또 집을 옮겼다
인적도 없는 더 깊은 골짜기로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지었다
긴 차굴을 뚫을 때면
높은 령밑에도 창밖은 집
긴 다리를 놓을 때면
사품치는 물녘에도 아담한 집

미리 정해놓는 집터도 따로 없다
배낭을 풀어놓는곳이 그대로 집터이고
배낭을 풀어놓는곳이 그대로 고향인
당의 뜻대로 철길을 늘어가는
드팀없는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그 어데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나니

우리 이젠 집짓는 솜씨
나무가 많은곳이면 산뜻한 귀틀집
돌이 많은곳이면 정갈한 돌집
한번 짓고 또다시 옮겨도
한생을 살아갈 정든 고향집처럼 짓는다

아 밤이면 우등불이 타오르고
노래소리 끝없는 랑만의 집이여
수없이 옮겨간 네 집자리마다에
불빛 화려한 새 역사들 수없이 솟아날 때
너와 함께 당의 원대한 뜻 꽃피운
우리 청춘들의 위훈은 후세에도 빛나리라

위훈의 일력장 번지며

우리 청년돌격대 참모부 책상우에 놓인
두툼한 일력장
우리는 매일 일터로 나가며
한장씩 번진다

옮겨가는 걸음마다
침목들을 놓고
달려가는 걸음우에
두줄기 궤도를 늘이며
번지고 또 번지는 일력장

그 어느 이른아침이었던가
막아서는 험한 산벼랑도
대발파의 메아리로 단숨에 날려보낸
자랑찬 위훈도 너와 함께 떨쳤고

높은 산악을 터쳐
깊은 계곡을 메우며
로반을 닦는 통이 큰 일판도
너와 함께 펼치였다

차굴을 뚫으며
다리를 놓으며
두줄기 궤도를 멀리 늘여가는
우리의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
일력장이여!
너와 함께 흘러가누나

날이 밝는 아침만이라
때로는 해가 눈부신 한낮에도,
때로는 별이 빛나는 깊은 밤에도
교대작업 시작과 함께
매일 한장씩 어김없이 번지는 일력장
네 두터운 갈피마다에는
얼마나 뜨거운 사연이 많으냐

다져놓은 콘크리트 조금도 얼세라
남몰래 추운 밤을 보낸
아름도 모를 청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너와 함께 꽃피어났다

제일 즐거운 낮교대일 때면
우리가 일력장 번지는 그 시간이
휴식시간인 림산마을 처녀들
우리를 찾아와 일손을 돕는
그 아름다운 지원의 마음도
너와 함께 더 뜨거워지누나

잊을수 없으랴
먼 북방의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그 사랑
한가슴에 받아안을 때
감격에 겨워 잠못들던 그 밤들을
일력장이여, 너는 기억하리라

아, 뜨거운 그 사랑에 보답하리라
더 높이 세우는 전투목표들
가장 경사스런 명절들이 다가오면
보란듯이 앞당겨 해제끼는
빛나는 나날들의 일력장
우리는 그 얼마나 값있게 번지었던가

한 주일마다 달라지는 교대시간과 함께
일력장 번지는 시간도 달라지건만
철길을 늘여가는 위훈의 시간은
수도의 시계탑 바늘이 가리키는
평양시간과 언제나 같아라

번지면 번질수록 그만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대로
철길은 더 멀리 뻗어가고
완공의 날은 더 가까와지거니

하루를 한달 맞잡이로 번지는
투쟁의 일력장
번지는 갈피마다에
철길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는 위훈의 일력장이여!

삶의 기쁨

리 순 실

나는 자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맛보게 되는 여러가지 기쁨에 대하여 생각한다.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노래고 웃음이고 기쁨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대 인간들이 가장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되고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가장 큰 삶의 기쁨이 무엇일까?

나는 이 대답을 며칠전 강선제강소 확장공사장에 이동판매를 나갔다가 뜨겁게 받아안고 이 글을 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하늘에서는 불비라도 쏘는것 같았다.

소뿔도 꼬부라든다는 중북고비여서 날씨는 찜뽀쿠었다. 거리의 가로수들은 불벌에 시들어 휘줄근해진 나무잎사귀들을 맥없이 축 늘어뜨린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날씨는 무더웠으나 나의 마음은 아침부터 기쁨으로 출렁이였다. 오늘 아침차로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되어 온다는 뜻깊은 전보를 받아안고 새벽부터 안팎을 쓸고 닦는다, 맛나는 음식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돌아쳤다.

하지만 제강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층성의 땀방울을 흘리고있을 건설자들을 찾아 이동판매를 나가게 되었던 계획을 미룰수는 없었다.

나는 령감과 아이들에게 꼭 역으로 나가라는 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간 꼭 쉬게 집을 조용히 하자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건설자들의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시원한 얼음과자며 얼음보숭이 그리고 사이다와 맥주, 부채며 색안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품을 가득 싣고 건설장으로 향하였다.

제강소 확장공사장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백병전을 벌리는 전투장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여러개의 회전로동체들이 웅장한 기상을 하고 번듯이 자기의 탄생을 자랑하고있었다. 6호회전로 지붕공사장에서는 용접공들이 불꽃을 팔팔 날리고있었다.

그리고 숲처럼 솟아난 대형기중기들이 긴 팔을 한껏 빼들고 수십톤급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가 하면 수십톤급의 철기둥들이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인양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이곳 건설자들의 기상인양 눈길이 미치는곳마다 《80년대속도》창조예로 부르는 불같은 구호들이 안겨온다.

울긋불긋한 속보판들과 수없이 펴려있는 돌격대의 기발, 온 건설장을 들쭉하게 하는 경제선동의 힘찬 메아리, 건설자재를 실은 무수한 자동차행렬.

나는 여느때 없이 격동된 가슴을 안고 건설장의 들끓는 모습을 여겨보았다.

이동매대차를 건설장의 한복판에 세워놓은 나는 부랴부랴 립시이동매대를 차리고 상품들을 꺼내놓았다.

《자! 시원한 얼음과자, 사이다, 맥주요 자요.》

건설자들을 향해 소리소리 질렀으나 아무도 일손을 놓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다.

《야! 정말 안타깝다. 왜들 빨리 오지 않을가.》

나는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건설자들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하였다.

《천천히 먹지요. 오전중에 이 기초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나의 애원에 찬 시선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 참 얼음이 다 녹는데 어쩔담, 아! 마침 저기 중대장이 오는구만.》

나는 공사를 지휘하고있는 몸이 뚱뚱한 중년사나이한테로 달려갔다.

《중대장동지, 휴식구령을 내리랴요. 땀들이나 식히고 일손을 돌려야지.》

나는 중대장을 곱게 흘겨보며 웅얼거렸다.

《점장동무! 휴식구령을 몇십번 내리였는지 아십니까. 나야 늘 휴식을 하지 않아 《주먹》질없는 싸움을 한답니다. 그래도 어디 말을 듣습니까?》

중대장도 안타까움에 손을 흔들었다.

나의 마음은 조급해났다. 아들이 이젠 도착하여 온 집안이 떠들썩할것만 같았다. 어서 이동판매를 끝내고 가서 아들을 만나보아야 할게 아닌가...

이때 건설장의 새 소식을 격동에 넘쳐 전하면서 방송차가 달려왔다. 마침 방송차에는 제강소선전비서동지가 앉아있었다. 나는 선전비서동지한테 통사정을 했다. 드디어 방송원의 30분간 휴식하라는 《명령》이 몇번이나 울려나왔다. 건설자들은 하나둘 일손을 놓기 시작했다.

《점장어머니가 오늘은 무얼 가지고 왔을가?》

건설자들이 매대를 둘러싸며 묻는다.

《자 어서 마음에 드는것들을 사라구, 그리고 이 씨
원한것두 들구.》

나는 한결같이 끝끝한 청년들에게 상품들을 내밀
었다.

《야! 오늘은 별걸 다 가져왔구만요. 여 색안경까
지.》

땀으로 미역을 감은듯한 청년이 환성을 지른다.

나는 그들이 내미는 두툼한 손바닥마다에 얼음과
자와 거품이 이는 사이다고뽀를 재빨리 쥐여주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얼음보숭이구나, 참 시원한
데.》

《열이 먹다가 아홉이 죽어두 모르겠다. 흐흐흐.》

《어머니, 이건 어느 식료상점입니까?》

《천리마구역 상점이요, 그까진 왜 묻소?》

《그걸 알아야 이담에 길에서 만나두 그렇고 또 찾
아가서두 이렇게 잘 봉사하여 200%씩 넘쳐했다고
인사라두 하잖겠어요.》

《하하하.》

한바탕 웃음판이 터졌다.

나도 그들의 웃음속에 끌려들어 눈물이 찔끔 나게
웃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나
의 가슴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올랐다.

몇해전에 아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사로청 제7차대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어
버이수령님께서 일을 많이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면
서 몹시 기뻐하시었다는 편지를 보내왔었다.

그때 아들너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것처럼 기뻐
하시는 모습을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고 편지에
썼었다. 그가 만약 이 들끓는 건설장을 보게 된다면
...

나의 마음은 자꾸만 설레기만 했다.

《어머니! 한그릇 더 주세요. 온몸이 물속에 들어
가는것 같이 씨원해요.》

퍽 귀에 익은 웅글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
다.

(어쩌면 우리 아들과 신통히도 비슷할가, 목소리
랑 저 웃는 모습이랑.)

아직도 령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입고 동글납작
한 얼굴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제대군인총각이
고뽀를 내민다.

《총각은 언제 제대되어왔나?》

나는 그 총가한테 사이달 한고뽀 철철 넘치게 쏘
아주었다.

《어머니! 며칠전에 제대되어왔습니다. 제대된 그
길로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추 이 들끓는 건설장에
달려왔지요. 우리 어머니도 후에 이 일을 알게 되면

꼭 나무라지 않을거예요.》

《이 친군 일욕심이 한정이 없어 따라가기가 막 바
쁘다니깐.》 옆에 섰던 청년이 끼여들었다.

《땅크병인데 그만치도 못하겠나.》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이다를 쪽 들이마신
다.

《우리 아들너석도 금속전문학교 용접과를 다니다
가 군대에 나갔는데 학교때 용접경기에서 1등을 하
였다고. 이런데 오면야 이름을 날리지.》

나는 아들자랑을 하고싶어 입이 간질간질하던차
에 한바탕 쏟아놓으니 가슴이 후련해졌다.

《저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곱슬머리 청년의 묻는 말에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렇듯 자랑스럽게 울려나
울 대답은 입안에서만 맴돌이칠뿐...

(아니 왜서인가? 내 아들은 오늘 집에 제대되어오
지 않는가?...)

나는 한쪽 손에 얼음과자를 쥐여주고 이마에 흐르
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왜서인지 얼굴을 붉혔
다.

《그리고 어머니! 색안경두.》

청년은 어느새 얼음과자를 다 먹고 색안경을 끼고
불이나게 달려간다.

나는 부러움과 감동에 젖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
았다.

나는 한없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손끝에서 바람이
일도록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 걸걸한 목소리를
들으며 상품을 팔았다.

한참 복작거리던 매대가 뜨움해졌다. 휴식이 끝난
것이다.

《점장어머니, 인젠 돌아가자요. 저 아드님이...》
함께 온 판매원 경란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재촉하였다.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조급하던 나의 마음은 여
기에 뿌리내린듯 어느새 폭 가라앉고말았다. 나는
내가 아직도 뭔가 채 하지 못한듯한 생각에 싸여 매
대를 나와 얼마 남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건설자들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득 나는 아찔한 하늘꼭
대기에서 철기둥공사를 다그치고있는 용접공들의
생각이 났다. 분명히 그들은 내려오지 않은것 같았
다.

《저 꼭대기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은 내려와 국수랑
잡숫지 않았지요?》

나는 기증기를 지휘하고있는 신호기를 든 건설자
에게 물었다.

《국수가 다 뭉니까. 오늘아침차로 군대에서 제대
되어 왔는데 좀 휴식을 하라고 해도 저렇게 통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신호기를 든 청년은 감동어린 얼굴로 꼭대기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러니 집에도 들리지 않고 여기로 달려왔구만.》

《집에는 공사가 끝난 다음 휴가를 받고 가겠답니다.》

청년은 호각을 불며 기증기한테 신호를 보냈다.

나는 코마루가 시큰해지고 가슴에 뜨거운것이 확 치미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여러해 동안 집을 떠나 초소에 섰던 전사가 제대되어 집에도 들리지 않고 제강소확장공사장부터 찾아와서 땀흘리고있다니 그들을 위하여 나의 지성을 다 쏟고싶은 충동을 더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나는 내 손으로 그들에게 씨원한 얼음과자며 필요한 상품을 가져다주면서 어깨라도 두드려주고싶었다.

나는 철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구슬같은 땀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내가 늦으면 그들이 땀을 더 흘리지 않겠는가 하는 급급한 마음에 상품을 넣은 비닐자루를 꼭 쥐고 나는 작업충충대와 사다리를 발뽀발뽀 딛고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질어질해왔다.

목안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새빨강게 단 난로처럼 하늘에서는 열기를 뿜지만 용접공들은 바위처럼 끄떡없이 용접면을 떼지 않고 푸른 불꽃을 날리며 달아오른 철관을 지저댄다.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그대로 용접불이 되어 철관을 이어가는데싶었다. 머리는 땀에 흠뻑 젖고 목줄에는 땀이 질척하다. 넓은 잔등에 걸친 런닝그도 땅에 화락하니 젖었다.

(불덩어리 같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얼마나 수고하나 좀 쉬라구.》

나는 목이 메여 말꼬리를 떠듬거렸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뒤통수기에서 잔등으로 흐르는 땀을 씻어주었다.

《아! 용접봉! 용접봉입니까?》

용접면을 떼지 않고 그 청년은 기뻐서 소리친다.

《아니 용접봉이라니?》

나는 가슴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다시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었다.

《저, 용접봉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씨원한걸 좀 들

라구.》

나의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했다.

《예?》

청년은 용접봉을 꼭다리까지 다 녹이고 용접면을 제겼다.

세수를 한것처럼 얼굴은 물참봉이 되었는데 두눈은 불타는듯 빛났다.

손에 얼음과자를 쥐여주던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 그만 깜짝 놀라 소리질렀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이...》

영웅의 동상처럼 서있던 청년이 두팔을 벌리고 소리친다.

《어머니!》

《아니, 이게 철웅이가 아니냐 네가 언제...》

나는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뜻밖이어서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나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아침차에 내려 곧장 여기로 왔습니다. 집에 들린다면것이 그만...》

아들은 내앞에서 웃으며 서있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네 마중을 오지 않았니, 난 네가 꼭 여기 있을줄 알았다. 장하다 내 아들이, ...》

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어깨며 잔등 손이 가닿는곳을 꼭꼭 눌러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했다.

그처럼 꿈에도 보고싶고 그림던 아들이 강철처럼 굳세게 자라서 불현듯 내앞에 나타날줄이야!

아들은 오늘 이렇게 이 세상 가장 높고 빛나는 위훈의 초소에 서있지 않는가. 그제야 나는 방금 곱슬머리 총각에게 뭔가 대답하지 못해 얼굴 붉히던 그대답을 자랑껏 하고싶었다.

나는 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수많은 청춘들을 보는듯했고 말없는 행동으로 당과 수령님을 위해 충성할줄 아는 참다운 혁명전사의 모습을 보는듯하여 자랑스러웠다.

아들은 나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여기서 뽑은 첫 쇠물을 보아주시고 환한 미소를 지을 그날 어머니를 뵈오려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날이 어머니의 제일 기쁜 날일줄 알고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하여 눈물이 솟아 흐르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래라. 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얼굴에 비낀 환한 미소를 그리며 여기에서 마음껏 일하여라. 이 예미도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련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심장은 높이 고동치고 있었다.

나에게는 우주에 존재하고있는것들, 저 높고 푸른

하늘도 그 하늘에 빛나는 불덩이 같은 태양도 더위 속에 침묵을 지키고있는 나무잎새들도 꽃밭에 울긋불긋 핀 꽃들과 새들의 즐거운 우짖음소리도 밤하늘의 축포마냥 피어오르는 저 용접불씨도 건설장의 구내에서 울려오는 기계의 동음도... 이 세상의 모든것들이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약동

하고있는것만 같이 느껴졌다.

나는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온 세상에 대고 마음속으로 웨쳤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어버이수령님의 얼굴에 비친 환한 미소라고!

번개불 외 1편

량 덕 모

우르릉-천둥우뢰 천리에 달고
번쩍-만리 구름장을 가르누나
백병전의 창살같이 내닫는
번개불! 번개불!

천지를 드러내는 저 빛발에
내 났을 잃다도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
인류력사 백만년에 하나의 인생은
순간의 불빛 아니던가

허구 많은 그 불빛
초불같은 인생도 있었으리
반디불같은 인생도 있었으리

한점 빛도 없이 묻힌 이는 그 얼마...

내 길지 않는 삶-
온밤 타도 방안 하나 못밝히는
그런 초불로는 되지 않으리
제한몸 같길 몰라 헤매는
그런 반디불로는 되지 않으리

아, 한생을 살 심장
단 한초에 태워도 좋다!
순간 번쩍하고 사라져도
저 번개불처럼
내 당을 위해 바치는 삶
한줄기 빛이 된다면

꽃다운 꽃으로

아름다와 꽃이던가
꽃이어서 향기롭던가
아름다움으로 향기로움으로
제나름의 얼굴내는 꽃들

일만꽃 어우러진 저 꽃밭속
피여도 좋고
안피여도 좋을 그런 꽃 있다면
말 못하는 꽃이여도
그 얼마나 구슬프랴

당의 해빛 안고 만발하는
충성의 대화원속에
그런 꽃으로

빛없이 내 서있다면
그 얼마나 죄스러운 한생이라

내 한껏 피리라!
4월의 만경대
붉은 진달래처럼
2월의 백두산
억센 만병초처럼

품어주는 어머니당이
피여도 사랑하고
지여도 그 향기 못잊어하는
꽃중에서도 꽃다운 꽃으로

환희 외 1편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설계도앞에서-

김창걸

내 환희에 차
남포지구전선을 바라본다
앞에는 강선제강련합기업소 총계획도
머리우엔 소소리높은 백양나무
그러지 않아도 설레는 이 마음속에
하많은 사연을 불러일으키는
무수한 잎새들의 뜨거운 속삭임...

나에게 구태여 설명하지 말라
알아보기 부호가 아니래도 환하다
이 나무 애 어린 아지 타다남은 벽체우에서
해 기울도록 땅에 금을 그어가시며
수령님 만년대계를 그려주실제
내일찍 오늘을 안아본 눈이거니

색색갈을 고루며 단계를 밝혀주지 않아도 좋다
시련의 눈덮인 구내길 걸으시며
난관보다 높이 세워주신 전투목표
아직도 전개력이 약하다고
조상들이 강철을 만들었더라면
우리 나라의 원료로 했을것이라고
대담한 실험으로 떠밀어주신
수령님의 그 손길에 떠받들려
내 이미 오늘의 전선길에 올랐거니

곧추 앞으로만 트인 지름길에서
시련의 나날
비록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결코 발을 동동 구른적 없었다
남에게 손을 내민적도 없었다
참말로 백번도 다녀가신곳이어서

강선은 지대이름만 불러도 환하다고
부르시여 확장공사판을 보아주시고도
감탕내 비릿한 봉상강 폭우에서
바람에 말리는 네 귀를 누르시고
속속들이 보살펴주신 도면이여

부지면적 이 작다는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아무래도 빵쪼각을 싸들고라도
다 돌아봐주어야겠다고
걸음걸음 이어가신
거룩한 로정도여

이 땀을 걸으로만 보려거든
깊이 속속들이 사랑할줄 모르거든
감히 이 도면앞에 서지 말라
도면의 선 하나도 점 하나도
온통 소리치며 일떠선다
설비도, 기술도, 원료도 우리의것으로
파도치는 쇠물, 강재의 바다
굽이치는 노을속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1,500만톤의 강철고지...

수령님께서만이 우리 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
나는 황홀히 바라본다
재더미우에서도 맨 주먹으로도
일떠세운 철의 기지
6만톤짜리 압연기로도 12만톤
100만톤을 돌파했듯이
본때있게 은을 낼 욕심에
가슴부풀며

리 정 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수천년을 거둬하면서
장마에 떠내리고 조수에 밀리며
씩이고 덧쌓인 감탕우에
그대들의 리정표는 솟았다

어제날 속절없이 내려보던 보산을
한눈에 굽어보는 거창한 원료장
뚝넘어 굽니는 봉상강수면우에
그 웅좌 가득 비낀 지금

못사람들 어느덧 어제일 잊었더라
골안을 흔드는 경쾌한 기적 소리속에
흑진주같은 철의 새 원료실기에
저마다 신바람났거니

허나 땅이야 어찌 물어두라

굳이 골라잡은 수렁탕이에서
미끄러 지면서도 빠지면서도
기꺼이만 내닫던 그 발자욱을
감탕속에 소꿉질하며
기둥을 세운 그 손길을

살얼음진 감탕속에서
속으로 땀을 흘린 그대들이기에
땅을 걸으려면 아니라
속깊이 속속들이 주물러본 그대들이기에

땅은 먼 후날에도 주리라
위훈보다도 명예보다도 값높은것
아버이수령님께서 깊이로 헤아리시는
이 밤을 깊이 사랑할 리정표를
속도전청년돌격대, 그대들에게

내 한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절이

위 개 순

땀에 젖은 이마우에 용접면 제끼고
내 승업하게 바라보노라
천만년을 강철지붕 떠받들어갈
너 무쇠기둥아

내 하고싶은 말 뜨거운 이 마음을
네 우에 불물로 새겨왔구나
아버이수령님 걸으신 구내멀리 자욱을 따라
하늘땅 가득 너를 세워왔구나

방직공처녀들은 은실금실로
조국땅우에 꽃비단 수놓는다지만
나는 철의 불물로 강철주단 짜고짜서
이 땅우에 만년기둥을 세워가는 사람

눈내리는 새벽에도 마음은 후터웠다
비오는 밤에도 너를 안아올리며
기뻐웃었다
나는 80년대청춘이기에

네 우에 그 어떤 표식 아니 했어도
내 어이 모르랴
내 한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절이

뜨겁게 새겨진 너

이 가슴에 넘치는 아름다운 노래도
내 사랑도 나의 열정도
불물에 담아 누비고 또 누벼온
너 강철기둥아

천년비바람도 끄떡없으라
만년열풍에도 빛을 뿌리라
남모르게 바친 내 마음
그 누가 몰라줘도 좋다

허나 너는 내 심장 가장 깊은곳에
영원히 솟아있을 마음의 기둥
조국앞에 후대들앞에서
내 언제 그 어데를 가도
땃땃이 바라보게 될 마음의 기둥이여니

아 내 마음의 이 기둥이 있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어머니 조국을 받들어가도
이 어깨 언제나 무겁지 않구나!

《4월 13일》 외 1편

계훈

예로부터 불러오는 이름이
이 고장에도 있었건만
사람들은 부른다
제철지구-《4월 13일》이라고

물어보자 《4월 13일》 제철소여!
얼핏 불러 레사로운 그날을
어찌하여 네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 어떤 숭엄한 사연이
너의 그 이름속에 깃들어있느냐

봄비 축축히 내리는 길
아직은 갈대숲만 설렁이던
강반의 그 험한 감탕길을
자욱자욱 생각깊이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

세찬 강바람에 그이의 옷자락 날리었다
등뒤에는 타오르는 저녁노을-
마치도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쇠물빛노을을
여기에 거느리시고 오신듯...

걸으셨다!
여기에 뿌리박고 솟구쳐오를
산악같은 강철로의 터전들을 잡아주시며
걸으셨다 오로지 자기 힘만을 믿는 큰 심장을
안고
주체 야금공업의 드넓은 길을 활개쳐 갈
조선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아, 바로 그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맞고 보내신 밤은 그 얼마이던가
삼가 올린
실험생산한 거무스한 쇠덩이 하나를 놓으시고...
거듭되는 실패에 무거워진

학자들의 어깨우에 사랑의 손길 얹어주시며
조선의 철을 만드는 동무들의 마음이 굳세야
우리의 강철도 억세여진다고
언제나 밝은 웃음과 슬기를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아, 눈물에 젖이 눈물에 젖어 바라보노라
이날 위해 찍어오신 수령님의 그 자욱
우리에게 이 제철소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시
였구나

우리 강철 공업이 탄탄한 길우에서
비약의 걸음 억세게 내딛도록
주체신념을 지닌 큰 심장을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주시기 위해서였거니

진정 세상에 없던 우리의 새 강철원료는
위대한 그이의 결심과 의지로
천만도의 불길속에서 버리어진
조선의 철!

인류가 처음으로 녹여낸 쇠덩이를 안고
환성을 올리던 아득한 옛날로부터
수천년 흔들릴줄 모르던 철생산의 력사우에
거창한 주체의 숨결을 터뜨리며
새 강철원료의 탄생을 확신한 4월 13일!
혁명하며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심장에
주체의 신념을 강철로 다져준 4월 13일!

그날을 못잊어 바이 못잊어
언제나 그날에만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철의 의지를 억세게 안겨주는
오, 《4월 13일》 이어
영광의 고장이여!

들국화 곱게 핀 언덕길에서

들국화 곱게 핀 봉상강언덕
파란 잔디밭 오솔길에서
나는 만났네
웃으며 떠들며 달리는 처녀들을

계절도 좋다
하늘은 푸르고
빨간 고추잠자리
처녀들 머리우에 날으는데...

물빛도 좋다
밤새 기증기운전공처녀들이 들어 올린
육중한 새 강철로들이
봉상강 물결에 그림처럼 비졌는데...

풀섶에 발묻히며
나는 길을 비켜주었네
어쩌면 저렇게 웃을수 있을가
어쩌면 저렇게 고을수 있을가

처녀들아 너희들은 모를테지
이 아침 너희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뻐졌는지
이렇게 이뻐졌는지

아, 땀을 맘껏 흘려본이만이
일에 힘껏 취해본이만이
티없이 웃을수 있는
이 아침, 이 언덕길

짧어지게 하고
깨끗해지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로동의 이 진미!

마음껏 웃으라 노래 부르라
로동이 주는 사람과 우정의 단맛을 알라
들국화 한뭉치 꺾어들고
바래우며 짧어지는 이 마음을 알라!

젊은 연공에게 주는 말

허리춤에 안전바가 든든하고
신발끈 꼭 죄여신었다면
아무리 높은곳에서도
땅만은 내려다보지 말게

하늘가에 열기설기
쇠롱마루 없어갈 때면
물론 겁나서 아니래두
땅만은 내려다보지 말게

내려다보면
어지럽고
더우기 제 오른곳이 높다만 보이고
제 한 일에 취해 현훈증이 나고

올려다보면
자기가 해놓은 일이

이제야 시작만 같은
생활의 리치

땅에야 물론
시원한 찬물통도 있고
파란 잔디밭과 처녀들이 있지
그리고 노래도 있지

허나 그게 무슨 연공의 노래라
오르며 오르며 부르는
우리의 노래처럼
나래 돌힐수 있으랴

아름다운 노래는
대건설의 수리개 우리 맘속에 있다네
아득히 푸른 하늘 높은곳에서도
그것을 생활의 첫걸음으로 아는...

선향나무

임 현 재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밀려든 태풍은 산과 들, 공장과 건설장을 야단스럽게 휘저어놓으며 밤새 내린 눈을 죄다 날려보냈다. 수난당한 눈가루는 공포에 질려 차디찬 허공을 배회하면서 우-우 무서운 소리를 질러대었다.

몰아치는 눈가루때문에 사위는 온통 구름속같이 몽롱하고 랭엄한 은세계로 화해버렸다. 그것은 마치 저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거대한 흰 장막을 드리운 듯 한길 앞도 내다볼수 없게 하였다.

그 무서운 눈보라속에서 와지끈 기둥이 무너지고 웅강뎡강 첩판이 날아왔다.

제강소확장공사장의 일체 외부작업은 중단되었다.련대적으로 휴식이 선포되었다. 건설장은 불안속에 숨을 죽인듯했다.

황포한 눈보라가 기광을 부리는 건설장엔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날 나는 그 어떤 수치와 의문에 반발하듯 건설장과 잇닿은 서학산동쪽릉선을 향해 길을 떠났다. 심술궂은 바람은 털모자를 벗기며 어디 얼굴 좀 보자는듯 기승을 부렸고 눈가루는 눈도 뜨지 못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이를 사려문채 종주먹을 쥐고 눈보라속을 헤엄쳐갔다. 가파로운 언덕길에서 몇번이나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악에 받쳐 저으기 활개치며 눈보라속을 뚫고갔다. 태양도 하늘도 통채로 삼켜버리고 이 땅의 모든것을 휩쓸어 가려는듯 이 무서운 눈보라속을 헤치며 나는 과연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것인가? 나는 지금 저 룡선령마루에 서있는 12 호철탑을 향해 걸어가고있다. 무엇때문에? 그것은 련대앞에서 당할 대대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아! 우리 대대가 그런 수치를 당하다니!

대대앞에 제기된 고압선결선공사를 오늘까지 끝내지 못하면 래일로 앞당겨진 5 호회전로의 시운전을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참말로 하늘을 향해 머리들수 없는 가장 큰 수치가 아닐수 없었다. 온 련대는 공사를 앞당겨 끝내지 못한 우리 대대를 나무랄것이고 원망할것이다. 응당한 원망이다. 내 만일 안해에게서 배반을 당했다 해도 이렇게 흥분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당신이 준 임무를 앞당겨 수행하지 못한 이 수치를 어떻게 참을수 있단말인가? 참을수 없어 나는 12 호철탑을 향해 분한 마음을 앞세우고 간다. 분김에 중대장을 탓해보기도 하였다. 고압선결선 공사를 개인별로 뜯어말긴것은 바로 중대장이였기때문이다. 허나

마지고보면 개인별로 뜯어말긴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하필 왜 룡선령마루에 솟아있는 12 호철탑의 결선공사를 이제 겨우 열아홉살난 무기능공인 소명진에게 맡겨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단말인가. 맡길수는 있겠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맡겨 해내지 못했다면 자기가 대신하더라도 제시간내에 끝냈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가 대신해주는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명진이를 도우려는것까지 한사코 막아나섰다니 그것 이 도대체 무슨 처사란말인가? 자기도 못해주는 주제에 남의 불붙는 심장엔 왜 찬물 질이란말인가?

어쨌든 5 호회전로의 시운전기일을 뒤로 미루게 되면 련대앞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 중대장을 키운 사람도 소명진을 그렇게 키우게 한것도 다 내 불찰이니까.

나는 중대장 정수가 열일곱살 났을적부터 외선공으로 키워왔다. 룡동계급은 당신이 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 왔건만 40 이 넘은 지금까지 그 참뜻을 설명하지 못했던말인가?

나는 나의 행동으로 그에게 그 참뜻을 가르쳐주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어느결엔가 바로 12 호철탑밑에까지 와닿았다. 어깨에 메고 온 안전띠를 내려놓고 솜복우에 띤 혁띠를 다시한번 든든히 조인후 꿈무니에 매달린 벤찌를 만져보았다.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철탑우에 오르려니 가슴이 후드드 뛰었다.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고개를 들어 철탑정수리를 쳐다보았다. 눈보라의 은막때문에 정수리는 보이지 않았다. 구름을 뚫고 끝없이 솟아오른듯 저으기 아슬하게 높아만 보였다. 보이지 않는 그 구름같은 눈보라속에서 고압선이 뿜-뿜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철탑우에 오르려고 왼발을 발딛개에 올려놓는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꽃다발도...

외마디소리처럼 들린 그 소리는 분명 노래였다. 하긴 그 소리는 노래라기보다 모진 추위를 참으려는 모지름같은 웨침소리였다. 그것은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것 같이 아렴풋하기도 하였고 또 어찌 들으면 어딘가 가까운곳에서 들린것 같기도 하였다. 무인지경 눈보라속에서 노래소리를 듣는다는것은 실로 뜻밖이 아닐수 없었다. 다시금 귀를 강구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더는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며 이 령을 넘어오다

눈속에 쓰러진것이나 아닐가 하는 위구심이 앞서 첩탑너머 룡선마루에까지 올라가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만이 저 으기 기승을 부리고 고압선의 울부짖음소리가 귀를 울릴뿐이다.

착각일까?

내가 다시 첩탑에 오르려고 발딛개에 발을 올려놓는 두번째 순간이었다. 바로 이때 첩탑꼭대기에서 쇠부딪치는 푹 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 떨어져 눈속에 푹 박히는것이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눈속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분명 태풍에 불트가 꺾어져 떨어진것이라고 단정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런데 눈속에서 찾아낸것은 천만뜻밖에도 뻘찌였다. 그 뻘찌는 나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응?! 저 꼭대기에 사람이?!)

첩탑을 쳐다보는 나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과 격동으로 몹시 높뛰기 시작하였다.

(누굴까? 명진이? 아니 그 어린것이 어떻게? 그럼 중대장?)

어쩐지 중대장인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소명진을 도우려 다른 기능공들이 올라가려는것을 중대장이 막아나섰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저으기 지금 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꼭 중대장일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내앞에는 이 추측을 사실로 확증해주는 하나의 산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첩탑밑에 놓인 회색 솜복이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 얼른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그것은 중대장의 솜옷이 틀림없었다. 솜옷주머니에는 무엇인가 묵직한것이 들어있었다. 꺼내보니 그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병인데 그 속에는 술인지 물인지 맑은 액체가 들어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그것은 알콜이시다. 아마도 이 추위속에서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과 얼굴에 그것을 바르고 올라간 모양이였다. 솜복이 놓였던결에는 나무가지들이 눈에 묻혀있는데 보매 그 마른 나무가지들은 불에 끄슬린 끝부분들이 거뭇거뭇하였다. 불을 피우느라 무던히도 애쓴 모양이다. 그러나 불탄 재무지는 없었다. 그런것으로 미루어보아 끝내 불을 피우지 못한채 올라간것이 틀림없다. 이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불을 피운다는것은 불가능한것이다. 나는 불현듯 첩탑꼭대기에서 떨어 일할 중대장에 대한 동정심이와 짝 통하여 손나팔을 입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첩탑정수리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중대장동무-우-》

첩탑에서는 아무 응대도 없더니 잠시후 사람이 엉금엉금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아마 뻘찌를 가지려 내려오는 모양이였다. 얼마나 손이 얼었으면 뻘찌를 다 떨어뜨렸으랴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보라의 은막을 뚫고 내리기 시작한 그 모습은

처음엔 뿌옇하게 보이더니 점점 자태가 뚜렷이 드러나는것이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는 순간 나는 너무도 놀라와 경악의 소리를 질렀다.

《아니 명진이가?!》

실로 상상밖이였다. 그것은 분명 소명진이였다.

이 횡포한 눈보라속에서 그 누구도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아슬한 첩탑우에 저 어린 친구가 올라갔단말인가? 나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너무도 강한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맡은 일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기어이 체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어린 돌격대원의 그 가늠하고 아름다운 소행은 수치에 대한 의분으로 가득찬 내 가슴속의 두터운 랭기를 뜨겁게 녹여주며 내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해주는것이였다.

나는 그가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어서 그를 닮은 안아 내리고 싶어 첩탑으로 맞받아오르려는데 소명진의 애된 목소리가 날아왔다.

《중대장동지 거기서 내 뻘찌 줘...》

아마 그는 나를 중대장으로 아는 모양이였다.

나는 나타나지도 않은 중대장을 찾는데 그만 부아가 치밀어 또다시 중대장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중대장은 무슨 중대장.》

공연히 명진에게 화풀이 하듯 징징거리고는 얼른 그를 안아내리려고 손을 내밀었다.

아빨싸! 이 찰나 나를 내려다보며

《아니 대대장동지가?!》 하고 놀란 명진은 그만 발디디개를 헛디디여 한길 남짓한 높이에서 돌덩이처럼 눈무지우에 푹 떨어지고말았다. 나는 황급히 다가가 그를 안아 일으키고 상한데가 없는가 살폈다. 다행히도 다친데는 없었다.

나는 장갑낀 그의 손이며 얼굴을 자꾸 비비고 주무르고 하였다. 손은 푹푹 얼었고 뺨은 너무도 차서 마치 얼음장같았다.

《내 뻘-찌.》

그래도 명진은 얼어든 입술을 겨우 놀리며 이 말부터 꺼내더니 그 찢찢해진 손으로 눈무지를 뒤지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 모양을 보는 내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나는 목구멍속에서 무엇인가 또 더운것이 울컥 쏟아지려하는것을 애써 삼키며 또다시 명진을 꼭 꼬리안았다.

젠장! 아름다운것도 인간의 눈물을 자아낸단말인가? 내 눈가에 맺혔던 뜨거운 이슬방울은 끝내 명진의 차디찬 뺨우에 푹 떨어지고말았다. 나는 말없이 그 눈물방울을 닦아주고 그 찢찢해진 손을 주물러주며 더운 입김을 불어대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명진의 손과 온몸에서 알콜냄새가 확 풍겨남을 감촉하

였다. 나는 속으로 탄복하였다. 얼마나 편리한가 알
꼴을 바르면 얼지 않는다는것은 어떻게 알고 이런
궁리를 해냈을까? 기록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니 철
탑밑에 벗어놓은 중대장의 솜옷은 결국 이 명진이가
꺼입고 왔던것임에 틀림없었다.

명진은 나의 품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며 가까
스로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중대장동진 어디 갔나요?》

그의 이 물음은 잠시 사라졌던 중대장에 대한 불
만의 감정을 또다시 터지게 하였다. 나는 속이 뒤틀
렸다.

《흥! 지금쯤 제집 아래목에 엎드려 잠이나 자겠
지!》

어째서인지 명진은 나의 추측과 추궁이 천만부당
하다듯 토끼눈을 해가지고 입을 여는것이였다.

《잠자다니요? 조금전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그럼 저 솜복이 중대장이 입고 나온것이란말인
가? 저 불타던 나무도 그가?! 그런데 이 눈보라치는
한지에 이 어린 친구만 올려보내놓고 자기는 불만
쪼이다가 무엇하러 어디로 사라졌단말인가?)

바로 이때였다. 나의 이 의문을 풀어 주기라도 할
듯 저쪽 통선너머 11 호철탑꼭에서 무엇인가 움쉴움
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자세히 보니 그
것은 눈덩이 같기도 하고 백곰같기도 하였다.

미구하여 그것은 점점 이쪽을 향해 가까이 다가
오는데 다시 여겨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이였다. 그
사람은 12 호철탑을 향해 곧바로 걸어오고있었다.
한 20 보앞에 나타났을 때에야 나는 그가 바로 중대
장 진정수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우리를 발견 하지
못한듯 철탑을 바라보며 씨익씨익 걸어왔다. 그를
보자 내 마음은 이상야릇하게 도사려졌다.

(덜된녀석! 어린 대원이 이 지경이 된줄두 모르구
이제야 꺼떡꺼떡?!)

나는 심사편 소리로 부르짖었다.

《중대장!》

중대장은 놀란듯 두리번거리다가 우리를 향해 달
음쳐오며 의아해하였다.

《아니 대대장동지가 어떻게?!》

나는 긴 말로 그를 꾸짖고있을 경황이 없었다. 다
짜고짜로 짜증섞인 소리로 명령하였다.

《빨리 명진일 업구 휴계실로 가라구.》

명진을 그의 품에 떠맡긴 나는 날쌔게 철탑에 오
를 차비로 철끝을 붙잡았다. 그런데 중대장은 명령
에 불복하고 와락 나에게 접어들더니 그 억센 손아
귀로 내 팔소매를 움켜잡아 힘껏 끌어당기며 웨치는
것이였다.

《대대장동지가 올라가선 안됩니다.》

그의 담찬 목소리에는 저항할수 없는 위압과 꺾이
지 않을 기상이 차넘치고있었다.

나는 철탑에서 한걸음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중대장의 눈을 곧바로 쳐다보았다. 부리부리한
그의 불타는 눈동자에는 그 무엇도 양보하지 않으려
는 완강함과 확고한 의지의 빛이 어려있었다. 나는
그가 철탑에 오르려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는 고집하지 않고 내가 명진을 업고 휴계실로 들
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였다.

그런데 한순간이 지날 때까지 중대장은 철탑에 오
르지 않고 소명진을 쏘아보고있었다. 중대장의 눈총
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소명진은 나에게서 날쌔게 뺨
찌를 빼앗아 잡더니 만류할새도 없이 철탑에 오르는
것이였다. 나는 그제서야 중대장이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고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온몸이 땀 땀 언
어린 대원을 다시 철탑으로 올려보내는 중대장의 소
행을 패씹하게 생각하며 분격을 참지 못하여 소리길
렸다.

《동무두 사람이야?! 그레가지고서두 지휘관이
야?!》

너무도 격한 나는 분김에 반발하여 다시 철탑에
오르려고 소명진을 붙잡아내렸다.

그러나 소명진은 뜻밖에도 완강하게 뺨치는것이
였다.

《놓으랴요.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제가...》

뿌리치고 기어이 철탑에 오르는 소명진을 바라보
는 나를 중대장이 그 억센 힘으로 꼭 붙잡고 있어서
더는 어쩔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어서 중대장을
뿌리치며 웨쳤다.

《이걸 놔라!》

철탑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중대장을 밀
어버리자 그는 어찌는수가 없는듯 가늘게 한숨을 내
불며 선선히 나서는것이였다.

《좋아요, 그럼 내가 올라가지요.》

그러더니 품속을 헤치고 무엇인가 꺼내느라 부시
럭거렸다. 그가 품속에서 꺼내든것을 보자 나는 의
아해지였다. 그것은 보온병이였다. 그는 보온병을
나에게 넘겨주며 각별히 당부하는것이였다.

《이걸 품속에 깊이 건사하십시오.》

나는 얼결에 그 보온병을 받아들였다. 나에게 보
온병을 넘겨준 중대장은 능숙한 외선공의 솜씨로 날
쌔게 철탑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가 철탑으로 올
라간 뒤 나는 보온병의 뜨거운 물을 마시려고 뚜껑
을 열었다. 찰나 나는 보온병안의것은 내가 마셔서
는 안될것임을 깨달았다. 향긋한 냄새로 보아 그
것은 분명 꿀물이었다. 그것이 따끈한 꿀물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온몸은 전류에라도 닿은듯 찌르르해
났다. 나는 얼른 보온병의 뚜껑을 막고 무슨 소중한
보물이나 건사하듯 심장 가까운 가슴에 그것을 꼭
품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것을 어렵פות이나마 깨달

울수가 있었다. 왜 철탑밑에 불을 피우려 했으며 숨복주머니에 알콜은 왜 가지고왔는지, 어찌하여 어린대원을 홀로 두고 여기를 떠났다가 다시 나타났는지 죄다 이해되는것이 었다.

나는 소명진과 진정수중대장이 올라간 철탑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뽀얀 눈보라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새삼스레 감동으로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내 가슴이 뜨거워 오는것은 다만 보온병의 온기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명진의 아름답고 숭고한 소행에 후터워진 가슴 한구석에 몰인정한 중대장에 대한 불만이 얼음장처럼 도사리고 있던것이 이 순간부터 붉은처럼 녹아나며 차츰 가슴의 피를 더욱게 끓여 주었기때문이었다.

나는 생각에 잠겨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룡선마루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선향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선향나무는 눈보라에 부대껴 모진 시련을 이겨내느라 몸부림치고있었다.

눈보라가 지동치는 룡선마루에 서있는 선향나무와 저 아득히 높은 철탑우에 올라간 소명진을 생각하노라니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난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스물여섯해전 여름의 폭우가 쏟아지고 우뢰치는 밤이었다. 지금 중대장으로 자라난 진정수는 그때 겨우 열일곱살난 애어린 신입공이었다. 나는 그때 그의 작업반장이었다.

그때도 우리 외선작업반이 새 전기로조업을 위한 고압선결선작업을 맡았었는데 바로 진정수가 말은 철탑의 고압선결선작업을 채 끝내지 못해 전기로의 조업기일을 늦잡게 되였었다. 나는 그때 다른 동무들을 다 들여보낸후 진정수만 남겨놓고 이렇게 말했었다.

《자기 말은 일은 제힘으로 끝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두말이야, 알겠어?》

처음엔 불만을 품고 불이 부어있던 정수는 무엇인가 느껴지는바가 있는지 제힘으로 결선작업을 끝내고야말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를 이끌고 폭우가 쏟아지는 구내길에 나섰다. 철탑이 서있는 작업장에 이르자 정수는 말없이 철탑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기름걸레로 해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따라 올라갔다.

공사가 끝나고 돌아올 때엔 날씨도 말끔히 개이었다. 폭우가 멎은 하늘엔 쪽빛 호수가 열리고 어디엔가 떠있는 밝은 달의 후광으로 신비경을 이루었는데 구름사이로 열린 그 호수같은 하늘가에 별들이 반짝이며 해염치고있었다. 우리는 선향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산등성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매마침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며 환히 빛을 뿜어서 선향나무의 모습은 뚜렷이 드러났다. 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의

미있게 입을 열었다.

《저 선향나무를 좀 보라구. 얼마나 장한가. 눈보라 비바람속에서두 언제나 제자리를 지켜 푸르구 끈게 서있는걸. 사람들 첫 이슬에 스러지는 호박잎이 되지 말구 저 선향나무처럼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잃지 말구 꾀꿉이 살줄 알아야 해.》

...

아 그것이 벌써 스물여섯해전의 일이라니! 그 때 열일곱살 애어린 신입공이였던 진정수는 세월과 함께 선향나무의 거목으로 자라지 않았는가?

내가 선향나무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더듬고 있는 사이 소명진과 중대장은 벌써 일을 끝내고 철탑에서 내려와 나의 등뒤에 다가섰다.

그들을 보자 나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얼른 품속에서 보온병을 꺼내어 뚜껑에 따가운 꿀물을 철철 부어 명진에게 주었다. 그런데 명진이는 받아온 꿀물을 중대장에게 넘겨주며 뭐가 그리 좋은지 뽀얀 서리를 뒤집어쓴 얼굴에 한껏 웃음을 실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그 꿀물그릇을 나의 손에 도로 쥐여주며 눈귀를 익살스럽게 실룩하더니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하였다.

《대대장동지, 애어린 선향나무들이 얼마나 튼튼히 자랍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소명진의 어깨를 미더웁게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명진이가 정말 훌륭한 선향나무로 자랐구나!》

명진은 쑥스러운 웃음을 병긋 짓고는 중대장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그러나 선향나무도 제혼자선 튼튼히 자랄수 없지요.》

명진이의 말은 나의 가슴속에 뜨거운 파문을 일으키고는 조용히 찾아든다. 그 말속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숨배여있는것인가.

언젠가엔 한그루의 애어린 선향나무가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느라 몸부림치던 이 언덕에 수천그루의 싱싱한 나무들로 숲을 이뤄 모진 설한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저 모습은 어찌 무심히 볼수 있으랴. 오늘은 벌써 거목으로 자란 해묵은 선향 나무가지에 받들리워 바람을 이겨내는 힘을 키웠고 또 그 가지마다에서 조용히 흘러내린 아침이슬을 자양분으로 하여 진실히 자라나는 무수한 선향 나무들, 그들의 매돌기마다 년륜을 새겨가는 줄기줄기엔 저 해묵은 선향나무의 뜨거운 사랑과 희망과 기대가 어리어있는것이라.

멀지 않은 래일 세월의 파도를 이겨낸 지 애어린 나무들도 하늘을 찌르는 거목으로 푸르를것이며 또 그의 품속에서 수천수만의 어린 싹들이 부드러운 토양을 뚫고 넓은 대지의 품에 안기리라.

눈보라는 저으기 기승스럽게 울부짖으며 야단스

럽게 휘몰아쳤다.

일을 끝낸 소명진을 꼭 껴안은 중대장은 눈보라를 헤치며 내 앞에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한없는 궁지와 환희를 체험하였다. 5 호회전로 시운전을 제기일내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한 인간의 성장을 보게 되는 기쁨이었다.

아무리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저 선향나무들은 끝내 이 추위를 이겨내고야말것이며 이 땅우에 푸르른 새봄을 맞아올것이다.

너의 집은 어디냐

박 해 출

위훈의 땀을 바친 또 하루
탄부모 벗으며 갯을 나선다
옷자락에 감기는 시원한 바람이여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여
내가 부러워 별들아 내 문노니
너의 집은 어딘가고?

무수히 반짝이는 저 많은 별
너의 집은 얼마나 크나
너희들은 대답하듯 빛을 뿌리누나
끝없는 우주공간 무한대라고

너도 물어보렴 나는 누구냐고
그럼 내 대답하리
나는 땅우에 별이라고
별이여 너와 나는
세월속에 운명을 같이하였거니
내 걸어가는 걸음걸음
오늘도 나를 반겨 반짝이누나

별이여 너는 정녕
어린시절 붉은 별 도표에 오르던
그 빨간 별
돌아올 때 안겨주며 반기던
어머님의 밝은 웃음

붉은넥타이 날리며 꿈 많은 시절
야영의 우등불가에서
내 희망처럼 간직하던 별
그래서인가 도화시간에
월미도 해안포에 너를 그렸다

내 총잡은 전호가에선
군모에 불타던 그 오각별
수호자의 자각 가슴속에 불러주어
내 눈동자 너처럼 빛내였구나 별이여!

알수 없어라 언제 내렸는지
하늘도 없는 천길 지하막장에
착암기 힘차게 돌리며 마주보는 눈길
그 반짝이는 눈빛들이
마음속의 별 총성의 별빛 아니냐
그속에 나도 있음을?

별이여!
네가 땅에 내렸는지
내가 하늘에 올랐는지
멀리 아득히 멀리 있어도
너는 내 곁에 있구나
너는 내 삶의 등대!

순간을 살아도 너처럼 살려는것
별이여!
너의 위훈 너의 참뜻은
영원한 빛발! 영원한 삶!
태양을 소리높이 부르며 간
김혁동지의 불멸의 웨침

별이여 이 밤엔 너와 나 둘뿐
날이 밝아도 날이 밝아도
너와 나 속삭임 끝없이
너의 집, 너의 집은 무한대가 아님을
끝없이 속삭이리
너의 집, 너의 집은 내 마음속!

광부들이 가는 길

한 원 희

이 길로 가네
흔들리는 인차를 타시고
수령님 오르셨던 이 길로
무산의 광부들이
쇠돌산에 오르네

아 이 길로 가네
굽이굽이 험한 굽이 돌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쇠돌산에 오르셨던 이 길로
광부들이 출근길에 오르네

우리 수령님도
무산광산은 나라의 보배라고
친애하는 그이도
철산봉은 조국의 보배라고
광부들을 불러주신 길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이
따사로운 향도의 해발이
하나로 어우리져 찬란하네
길이여 길이여
광부들이 가는 길이여

층계층계 채굴계단을 지나
수령님 오늘도 앞서가시는듯
굽이굽이 광구실 오르시는
친애하는 그이 모습 보여올듯
가슴가득 젖어드는 뜨거움

수령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친애하는 그이 가신 길을 따라서
무산의 광부들 철산봉에 오르네
내릴 때는 쇠돌산악 통채로 안아올
그 마음이 불타네 이 길우에 불타네!

락광정에서

꽃같은 처녀는 락광정의 신희수
제대군인 총각은 쇠돌차의 운전사

웃음 방긋 그 처녀 신희기발 흔들면
기다린듯 그 총각 쇠돌을 쏟아붓네

쇠돌이 사태처럼 락광정에 흘러들 때
서로 반겨 부딪치는 정깊은 두눈길

부딪쳐선 와그르르 가슴에 쌓이고

부딪쳐선 와그르르 락광정에 흘러드네

언제나 그 시각을 처녀는 기다리고
언제나 쇠돌차는 더 빨리 달려오네

락광정엔 두곱세곱 쇠돌폭포 쏟아지고
가슴속엔 두곱세곱 사랑폭포 쏟아졌네

아, 쇠돌아쇠돌아 너없이 어이 살랴
청춘의 그 사랑 맺어준 쇠돌아!

정광과 미광

쉬임없이 돌아가는 자선거에
쇠돌가루 흘러들어 갈라지네
하나는 정광으로
하나는 미광으로

정광은 쇠를 품어
자선기를 따라 돌건만
미광은 쇠를 품지 못해

쓸모없이 흘러가나니

아, 우리 길지 않은 한생에
당을 따르는 그 마를 지닐 때
정광처럼 삶은 빛나고
가슴에 지닌것 없다면
미광처럼 영원히 버림받네

날과 날이 바뀐다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였던
그 감격의 열풍이 굽이친다
무산선광장 끝에서 끝까지
수백수천의 기계와 기계들이
폭풍을 안고 돌아간다

하늘땅을 울리는 우뢰소리
쏟아지는 정광의 흐름소리
그이께서 안겨주신 숨결이
천만가슴 흔든다

그이를 우러르던 눈빛인듯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린다
자동조작대의 붉고 푸른 신호등
내 났을 통채로 빼앗으며
옷깃을 세차게 날린다
기계바람 불바람

그것은 그이 바라시던것
그이의 뜻대로
기계가 돌고

철이 태어나는것

돌고도는 저 마광기너머
돌고도는 기대와 기대들너머
아침노을이 불타오르고
저녁별이 돌아오르고
위훈의 날과 날이 엇바뀐다

그것을 그이의 뜻대로
해가 솟고 달이 뜨고
세월의 하루하루가 밝아
위훈의 시대가 태어나는것!

오, 무산이여 선광장이여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몸소 다녀가신곳이여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곳이여

여지시 시작되리
빛나는 위훈의 철의 새날이
80년대의 날과 날이!

평양이 가까운곳

김 정 철

평양은 금골에서 먼 천리
산너머 구름너머 먼 천리
그래도 마음속엔 늘쌍
평양은 금골에서 가까운곳

금골-평양행
남행열차에 오를 때도 그 마음
금골-평양선
직통전화를 걸 때도 그 마음

평양은 금골에서 가까운곳
군보다 먼지
도보다도 더 먼지
첫필림 영화도 여기에 오고

일년 내내 여기에 나와 사내
중앙의 국장들 정치위원들

평양은 주고있네 줄수 있는 모든것
금골부터 먼저 금골부터 먼저

금골은 수령님 자주 오시는곳
수령님 마음속에 가까운곳
그래서 온 나라앞에
언제나 제일 가까운 고장

금골은 우리 당의 사랑이 깃든곳
막장엔 있네 당의 숨결이
그래서 온 나라의 마음
쇠돌을 위해 여기에 사네

아 평양은 구름너머 먼 천리
오가는 정속에 가까운
금골은 마음의 금골
금골은 나라의 금골

봉선화

김 명 진

새날이 밝았으나 하늘은 아직 피빛 노을에 젖어 있었다. 구름속에 몸을 감추고있던 해는 그 한쪽 가락을 찢고 령롱한 빛발을 굽히는 바다위에, 그에 잇닿은 산기슭에 한껏 뿌려던졌다.

그 한줄기 빛은 은폐호앞에게 꽃씨를 심고있는 안선희전사의 얼굴에도 간지럼을 피워놓았다. 폭연에 끄슬린 땅을 파일구고 차돌들을 하얗게 박아 놓은 자그마한 꽃밭, 씨앗을 떨구고 손으로 꼭꼭 묻어주는 전사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등뒤에서 《선희동무, 무얼 하오?》 하는 웅글은 소리에 그는 놀라 허리를 폈다.

은폐호앞에는 석태준분대장이 우뚝 서있었다. 준엄한 전쟁의 환경에서 소년처럼 그 무슨 애잔한 일에 손을 적시는가고 꾸짖는듯한 엄격한 눈길...

선희는 고개를 수그리고 씨앗봉지를 어떻게 건사할지 몰라했다.

《중대장동지가 찻소.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임무가 나선것 같소.》

임무라는 말에 선희의 몸에는 긴장감이 살아올랐다. 그는 바빠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건장이 얼비친 오동통한 볼, 하얀 목달개를 갈아댄 꼭 맞추어 입은 군복은 선희의 몸매를 더 애되고 갈람해보이게 했다. 살갗이 맑은 동그란 얼굴에는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무슨 일로 찾는것일가?)

그에게는 이제까지 이렇다할 임무가 맡겨지지 않았다. 그 까닭을 자신에게서 찾은 그는 부모들이 물려준 심약한 체구가 총포탄이 튀는 전투에 부대끼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느끼면서 사나이들이 해볼만한 큰 임무가 차례지지 않는데 대하여 남모르는 고민을 겪어오는터이었다.

그런 선희였기에 어쩌다 지휘관들의 부름을 받게 되면 저절로 가슴이 후두두 뛰고 설레었다. 이번에는 무슨 임무를 주려는지?

하지만 이틀전 옥천읍을 해방하고 지금은 해안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중대에 선희를 기쁘게 해줄 그럴만한 임무가 있을상싶지 않았다.

두 전사는 중대부가 자리잡은 나지막한 엄폐호 앞에서 손기척을 하고 들어섰다.

감시구로 흘러드는 한줄기 빛이 탄약상자앞에 마주앉아있는 두사람의 얼굴을 조각상처럼 빛어냈다. 선이 굵은 중대장의 얼굴보다 부드러운 곡선미를 그린 처녀의 얼굴이 먼저 안겨왔다. 엄폐호안에는 전에없이 신선한 기운이 돌았다.

《인사하오. 굴섬학교 선생님이요.》

중대장의 소개보다 먼저 처녀가 일어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보였다. 두 전사는 갑자기 몸가짐이 굳어졌다. 얼터름한 빛으로 감시구로 안겨드는 굴섬을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가운데 놓인 저 섬에서 처녀가 때없이 찾아온것은 무슨 일때문일가.

중대장은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오늘 굴섬학교에서 개교식이 있소. 이 선생님이 가난한 애들에게 글을 가르쳐오셨는데 전쟁이 일면서 중단했던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오. 그런데 개교식에 인민군대가 꼭 참가해달라는거요.

애들의 간절한 청을 안고 선생님이 새벽에 배를 저어 일부러 찾아오질 않았겠소... 동무들이 우리 중대를 대표해서 가주어야겠소.》

(?)

선희는 어정쩡해지고말았다. 저 외따른 섬에 학교가 있다는것도 놀라왔지만 개교식에 《대표》로 간다는것은 더구나 생각해본적이 없는 일이었다. 준엄한 전쟁에서 오직 전사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원수놈들을 쓰러놓히는 전투임무만임을 알고있는 선희였다.

그런데 어쩌다 선희에게 맡겨진 《중요한》임무란... 그는 믿고 기대했던것이 무너져내리는 아쉬움으로 가슴이 허전해졌다. 어딘가 뜨아해하는 선희의 마음을 읽은 중대장이 뒤말을 보냈다.

《오늘은 그 애들을 축하해주는것이 동무들의 임무요. 동무들은 섬마을에 장군님의 은혜로운 빛발을 안고가는거요.》

《우리 애들이 지금 손꼽아기다리고있어요.》

옆에서 녀교원이 수집게 웃었다. 그제야 선희는 처녀의 해맑은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굴섬학교의 유일한 교원이었다. 바깥세상을 등지고 굴섬의 가난한 어부의 자식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깨끗한 지조가 처녀의 단아한 몸가짐에서 그대로 엿보이는 듯했다.

엄폐호에서 나오자 선희의 가슴은 차츰 진정되고 임무의 무게가 뿌듯이 실려왔다. 이 임무를 전투임무와는 비길수 없지만 해볼만한 임무인것만은 틀림없다. 외진 섬, 그늘밑에서 시들어가는 꽃봉오리들에게 은혜로운 빛발을 안고 들어간다.

그는 자기 마음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면서 그런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자기 마음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부풀어오른 기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글쎄… 전투담을 들려주어야겠는데…》
《노래를 한곡 불러주라면 몰라도… 참 야단인데
요.》

선호가 무슨 들놀이라도 가는 기분에 들떠버린 듯
싶어 태준의 가슴은 어쩐지 불안했다. 남진의 길에
서 중대가 머무르는곳마다 꽃씨를 뿌려온 전사, 씨
앗을 묻을 철도 아니건만 그 일을 즐겨해오는 연연
한 전사에게 사랑스럽게 붙은 《봉선화》라는 이름,
그 엷은 꽃잎 하나라도 다칠세라 태준은 어려운 모
퉁이에서는 선호를 아껴 뒤로 돌려놓아왔었는데…
오늘은 그에게 뜻밖의 임무가 맡겨진것이다. 놈들이
갓 밀려가고 아직 인민정권도 세워지지 않은 외진
섬…

…이런곳에 들어가는것은 그대로 정치사업이며
전투임무수행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어린 대원을 그런
미지의 섬에 《대표》로 들여보내다니. 중대장동지
는 선호에게서 무엇을 보고있는것일까?

중대장의 의도를 알수 없는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
고 어딘가 자신없는 생각이 들었다.

굴섬은 지척에 바라보이었다.

한기슭에는 굴껍질이 하얗게 쌓여 평퍼짐하고 다
른 기슭에는 우중충한 벼랑이 나앉은 꽤 큰 섬이었
다.

그리로 나무잎같은 매생이 한척이 떠갔다. 녀교원
이 숨씨있게 노를 저어나갔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
한 바다, 해빛에 얼비치여 은빛으로 뛰노는 물결, 머
리우를 날아예는 흰갈매기… 넘실대는 물결에 손을
잠그어보고난 선호는 굴섬을 다시 한눈에 건너보았
다. 빛을 그리고 인정에 주린 굴섬은 매 생이를 그자
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두둥실 마주 떠오르는듯싶었
다.

(그 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가?)

선호의 가슴은 어쩐지 종잡기 어려운 야릇한 흥분
으로 설레었다. 아쉬운것은 애들에게 들려줄만 한
전투이야기가 없는것이였다. 인민군대의 체모가 깎
이우지 않게 멋있게 보여야겠는데…

녀교원에게서 노를 넘겨받은 태준이가 기분이 좋
아져 선호를 넌지시 돌아보았다.

《<봉선화>, 고향이 경산이라고 했지?》

《네, 감나무가 우거진 금호강기슭이에요.》

《금호강이면 멀지 않은데 누이동생과는 곧 만날수
있겠어.》

《저를 손꼽아기다릴거예요.》

두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있던 녀교원이
수집은 빛으로 선호를 돌아보았다.

《저, 왜 <봉선화>라고 불러요?》

《…글쎄 나도 모르겠소.》

더듬거리는 선호의 얼굴은 붉어졌다.

철떡, 철떡… 가볍게 흔들리는 배에는 잠시 침묵
이 흘렀다. 저마끔 생각에들 감겼다. 먼 남쪽하늘가
를 이윽히 바라보는 선호의 눈빛은 애뜻한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서늘한 해풍, 갈매
기의 구슬픈 울음소리, 비릿한 물비린내… 어찌면
고향의 향기도 실어오지 않을까. 구름너머 푸른 하
늘이 잇닿은 못잇을 그곳으로 선호의 마음은 나래돈
힌듯 달려가고있었다.

…감나무가 우거진 금호강기슭, 유년시절의 동요
와 함께 아픈 추억이 찍혀있는 땅, 남달리 꽃을 좋아
하면서도 그 향기를 모르고 자란 어린 순희, 어찌다
지주집 마당에 핀 봉선화꽃잎 몇개를 뜯었다가 주인
년에게 무참히 짓밟힌 예린 손, 어머니 마저 잃고 그
집 종이 되어 노랑게 시들어가는 어린 꽃망울, 빛값
을 마련하려고 북으로 정처없이 길을 떠난것이 그
애와의 리별로 되지 않았던가.

이듬해 해방을 맞은 선호는 락원의 땅에서 배움을
즐기고있었지만 가슴구석에는 그늘이 져있었다. 글
소리가 맑게 울리는 창가에 만발하게 피어 나는 봉
선화, 해마다 여물어가는 그 만첩봉선화씨를 받아
품에 넣어두기를 그 몇번… 이 알찬 열매를 순희에
게 안겨줄 날은 그 언제일까… 한시도 잊을수 없이
그리워지던 그 땅이 이제는 지척에서 기다리고있었
다. 이 길이 지금은 굴섬으로 가고있지만 금호강물
결로 이어 지고있으리.

그는 물결에 실려오는 모든 애잔한 추억을 밀어버
리며 물결소리를 고향의 그 어떤 간절한 부락으로
들었다.

매생이는 굴섬의 파도치는 기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멀리서는 한눈에 들어보이던 섬이 어느덧
부풀어오른 가슴으로 그들을 맞아주고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펼쳐나서 손을 들어 맞아주리라
고 생각했던 넓은 기슭은 텅 비어있었다. 하얀 모래
불에 조그만 소녀가 혼자 나와 서있을뿐이었다.

(?!)

선호는 서운한 눈길로 기슭을 더듬었다. 다가오는
배에서 녀교원을 알아본 소녀가 다급히 웅쳤다.

《선생님-! 학교가 못… 쓰게 됐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태준이와 선호가 배에서 먼
저 뛰어내렸다.

소녀는 겁이 난듯 몸을 사리며 비실비실 뒤걸음
쳤다. 그 애를 일별하는 순간 선호는 너무도 낯익은
모습에 가슴이 몽클했다. 살갗이 맑은 동실한 얼굴,
깜박이는 눈, 방울코… 그것은 순희의 얼굴이였다.
한가닥 경계심을 품고 바라보는 귀염성스런 얼굴이
어찌나 신통한지…

태준이가 그애 앞으로 성큼 다가서자 소녀는 몸을
둘러 뉘다 달아났다. 재게 놀리는 발밑에서는 먼지
가 뽀얗게 일었다.

《설너, 서라고. 가지 말아요!》

너교원이 몇걸음 따라가며 소리쳐 불렀다. 그 소리에 소녀는 저만치 달아가서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언덕으로 치달아올라갔다.

그 애를 아연해진 눈길로 쫓던 선호는 그만 가슴이 아릿해졌다. 그 애를 부둥켜안아주고라도 싶은 마음인데 소녀는 왜 겁을 먹고 달아났을까.

뜻밖의 일에 선호보다 더 당황해진 너교원은 얼굴이 단풍잎처럼 붉어졌다.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애요...》

너교원을 따라 두 전사는 묵묵히 섬안으로 들어갔다. 인적이 가 끊어진 달구지길, 꺼멓게 고삭아 어푸러져있는 쪽배들, 오동나무숲 사이에 문들이 꼭 담겨있는 나지막한 집들...

둔덕우에 학교가 나졌다. 두개의 문을 가진 초라한 건물이었다. 먼지 이는 운동장을 질러들어가던 세사람은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총탄구멍이 숭숭 뚫린 벽, 깨어진 유리창들, 굳게 닫힌 문에는 종이장이 붙어있었다.

정황이 달라졌다. 너교원이 품으로 나온 새벽에 학과가 적들의 습격을 받은것이다.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는것을 안 숨어있는 원쑤 몇놈이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학교에 총탄을 퍼부은것이다.

두 전사는 종이장을 뜯어던지고 찌그러진 문을 열고 들어섰다. 썰렁한 기운이 도는 교실안은 더 한산했다. 바닥에는 흙덩이며 유리조각들이 깔리고 책걸상들에는 먼지가 두텁게 떨어져앉았다. 교단의 한쪽에 놓인 낡은 풍금에도 총탄구멍이 뚫렸다.

세사람은 흙먼지를 밟은채 그자리에 한참 서있었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침묵을 지키기가 싫었던지 선호가 풍금의 건반은 하나 누르자 뽕-하는 소리가 튕겨났다. 길게 울리는 그 음조는 세사람을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교실안을 거두어내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아내고 흙부스레기며 유리조각을 말끔히 쓸어냈다. 빼돌려진 책상들의 줄도 바로 맞추어놓고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여오지 않았다.

가슴아픈 표정을 지은 너교원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기다려주십시오. 전 좀 다녀오겠어요.》

너교원은 더 서있지 못하고 문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아이들을 찾으러 나간듯싶었다. 선호도 가슴이 타는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교실에는 태준이만이 남았다. 인적없는 방안을 호젓이 지키고있으려니 무엇인가 아프게 가슴을 눌렀다.

원쑤놈들의 책동으로 하여 생긴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것인가. 너교원이 꿈꾸어온 이 풍금을 늘

려 공화국의 첫 노래를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줄 게 교식은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유능한 정치일군도 아닌 보통병사들이 사람들의 굳어진 가슴을 움직여 놓을수 있을까. 그들의 가슴에 진심이 가당게 하려면? ...

태준은 서늘러운 해풍이 불어드는 창가에 다가 섰다. 처마밑 꽃밭머리에 꿇어앉은 선호가 보였다. 그는 못쓰게 된 꽃밭을 손질하고있었다. 너교원과 아이들이 아담하게 가꾸어온 한뼘기의 땅에도 가혹한 전쟁의 세례가 미쳤다. 가냘픈 꽃나무들은 군화에 밟혀 쓰러지고 가운데는 수류탄 폭발에 우묵하게 패워들어갔다.

선호는 쓰러진 꽃대들을 하나하나 일으켜세워 흙먼지를 털어주고있었다. 꼭 다문 입가에는 소녀와 같은 근심이 어렸다. 꽃대들을 다 세워준 그는 이번에는 허리춤에서 보병삽을 뽑아 패운곳을 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학교모퉁이에서 동실한 얼굴 하나가 빠끔히 나타났다. 분명 아까 매생이에서 내려 본 그 소녀였다.

그 애는 선호와 눈길이 마주치자 얼른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애는 모퉁이에 숨어서 선호가 하는 일을 죄다 바라본것 같았다.

또다시 얼굴이 나타났다. 선호는 싱긋 웃음을 보이며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 애는 잠시 망설이는 빛이더니 모퉁이 앞으로 조심히 나섰다. 오라는 손짓을 다시 받은 소녀는 용기를 낸듯 살땃살땃 걸어왔다. 인민군대의 부드러운 얼굴빛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던 꽃밭을 손질하는 일손에서 무엇인가 안도감을 느낀듯싶다. 소녀는 꽃밭 한귀에 이르러 서는 선호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열살을 넘겼을가. 살갗이 맑은 얼굴에 발갳게 떠오른 홍조가 귀염성스럽게 보였다.

물날은 검정치마를 캉퉁하게 두르고 맨발차림을 한 그 애는 한순간 부끄럼을 탄듯 눈길을 떨구었다.

《네 이름이 뭐냐?》

선호가 입가에 웃음을 보였다.

소녀는 눈가에 흘러내린 머리를 손으로 쓸어올리며 긴 살눈섭을 살푸시 치떴다.

《설너예요. 리설너.》

《몇살이야?》

《열두살.》

소녀에게서 그 어떤 애뜻한 정을 느낀듯 선호는 오래도록 그 애의 얼굴을 더듬었다.

《넌 내가 무섭니?》

《...아니요.》

《그런데 아까는 왜 달아났니?》

그 애는 귀밀이 빨개져 고개를 수그렸다가 바람에 날리는 반동구호를 흘림 건너다보았다. 선포가 발로 물어버리자 설너는 안심이 되는듯 코를 훌쩍 들이마시었다.

《반동놈들이 인민군대가 오면 다 죽인다고했어 요.》

《그 말을 끝이민었니? 바보… 내게도 너만한 동생이 있단다. 순희라고 하는데 꽃을 몹시 좋아 하는 애지 …》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남쪽 금호강기슭에…》 선포는 흙무지에서 파편조각이며 못쓰게 된 꽃나무들을 걷어내며 말했다.

《이제 꽃들이 한창 피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봉선화는 없니?》

《봉선화? 우리 섬에는 그런 꽃이 없어요.》

선포는 군복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 단추를 끌었다. 낫익은 씨앗봉지가 나졌다.

《이걸 이자리에 심자.》

《봉선화씨예요?》

《그래, 봉선화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랑해온 꽃이란다. 처녀애들이 더 좋아하지…》 선포는 흙을 보드럽게 공고고 이랑을 췌나갔다. 해풍에 그슬린 땅은 메말랐다.

《여기 썩터는 어디 있냐?》

《가만 계세요. 제가 물을 떠오겠어요.》

설너는 발딱 일어서 구울듯이 썩터로 달려갔다. 학교 모퉁이에서 뒤에 방긋 웃어 보이고는 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순간 태준의 가슴에는 야릇한 감동의 파문이 일었다. 어느때에는 꽃씨를 심는 일을 소년의 철없는 일로 보아오던것이 지금은 그 어떤 숭고한 뜻으로 새겨지는것이였다.

눈길을 든 태준은 마당한쪽 나무울바자우에 오롱조롱 나타난 아이들의 얼굴들을 보았다. 어느새 모여들었을가. 가까이 오고싶어하면서도 아직은 경계 어린 까만 눈빛들…

그때 썩터쪽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함께 《아저씨-!》 하는 새된 웨침이 들려왔다. 설너였다. 물뜨러 갔던 애가 웬일일가.

그 애는 학교 모퉁이를 벗어나 구울듯이 달려오며 또다시 췌췌히 소리쳤다.

《아저씨-! 놈들이 나타났어요. 피하세요!…》

울바자에 매달렸던 아이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언뜻 눈길을 든 태준은 왼쪽 오동나무숲에 풀썩 잠바를 입은놈이 얼핏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이쪽으로 어푸러질듯 달려오는 어린 소녀를 면바로 겨냥한 까만 총구, 저 악귀같은놈이 이런것을… 피하기는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선포가 몸을 날리어 가슴으로 설너를 막았다. 총성과 함께 선포는 그 애를 안은채 꽃밭에 모로 쓰러졌다. 이것은 태준이가 문을 차고 당겨 나가는 순간적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태준은 원쑤놈들을 뒤쫓아가 풀넝쿨에 기관단총 점발사격을 안기였다. 두놈이 쓰러지는 비명소리가 울렸다. 놈들은 설너를 쓰러뜨려 다시 학교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애부터 겨냥하여 쏜것이다.

태준이가 달려왔을 때 선포는 꽃밭 한옆에 쓰러진채 움직이지 못했다. 모진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듯 피기가 가셔진 얼굴.

《아저씨-!》

설너가 그의 몸을 흔들며 애절하게 부르짖었다. 《물을 떠왔어요. 눈을 뜨세요…》 그 애는 조갑지 같은 손으로 흙이 묻은 선포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선포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설너를 더듬어 보았다. 그가 무사한것을 알아보고는 입가에 안도의 빛을 지었다.

《아저씨, 이걸 잡숫고 일어나세요.》

설너는 손에 싸쥐고있던 풀잎은 바빠 헤쳤다. 이슬에 젖은 빨간 딸기가 드러났다. 그 한송이를 선포의 입에 가져다댔다. 하지만 굳어진 입술에서 딸기알들은 미끄러져 떨어졌다.

《선포-!》

태준은 목메어 부르며 선포를 안아일으켰다. 그가 어푸러졌던 자리에는 딸기빛처럼 붉은것이 흥건히 고여있었다. 부드럽게 고르어놓은 메마른 땅을 축축히 적셔나가고있는 선혈…

선포의 맑은 눈동자는 먼 남쪽하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푸른 하늘에 잇닿아있는 금호강기슭, 이 시각에도 복벽하늘을 바라보며 오빠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어린 동생을 그렷고있는것인가.

《본대장동무…》

조용히 입을 떼는 선포는 눈빛으로 태준에게 가슴속에 쌓인 뜨거운 당부를 남기는듯싶었다.

너교원과 아이들이 달려와 선포를 둘러쌌다. 《아저씨-!》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소리없이 흐느끼는 너교원…

선포는 그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고는 땅에 드리웠던 손을 가슴우로 가져왔다. 손에는 피에 젖은 봉선화씨앗이 그대로 쥐여있었다.

《애야…》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술을 움실거리다가 가슴에 매달린 설너의 조그만 손을 당겨 씨앗을 꼭 쥐여주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에 얼룩진 그 애의 얼굴을 닦아주고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우리 고향에도 봉선화를 꽃피우고… 순희의 손톱에 빨간 꽃잎을 들려주고싶었는데… 여기에 심어 너

희들이...》

방그시 열려진 선호의 입가에는 조용히 미소가 피어나고있었다.

저녁노을이 섬마을을 붉으레하게 물들였다. 노을빛은 꽃방에서 봉선화씨를 정성껏 심고있는 녀교원과 아이들의 얼굴에도 질게 타올랐다. 선호를 대신하여 태준이가 젖은 흙을 푹푹 묻어주었다.

그는 이 방에 씨앗만이 아닌 전사의 뜨거운 땀과 녀원을 심고있었다.

(《봉선화》, 네가 못다 뿌린 그 씨앗을 우리 기어 이 심어주리라. 금호강기슭에, 온 남녘땅에...)

이제 전사의 선혈로 물들여진 땅에서 봉선화들은 아름답게 피어날것이다.

가사 3편

수령님은 만풍년의 들길을 걸으시네

황 명 성

봄여름 농사일을 앞당겨주시고
가을날 포전우엔 황금물결 펼치시네
아 주체농법 마련하신 수령님
만풍년의 들길을 기쁨속에 걸으시네

은혜론 해빛으로 찬서리 밀어내고
사랑의 손길로 모진 가물 막으셨네

아 주체농법 마련하신 수령님
오곡백과 주렁진 들길을 걸으시네

수령님 걸으시는 행복의 들길에
조선의 가을이 끝없이 설레이네
아 주체농법 마련하신 수령님
만풍년의 내 나라 온 세상이 빛내시네

향도성 따라 가고가리라

김 명 옥

혁명의 길은 멀고멀어도
이끄는 손길 있어 두렵없어라
시련도 고난도 이겨나가며
향도성 우러러 가고가리라

혁명의 길은 시련에 찬 길
마음의 기둥있어 신념도 억세라

내 삶도 운명도 그 품에 맡기고
향도성 따라 가고가리라

혁명의 길은 영광 넘친 길
그 길에 한생바쳐 행복하여라
이 한몸 성세되고 방패되어
향도성 옹위해 가고가리라

철령의 샘물

리 안 희

수령님 헤쳐가신 화선천리길
철령우에 솟아나는 정가론 샘물
병사들과 맑은 물 함께 드시던
그날을 못잊어 찰랑이는가

아 그날을 못잊어
철령의 맑은 물 샘솟는다오

방열통에 맑은 물 부어주시던
그 모습 어려와 맑고맑은가
병사들을 영웅으로 안아키우신
그 사랑 못잊어 솟구친다오

아 그 사랑 못잊어
철령의 맑은 물 솟구친다오

샘물결엔 꽃구름 곱게 비껴도
포화속의 그날처럼 우리 산다네
가슴마다 안고가는 사랑의 샘물
남해의 끝까지 사품쳐가리

아 남해의 끝까지
철령의 맑은 물 사품쳐가리

바다의 저녁 외 1 편

윤 두 만

해저 무는 까지섬너며 저 멀리
갈매기들 깃들 찾아 날아가는 때
바다의 처녀들은 포구로 돌아오네
노을비낀 정든 포구로 찾아오네

키높이 자란 다시마를
샷대우에 기발처럼 달아놓고
돌아오는 이맘때 이런 저녁이면
아, 싱그러운 바다바람이
설레는 마음의 금선을 뒹겨주는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슴속에서 절로 울려나오는 노래
그 누가 들어주는이 없어도
흔들리는 배우에서
흥에 겨워 부르는구나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잔교우에 마중나가 내 귀기울여도
아쉽구나, 파도소리 바람소리에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여

하지만 처녀들아
내 어찌 모르랴, 날마다 너희들
당의 품에 꽃피는 삶
청춘의 끝없는 랑만을
가슴설레여 노래부르고있음을

비록 돌아오는 그 배길을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잔물에 젖은 고무옷을 입고
배전에 앉아 부르는 그 노래

아, 그래서 더더욱
듣고싶은 너희들의 노래다
그래서 저 푸른 청산도
귀를 강구며 듣고싶어하는
너희들의 노래다

언제나 그 언제나
보화로 가득찬 바다를 맡겨준
당의 믿음 고마와
배전이 넘치도록 미역다시마 따실고
조국의 기슭으로 돌아올줄만 아는
미더운 동해의 딸들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바다밑이건만
씨를 붙여도
김을 잡아도
티 한점없는 깨끗한 랑심을
바다밑에 함께 묻는 너희들이거니

그 가슴가슴들에서
맑은 샘처럼
끝없이끝없이 흘러나오는
로동의 노래이기에

아 그래서
화려한 그 어느 무대에서
울리는 노래보다
양식공처녀들아, 너희들이 부르는
소박한 그 노래
더 듣고싶어 지는
바다의 저녁 이다

양금산 도래굽이에

양금산 도래굽이에
노을이 타는 해질녘
나는 만났네, 배에서 내린
나어린 양식공처녀를

하늘색 머리수건을
가뜬히 쓰고
흰파도 밀려오는 기슭으로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바다의 처녀

하루일도 끝났건만
선뜻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듯
방금 떠나온 바다 멀리
풍년든 다시마태장을 내다보는 그 마음

아, 해저문 이제는
젖은 그 고무장화를 벗고
고운 비닐신을 갈아신어도 좋으련만
어찌하여 너 고무비옷일랑

인차 벗지 못하는거나

두고온 저 바다밑
다시마 자라는 소리가
그 소리가 자꾸만 들려와
발목을 붙잡아서나

너를 기다려
저기 텔레비죤안테나 높이 단
문화회관에선
오늘밤 새 영화가 있는데

포구의 갈매기도
너를 반겨 날아오고
저기 저 푸른 솔밭머리엔
해당화도 저렇게 떨기지어 웃는데

처녀야, 바다의 처녀야
어서 가 쉬라고 달을 건넌면
다소곳이 머리숙이며 네가 하는 대답이

이 가슴 올려주는나

-바다농사도 절기가 있어
안타까와요

아 바다농사도 계절이 있어
하루 스물네시간
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불붙는 그 마음
모래불에 새겨가는 처녀의 발자국
철썩이며 밀려오는 파도, 하얀 파도는
그의 발자국을 지워버려도

아, 이 가슴속에 깊숙이 찍힌다!
나이는 어려도 어리여도
당의 뜻을 안고사는 그 마음
저 바다속의 보물보다 더 소중한...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게...

- 경포바다양식사업소에서 -

벼 바다

백 일 호

동해의 절벽강산에 부서지는 파도
벼이삭 알알 천만물구슬로 날리는가
차량마다 물동 넘치게 실은 펄차도
그 속을 뚫으며 달려가고있구나
농장의 이동수리차도
그 파도 헤쳐 달려오고있구나

모내기때 아찔하게 쳐다보이던 철교도
설참 온 작업반이 둘러앉던 동쪽길도
깊은 바다속의 교각처럼 폭 묻어놓고
끝없이 설레이는 벼바다여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아래
높이 일렁이는 벼파도여!

어버이수령님
눈내리는 날에 벌써
랭상모관자리를 보아주신
그 은혜 은물결로 천이랑
낮아지는 온도를 넘려하시여
물길따라 비닐박막도 씌워주신
그 은덕 금물결로 만이랑

계절에 앞서
백가지 농사일을 넘려해주시고
계절에 오시여선

만가지 농사일을 보아주시는
그 사랑 해해 더 크게 안겨쳐
해마다 더 높이 일렁이는 파도

알찬 이삭들우에
사발을 굴렀다는 이야기도
-춤추는 벼이삭에 걸채인 송아지
받들려있었다는 이야기도
먼 옛말로 밀어버리며
이리도 높이 달음쳐 오는가

《만경봉》호 《백두산》호
대양우에 떠있듯이
땅우의 뛰고달리는 모든것을
배둥실 띄워놓고
전에없이 알찬 이삭의 무게로
산등성이까지 파도쳐오르는 벼바다여!

이젠 벼바다여
너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지 않고는
대양의 크기도 말할수 없구나
이젠 벼파도여
너의 높이와 장쾌함을 보지 않고는
그 어떤 격랑도 노래할수 없구나!

질은 향기

서성룡

1

초저녁에 평양역을 떠난 급행열차는 이튿날 정오 무렵에 검덕산줄기의 험산계곡으로 접어들었다. 계곡은 금시 무너질듯한 산들을 비좁게 세우고 오불꼬 불한 차길을 간신히 틈여주었다. 차창으로 바투 다가서는 바위산들을 금시 스칠듯하며 열차는 살같이 내달렸다. 눈썹리를 찌르며 회회 스치는 산들은 진한 몸치장을 하고 여름철 첫대문을 열고 있었다.

상급집대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던 광업연구소 연구사 한석빈은 메스메스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자리에 누워버렸다. 은덕광산공업시험소에서는 달포전에 새로운 《승강식올리굴뚝기대차》를 창안하여 연구소에 제출하였다. 한석빈은 이 창안의 보다 큰 경제효과성을 위하여 현지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50고개를 훨씬 넘은탓인지 밤새 달려온 려행길은 그에게 참기 어려운 지루감을 주었다. 한석빈은 눈을 감아버렸다. 열차방송에서는 어느 한 광산의 로력영웅의 투쟁실화를 들려주고있었다. 실화의 도중도중에 튀어나오는 조현철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한석빈은 방송에 귀를 강구었다.

(조현철이라니!!)

의혹에 잠겨 잠시 기억을 고르던 한석빈의 얼굴에 피곳 놀라는 빛이 피여올랐다. 그는 용수철에 튕겨나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무릎을 쳤다.

《현철이!》

한석빈의 부얼부얼한 얼굴에 피로는 가신듯 사라지고 기쁨의 미소가 함뿍 피었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벌써 23년전 일이었다. 그때 굴진소대장이었던 찬석빈은 조현철을 착암공으로 데리고있었다.

(그가 벌써 갱장으로 자라구 로력영웅으로 되었던 말이지!)

한석빈은 울렁거리는 심장의 박동으로 숨이 턱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창가에 다가섰다.

23년전 그해 초봄부터 한석빈소대는 새로 개발한 혁신갱의 첫 광석발을 한달동안에 마련하기 위한 고속도굴진을 벌리었다. 그때 소대는 몇메터의 암벽을 밀고나가기 바쁘게 변덕스러운 자연의 심술에 부딪혔다. 천년잡든 암벽은 소낙비같은 석수를 휘뿌리며 발광하였다. 그런데다가 착암기를 들이대면 불꽃만 탁탁 뿜어버리는 규암층이 나타났다. 한걸음을 내디디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불현듯 그의 눈앞에 조현철이와 나란히 떠오르는 한 인간이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움푹 움푹 패워들어가는듯한 육중한 체격, 둥그스름한 얼굴, 영민하게 반짝이는 작을사한 눈... 엄광국갱장이었

다. 그의 모습이 떠오르자 한석빈은 웬일인지 점차 자책의 기분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은 해변가의 한 광산료양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있는 70고령의 엄광국이지만 늘 추억속에서는 가슴을 지저대는 사람이었다. 그의 엄엄한 성미와 엄가라는 성이 꼭 맞아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엄갱장》이라고 불렀다.

어느날아침이었다. 조현철은 소대휴게실에 곱처럼 웅크리고있는 난로통을 들어내자고 제기하였다. 한석빈은 며칠 좀더 두고싶었으나 그대로 응하였다. 소대원들의 기분을 언짢게 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한석빈은 그에게 사람 뒤명을 붙여주고 작업조직을 짜기 위해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때 군데군데 석수에 젖고 돌가루로 얼룩진 솜옷을 걸친 엄갱장이 가슴에 간데라를 걸고 방안에 불쑥 들어섰다. 근위사단 땅크병출신인 엄광국은 전쟁의 포화가 멎은뒤 첫 제대군인대렬의 한 성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가슴우에서 훈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장에서나 모임장소에 서나 가슴우에서 떨어지지 않는 간데라만 봤을뿐이다. 해방직후부터 써온다는 그 간데라는 불종대가 오토기팔처럼 달려있고 갓 난애기 손바닥만한 확대경을 멍그렇게 붙인것이였다.

《난로통은 왜 떼요?》

의자에 앉으며 장갑을 벗는 그의 석심한 목소리가 푹하게 울렸다.

《봄이 아닙니까.》

짜랑짜랑한 조현철의 대답이였다.

《봄이라구?!》

《아, 벌써 제비꽃이 폈습니다.》

조현철은 의아한 눈길로 엄갱장을 쳐다보았다. 한석빈은 웃음띤 얼굴로 두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저 듣기만 하였다.

《제비꽃을 피우는 그 봄벌이 젖은 옷을 말리워 준답데? 난 도무지 봄바람이 와닿기 바쁘게 피는 꽃은 꽃갈질 않더구만. 난로는 그냥 뒹두요.》

엄갱장은 주머니에서 네모지게 접은 도면을 꺼내며 몽툰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조현철은 얼굴을 붉히며 불부는 소리를 했다.

《모두 겨울잠을 털어버리는데 우리 휴게실도 봄맞이 해야지요 뭐.》

그러나 엄갱장은 들은척도 안했다. 한석빈은 긴장해지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난로통은 제가 떼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하느라구말입니다.》

긴장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한석빈의 목소리

는 펍 부드러웠다.

《아니 동문 막장에서 소낙비같은 석수가 쏟아진다는걸 잊었소? 그렇게 가벼운 노릇을 하니까 이따위 창안도 도입하려고 하는거요.》

엄경장은 손에 쥔 도면을 내흔들며 버럭 증을 냈다. 그 도면은 현철이가 창안한 바람조절기도면이었다. 한석빈은 손바닥을 맞비비며 조심히 말일 뻘었다.

《저, 부족점은 좀 있어도 한결음한결음 손잡아 이끌어주자구...》

《처음부터 손잡아주면 다자라서두 손잡아주길 바란단말이요.》

《허참.》

한석빈은 그가 별스레 심각하게 말하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형편으론 도입할 여지가 없소.》

엄경장은 펼쳐든 도면을 현철에게 활 내밀었다. 조현철은 깜짝 놀라며 열결에 도면을 받아들였다.

《더 머리를 짜보오.》

엄경장은 말끝을 마치기 바쁘게 훌쩍 일어서서 실장갑을 끼었다. 한석빈은 얼른 그에게 다가서며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재빨리 말하였다.

《소대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열정을 식히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구...》

엄경장은 그를 힐끗 쳐다보다 말고 방안을 훌쩍 나가버렸다. 한석빈은 마음속에 울분이 주먹같이 뻗쳐올랐으나 꿀꺽 삼켜버렸다. 조현철의 기대가 어렸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옅은 입술이 파르르 떨었다. 한석빈은 현철의 고충이 가슴 저리게 안겨왔다. 그 고충을 엄경장도 모를리 없었지만 어찌서 그렇듯 맹목하게 뱉어버리는것인가. 물론 머리를 쓰면 더 훌륭한 창안이 나올수 있겠지만 현철의 그 마음이야 알아주어야 하잖는가. 한석빈은 현철의 가슴에 재가 없을가 두려워 어루만지듯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힘을 내자구.》

조현철의 어두운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어리었다. ...

《다음 서는 역이 은골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하여주십시오.》

렬차방송원의 목소리에 한석빈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제 한석빈이가 나타났다는 말만 들으면 허둥지둥 내달려올 조현철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23년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될 그 기쁨으로 부풀어오르는 그의 마음은 어느덧 급행렬차보다 앞서 은덕광산으로 가닿았다.

려관접수실에서 수속을 마친 한석빈은 관리원의 안내를 받으며 층계를 올랐다. 호실앞에서 걸음을 멈춘 한석빈은 너인에게 점잖게 물었다.

《혹시 조현철갱장동무를 모르시오?》

《이번에 로력영웅이 된 ...》

《웁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석빈이란 사람이 왔다

구 좀 알려줄수 없겠습니까?》

《잘 아시는 사인가요?》

《당장 달려올겁니다.》

《그래요?》

너인은 이제 곧 있게 될 그들의 상봉을 축하하듯 상긋 웃었다.

려관호실은 밝고 아늑한 느낌으로 려로에 젖은 한석빈의 기분을 대뜸 밝고 장쾌하게 하여주었다. 한석빈은 창문가에 다가섰다. 갱구들이 평하니 뚫여있는 맞은편 산중턱에서 광석차들이 수전기불꽃을 펴고거리며 겨끔내기로 오가고있었다. 두세칸짜리 단층건물이었던 혁신갱사무실은 3층집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사무실앞마당에 서있는 구새먹은 나무는 여전히 흰꽃을 무더기로 피우고있었다. 한석빈은 그 아카시아나무를 배경으로 우렁이 떠오르는 조현철이며 엄경장의 모습으로 가슴이 뒤설레임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잊지 못할 추억속에 남은 그들이 금시라도 달려와 안고 돌며 웃고 떠들듯 싶었다. 한석빈은 흥분하여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이제나저제나 조현철을 기다리는 그의 온 신경은 복도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에 쏠리었다. 이제라도 당장 문을 벌컥 열고 그가 들어서는듯싶었다.

《똑똑똑.》

가벼운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한석빈은 몸을 흠칫 떨며 창문가에서 물러섰다.

(현철이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미치는 그 순간에 가슴속의 피가 일시에 한끓으로 모였다가 뿜어지는듯한 벅찬 감정을 느끼며 한석빈은 소리쳤다,

《예. 들어오시오.》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고 관리원 너인이 방긋이 웃으며 들어섰다. 한석빈의 눈길은 언뜻 너인의 어깨너머로 가닿았다. 그러나 《그뒤에는 어둑스레한 공간뿐이었다. 한석빈은 저도 모르게 후- 한숨을 내쉬었다.

《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시면...》

《아, 아니, 아주 훌륭합니다. 려관을 참 잘 꾸렸습

니다.》
한석빈은 마음의 허둥거림을 건잡지 못하며 두서없이 말을 쏟았다. 너인은 처녀애들처럼 수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저, 조현철 갱장동지가...》

《예. 그를 만나보았습니까?》

《전화로 알렸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누만요.》

《아니?! 모르겠다니요?! 혹시 이름을 헛갈리지는 않았겠지요?》

《갱장동지를 잘 아시는분이라고 말씀드리니 글썽들던 이름같다고 하면서도 기억 못하시누만요.》

한석빈은 순간적으로 광풍에 휘말려 태질을 당하는듯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인차 리성을 회복하였다.

《허어참. 사람두. 기억이 그렇게 무딜수가 있나. … 하긴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허허. 내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너인은 그들의 상봉을 마련하지 못한것이 자기 탓이나 된듯 어쭙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관리원의 발자국소리가 점점 멀어져가자 불시에 한석빈은 마음속 한구석으로 노여움이 도량물처럼 흘러 들었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양복저고리 단추를 채우며 2층 홀로 나갔다. 홀의 한켠구석에 있는 출판리원의 책상우에 전화기가 놓여있었다. 한석빈은 혁신갱 갱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막장에 들어가고 없었다. 한석빈은 수화기를 든채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2

한석빈은 창문가로 다가섰다. 저녁해는 갱구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구새먹은 아카시아나무의 정수리에 붉게 타던 락조도 사라져버렸다. 믿음이 허물어지는 심한 허탈로 허영게 걸렸던 한석빈의 얼굴이 조각상처럼 굳어져버렸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잊었는가? 아니면 그 어떤 불쾌한 감정이라도 있는가?)

한석빈은 돌개바람처럼 가슴속에서 회오리치는 노여움과 의문을 애써 누르며 흘러가버린 세월의 갈피갈피를 랭정하게 번져갔다.

…검질긴 땅속의 변덕은 알곶게도 끝을 몰랐다.

석수가 쏟아져 발목을 잠그었고 규암층은 여전히 딱딱 맞섰다. 걸싸게 착암기를 들이밀고있던 한석빈은 급한 걸음으로 다가서는 엄갱장을 알아 보고 기계를 세웠다. 팔죽가마 뿜듯 소란스럽던 막장은 삽시에 정적속에 묻혔다.

《조현철동무가 어데 있소?》

막장을 쯤 울리는 엄갱장의 목소리는 흥분에 들썩고 둥그스름한 철색얼굴에 보기 드문 밝은 색깔이 진하게 비껴있었다.

《이것보오. 그녀석이 장가를 가게 됐단누만. 26일이 잔치날이라오.》

엄갱장은 마치 제 장가가듯 싱글벙글 좋아하며 전보지를 내밀어보였다. 전보지를 받는 한석빈의 손이 가볍게 바들바들 떨렸다. 가볍게 바들바들 떨렸다. 종업원결기모임에서 월 250메터 고속도굴진을 목표로 제기한 한석빈의 결의가 밑뿌리채 뒤흔들리는듯 싶었다.

(이 긴장한 판에 잔치를 벌리다니?)

전보지에 씌여진 글발이 희뿌연 안개속에 잠긴듯 하더니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한순간의 감정을 녹잡지 못하여 일생을 두고 귀가려운 뒤욕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잘됐습니다. 터진 가슴도 아물게 할겸 보냅시다.》

《건 무슨 소리요?》

엄갱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그라져갔다.

《그 동무가 바람조절기를 창안하느라구 잠이나 번번히 잔줄 압니까? 지나치게 목사발을 만들어 놓으니 막장에 들어올 턱이 있습니까?》

《뭇라구?! 그래 결근했던말이요?…음-》

가슴을 쥐여짜는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엄갱장의 둥그스름한 얼굴에 배척당한 괴로움이 천천히 배어올랐다. 엄갱장은 붉어지는 마음의 탕개를 건잡지 못하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난 그래두 그녀석이 더 큰 힘을 안구 일어설줄 알았소.》

한석빈은 외진 막장에서 간데라불이 꺼진 때처럼 마음이 허둥허둥해 하는 엄갱장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권고하듯 말하였다.

《갱장동무. 경솔하게 쏘는 진심보다 때로는 얼굴에 가볍게 띄우는 웃음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낱한시에 낳은 쌍둥이도 성질이 서로 다른데 땅크물듯해서야 되겠습니까?》

엄갱장은 생기를 잃은 눈길로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말고 버럭더미에 주저앉았다. 벗겨든 안전모에서 담배갑을 꺼내드는 그의 손은 알릴듯말듯 떨리었다.

《동문 그래서 현철이를 닭알보따리다루듯했구만… 소대장동무, 가슴을 조이며 살얼음을 빙빙 에돌기보다 아예 쪽 빠져 몸을 적시는게 속 시원하잖소?》

《얼마 살아오진 못했지만 그렇게 적셔본적이 한두번 아니지요. 다 쓸데 없답니다. 저만 열이 오르구 재채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고나면 가슴속엔 재가루 밖에 남는게 있는줄 압니까?》

《그렇다-》

엄갱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듯하더니 단호한 기색이 어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25일까지 무조건 광맥을 잡아야 하겠소. 래일부터 돌격대를 조직하시오.》

《25일까지라니요?!》

《힘들지만 어찌겠소. 장가드는 녀석이 첫날밤에 광맥을 잡던 얘기나 하게 해야 할게 아니요.》

《그건 나도 반대 없지만 지금 같은 악조건에서는 곤란할것 같습니다. 30일까지도 뽏뽏한데 무슨 수로 닷새를 당기겠습니까? 지금 막장형편에선 그 바람조절기라도 받아들이든가 무슨…》

《바람조절기는 안되오.》

엄갱장은 석빈의 말을 가로채며 단호히 내뱉었다. 그는 멍해서 바라보는 한석빈에게 뭔가 더 말을 할듯말듯하더니 그냥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 갔다. 어쩐지 그의 걸음세는 무거워보였다.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석빈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날저녁 퇴근인차에 몸을 실은 석빈은 무거운 기분속에서도 예정보다 닷새를 앞당겨 광맥을 찾을 방도로 모대기였다. 문득 그는 뒤서너

개 막장을 타고왔을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팡맥을 잡지 못해도 250미터의 끝머리는 잡을수 있을 상실했다. 지금 형편에서 팡맥을 잡는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럴바치고는 계획수자라도 수행했다는 소릴 들어야 할게 아닌가. 갑자기 인차가 세차게 들춰 놓는바람에 한석빈은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번쩍떴다. 도중역에 멎었던 인차가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피곤하세요?》

앞의자에서 방실 웃으며 조용히 묻는 너인은 갱진료소에서 준의로 일하는 안해였다.

《어. 이제 올랐소?》

한석빈은 싱긋 웃으며 기지개를 쳤다.

《현철동무가 병원에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현철이가 병원에서 <도주>하다니 무슨 흥단지같은 소리요?》

《당신두 참. 사람들을 그리도 인정깊게 대해준다면서 자지 소대원이 수혈을 한것도 모르고 계세요?》

《응?!》

한석빈은 어마지무 놀란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았다.

《어제저녁 해질무렵에 광석채집을 다니다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 학생아이를 그 동무가 구원했어요. 수혈까지 하고나서 지난밤엔 병원에서 쉬었다는데 아침에 없어졌나봐요.》

(그래서였구나!)

한석빈을 불시에 가슴을 메우며 몽클 솟구치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런줄 모르고 바람조절기로 통을 맞자 아예 맥을 뽑은줄 알았던 한석빈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까지 하였다.

《여보. 집에 당는바람으루 뭘 좀 차리우. 내 현철이를 데리구 가겠소.》

그러나 조현철은 함속에 없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소대에서 돌격대조별명단을 발표할무렵에야 도면말이를 들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한석빈은 얼핏 엄갱장을 결는 질해보았다. 현철이가 나타나자 어째서인지 감동의 빛이 어린 얼굴로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 차갑이하는 전차들에 눈길을 돌렸다. 점차 그의 얼굴에는 마음속의 모진 생각과 아귀를 짓지 못해하는 그런 모지름이 진하게 비껴 올랐다. 한석빈은 그가 조현철의 소행을 아직 모르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돌격조명단을 마저 부르기 시작하였다.

《김인수동무.》

《예.》

《박철삼동무.》

《옛.》

《돌격조 제2조 조장 조현철동무.》

《예.》

그 순간에 엄갱장은 와뜰 놀라며 생각에서 깨어나 한석빈의 쪽으로 몸을 휙 돌렸다.

《난 조현철동무에게 돌격대의 첫 전투에 참가할 영예를 박탈하자는걸 제기하오. 동무들. 조현철동문 어제 하루 자의대로 전투대렬에서 떨어졌습니다. 난 그가 자신을 뉘우칠수 있게 처벌을 주어 폐석부림장 경비나 서게 하자는겁니다.》

순간 긴장감이 공간속에 팽팽하게 어렸다. 한석빈은 어쩌면 그럴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엄갱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현철동문 어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학생아이를 구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있소.》

《예-에?!》

한석빈은 깜짝 놀랐다. 쇠몽둥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소대에 승차구령이나 주시오.》 엄갱장은 미간을 찌프리며 그를 바라보다 말고 인차앞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한석빈은 종잡을수 없는 생각에 잠겨 그의 뒤모습을 멎하니 바라보았다. 소대는 흩어져갔다. 못박힌듯 서있던 조현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크고 검은 눈에 억울함을 못이겨 하는 빛이 번득이였다.

《제가 뭇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단말입니까?》

조현철은 왈각 쏟아지는 설음을 가까스로 참다말고 몸을 휙 돌려 머리를 짓속이고 뛰여갔다. 따뜻한 봄벌속에 끼워든 겨울의 쌀쌀한 마감바람이 그의 머리며 옷자락을 마구 물어뜯었다.

《현철이!》

한석빈은 어떻게 그에게로 달려갔는지 몰랐다.

《어데로 가는거요? 응?》

《억울합니다. 난 그래두...》

조현철은 입술을 꼭 깨물며 먼 하늘가에 눈길을 던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펴 돌았다.

《억울하면 왜 앞에서 말을 못하오? 줄장부처럼 말이요.》

《난 건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조현철은 들고있던 도면말이를 석빈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본 한석빈은 깜짝 놀랐다. 바람조절기수정안이었던것이다. 가슴이 몽클해진 한석빈은 감동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철의 엷은 입술이 쪼들쪼들 달라붙었다. 한석빈의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왔다.

아, 이런 인간을 몰라보는 엄갱장이란말인가!

한석빈은 현철의 손을 와락 잡아끌었다.

《가자구! 막장으로말이야.》

조현철은 굳어진듯 소대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엷은 홍조가 비끼고 불편이

셀룩거렸다. 발차를 알리는 차장의 호각소리가 아슴
푸레하게 들려왔다.

《소대장동무!》

조현철은 뜨거운것이 가랑가랑 땀한 눈으로 석빈
을 쳐다보다 말고 얼굴을 수그리었다...

어스름속에 파르스름한 불꽃을 펑긱펑긱 날리며
달리는 개구안의 전차들을 배경으로 그때의 조현철
의 눈물젖은 얼굴이 눈앞에 안겨온다.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속에 어찌하여 나란 존재
가 살아 숨쉬지 않는가? 물론 그에게 한석빈이란 사
람을 재삼 상기시키면 기억해낼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잠을 자다가도 한석빈을 부르면 눈
을 번쩍 뜯 그런 기억속에 나는 없다. 왜 없는가?)

한석빈은 괴롭고 쓸쓸하고 분하였다.

3

그는 잠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저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살
아오를뿐이다.

...석수는 멎을듯말듯하다가도 장마철소낙비처럼
기승을 부리며 쏟아졌다. 삽시에 비옷을 입은 소대
원들의 몸으로 얼음장같은 찬물이 습습어들어왔다.
한석빈은 그 어떤 울분 비슷한 감정에 들떠 세관계
착암기를 들이미는 조현철을 조심히 살피며 작업을
지휘하였다. 조현철은 얼굴에 흐르는 돌물을 씻을념
도 하지 않고 정대끝난 쏘아보고있었다. 한석빈은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때 문
득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한석빈은 천천히 얼
굴을 돌렸다.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갱
도 한쪽벽 밑에 물도랑을 깊숙이 짜고있던 운광공청
년이 다가오는 갱장에게 경례를 붙이고있는것을 알
아보았던것이다. 깨진 질그릇 다루듯 하면서 겨우
조현철의 마음을 가라 앉게 했는데 땅크같은 사람이
이제 무슨 불호령을 내려서 와지곤 바스라뜨릴지 몰
랐다. 한석빈은 가슴이 다 오그라드는듯싶었다.

《설비점검준비는 다 됐소?》

그제야 한석빈은 오늘이 설비점검날임을 상기하
고 얼른 착암기를 세웠다. 갱장의 뒤로 몇명의 점검
원들이 줄레줄레 다가섰다.

《갱장동무. 소대는 설비점검준비를 ...》

거수경례를 붙이고 보고를 하던 석빈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잦아들었다. 조현철을 알아본 갱
장이 걸음을 멈추고 눈살을 찌프리고있었기 때문이
였다. 조현철은 착암기를 멈추었다. 삽시에 막장은
석수 쏟아지는 소리로 가득차 한적하고 스산하게 보
였다.

《누가 동무더러 여기에 와 있으라고 했소?》

《...》

목을 외로 트는 조현철을 대신하여 한석빈은 자기
가 그랬다고 말하였다.

《동무가?!》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재이는 한석빈의 가슴은 조여들거나 말거나 엄
갱장은 똑한 목소리로 내쫓았다.

《그만두시오. 동문 도대체 뭘하자는 사람이요? 당
장 자기 위치로 돌려보내시오.》

아직도 땅크를 물고 초연속을 돌아치던 성난 호랑
이같은 기상이 가셔지지 않은 엄갱장의 작은 눈에서
불씨가 번쩍이는듯하였다. 한석빈은 그가 자기의 인
격을 제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홀 붙어버리는것 같이
생각되자 뺨이 울퉁불퉁 하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저. 갱장동무. 사실 현철동무에겐 처벌을 받을 리
유가 없다고봅니다. 그는 응당 휴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눈살을 찌프리고 착암기를 어루만지던 엄갱장은
불현듯 서글픈 목소리로 나직이 《휴식했어야 했소.
휴식했어야 했지. 그럴 권리도 응당 있구.》 하며 한
석빈의 말허리를 끊었다. 한석빈은 어안이 빙빙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엄갱장은 조현철쪽으로 얼
굴을 돌리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동문 막장에 있어야 했소. 동무에겐 자기
의 아름다운 소행을 발판으로 해서 값을 받아내려는
못된 습관이 있소. 동문 자기를 반성해야 하오.》

조현철은 뺨소가 번득이는 얼굴을 쳐들었다.

《전 자신을 반성할 필요를 모르겠습니다.》

순간 엄갱장의 둥그스름한 철색얼굴에 피로운 그
늘이 비껴들고 뼈를 짚는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는
웅심깊은 기상이 드러났다.

《좌우간 작업이나 마저 끝내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소대장동무. 제 여기 아니면 뺨심 바칠곳
이 없는줄 압니까?》

조현철은 울퉁뺨을 쓰면서 잡고있던 착암기를 활
밀어제끼었다. 그리고 그는 뺨뺨이 막장에서 뛰쳐나
갔다.

《현철이!》

한석빈은 그를 부르다말고 엄갱장을 원망에 찬 눈
길로 바라보았다. 엄갱장의 얼굴은 퉁퉁하게 죽어갔
다.

《뒤두요. 폐석을 털어내구나면 노다지가 남는 법
이요.》

《너무합니다. 소대장은 뭘 얼굴이 없는줄 압니
까?》

한석빈은 그를 원망스레 보다말고 조현철을 쫓아
뛰어나갔다.

그날 한석빈은 뽕이 돌올대로 돌은 조현철을 이끌
고 영양제식당으로 갔다. 그는 현철에게 닭고기국밥
을 푸짐히 먹이면서 무등 애를 써서야 뽕을 다스리
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있
을 때 키가 꺾두룩한 로동보호물자공급원이 장갑꾸
레미를 들고 나타났다. 한석빈은 그에게 눈짓하며
장갑 한켠레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급원은 눈
이 휘둥그래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며 딱 잡아챘다.
한석빈은 매정하게 구는 그의 코앞에 현철의 다 꺾

진 장갑을 내대며 《이것 보오. 장갑이 이렇게 걸레
조박으로 뒀는데두 규정만 따지겠소? 어찌구저찌구
해두 일하자는 사람에게야 뭐가 아까울게 있단말이
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공급원은 불이 부어 투덜
거리면서도 장갑을 내주었다. 조현철은 코마루가 쟁
한듯 물거머금은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는 무
릎우에 새 장갑을 놓고 한 참이나 어루쓸었다.

달무리진 그날밤에 한석빈은 그를 데리고 집에 와
서 맥주고뿌도 함께 기울이었다. 조현철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갱장을 원망하였다.

《사람들이 엄갱장을 보구 뵈라는지 알아요? <아
카시야막대기>라고 합니다. 어찌면 감정이 그리두
돌덩이같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사랑 모르구 막장에서 뼈를 굶
힌 사람이어서 그런다질 않아. 전쟁판에두 뛰어들었
으니 성격이 모가 죽을리 없지.》

《고생을 겪은데로 겪은 사람이 그리두 인정머리가
없수?》

《했어. 누가 뭐라든 우린 사람들 앞에서 결의다진
대루 250미터끝이나 보자구. 더군다나 동문 기술과
자리두 마다하구 현장으로 나왔는데 한번 큰 소리를
쳐야 할게 아니요.》

엄갱장은 그 다음날 끝내 조현철을 폐석부림장 경
비를 서게 하였다. 한석빈은 수치감으로 숏등걸처럼
꺼매게 뒹을 그의 가슴을 쓸어주기 위해 병원에 가
기로 마음을 먹었다. 학생아이의 부모앞에 그를 내
세우고 찬양의 향기로 찢기고 찢진 그의 기분을 아
물게 하고싶었다. 한석빈은 퇴근길에 오른 길로 갱
상점에 들러 통줄임과 과일들을 사들고 폐석부림장
으로 향하였다. 먼 산마루에 아지랑을 타고 아물아
물 채리는가싶던 봄은 어느새 갱구앞에서두 질어갔
다. 청룡산의 진달래는 솟기를 머금은 처녀의 뺨처
럼 발그레한 망울을 터뜨리며 타는듯한 애무로 숲을
물들이었다. 폐석부림장으로 가던 한석빈은 전차길
한가운데서 문득 엄갱장과 부딪칠듯 마주쳤다.

《어데로 가오?》

엄갱장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구력을 유심히 보다
말고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어찌겠습니까. 나라두 조현철을 데리구 학생아이
부모한테 인사를 시켜야지요.》

《뭐요? 흥. 동문 정말 밥먹구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구만. 동문 그래 기분발립이나 하면서 뺨간약이나
발라주고 봉대를 감아주어서는 먼 후날에까지 그가
웃을수 없다는걸 모르오? 속이 끓았는데 직방 뚫고
들어가서 도려내야지.》

엄갱장은 몽들하게 내뺨고 전차길을 성큼성큼 걸
어넘었다. 한석빈은 아연해 서있었다.

(아. 무지한 인간. 심장에 피가 뛰지 않는 인간!)

가슴속에 분기가 쭉 뻗쳐올랐다. 무시당한 자존심
으로 하여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갑자기 광석차가
들이닥쳤다. 한석빈은 와들뜰 놀라며 침묵우에서 냉

큼 뛰어내렸다. 광차마다에 광석을 들성들성 실은
견차가 찬바람을 일쿠며 지나갔다. 조현철은 청룡산
마루에 걸린 저녁해를 등지고 그린듯 앉아있었다.
그의 발치에서는 겨울잠을 털고 말쑥해진 맑은천이
조잘조잘 흘러내렸다. 한석빈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구력을 툭씩 놓으며 주저앉았다. 조현철은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나 뿌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
다. 그 순간에 한석빈은 그의 무릎우에 놓인 장갑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멍이 다닥다닥 뚫어진 천 장갑
이었다.

《무슨 일을 했기에오!》

《하는 일이 없이 새 장갑을 받았다고 바꿔갖어
요.》

《누가?!》

《갱장동지가요.》

한석빈은 억이 막혔다.

《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구있는데 배고든 고생
을 못했다고 하면서 기워쓰라구...》

《기워쓰라- 허허참.》

한석빈은 허구프게 웃어버렸다. 저녁해가 청룡산
너머로 꼴깍 넘어갔다. 맑은천가를 따라 뻗은 철길
로 러객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한석빈은
차안의 길손들을 묵묵히 바라보다 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제기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여, 현철이. 동무
의 바람조절기를 당장 도입해야 하겠소. 이러다간
250미터는 고사하구 100미터두 밀지 못하겠소.》

한석빈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퇴근길에 오른 저녁
교대광부들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울려왔다. 이때쯤
이면 새벽두시가 넘는다. 한석빈은 손목시계를 보고
나서 창문을 열어 췌었다. 갱구에서 쏟아나오는 간
데라불빛이 《출렁다리》를 넘어오고 집오래 골목
골목으로 흩어져갔다. 한석빈은 창문을 닫고 침대우
에 다시 누워 잠을 청하였다.

4

밤새 잠을 설친 한석빈은 설계도면을 안고 흐리터
분한 기분으로 공업시험소를 찾아갔다. 이마가 훌렁
벗어진 공업시험소 소장이 《승강기식물리굴뚝기대
차》 창안자라고 하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스무살을 갓 넘겼을 그 애송이 청년이 창
안자라는 소리에 한석빈은 크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
어섰다. 그 순간 한석빈은 또하나의 새로운 환각에
사로잡혔다. 후리후리한 키며 경사지게 미끄러진 흰
칠한 이마, 굵고 진한 눈썹이며 크고 쌍가풀진 검은
눈은 분명 23년전의 조현철의 얼굴모습이었다.

《동무가 조영민동무요?》

《예.》

《혹시 조현철의?!》

시험소 소장이 웃으며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이었
다.

《글쎄, 어쩐지 첫눈에 조현철이와 비슷하다 했지.

하하하.》

청년은 큰눈을 습벅이며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이리 오라구, 내가 아버지의 옛소대장이야.》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석빈은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쥘며 정겨운 눈매로 이윽히 바라보았다.

《동무가 이렇게 자란걸 보니 우리가 늙긴 늙었구만. 영? 하하하. 자, 여기 앉게.》

한석빈은 그를 이끌어 옆의자에 앉혔다.

《그래 아버지진 건강하겠지?》

《예.》

《내 오늘저녁엔 너희집에 가서 만나들 보겠다. 23년전에 네 아버지가 장가들려 집에 간 다음 난 학교에 가게 되어서 네 어머니도 못봤구나.》

조현철의 아들은 히죽 웃었다. 그 웃는 인상도 어쩔 아버지와 판을 짝은듯 같을가.

《그래 아버지진 몇시쯤이면 들어오시냐?》

《아버진 오늘아침차로 출장 가셨습시다.》

《출장가다니?! 어데로?》

《도에 회의 가신다던데 어제저녁에 온 편지를 보고 부랴부랴 아침차로 떠났습시다. 그전에 갱장을 하시던 엄광국이라는분을 아십니까?》

《알구말구.》

《그분의 아들이 오늘 장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사를 제쳐놓고 떠났습시다. 아버지 늘 그분을 잊지 못했하였답니다.》

《뭐라구?!》

한석빈은 눈을 번쩍 뜨며 놀랐다.

(이교장을 거의나 함께 떠난 그가 조현철의 기억속에 살아있단말인가?)

한석빈은 가볍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나는 왜 조현철의 기억속에 남아있지 못하였는가. 조현철은 어찌하여 가까이 찾아온 사람을 몰라 보면서도 수천리 먼곳에 있는 그를 찾아갔는가?)

한석빈은 이런 의문과 함께 마음속에 오래동안 묻어두었던 다른 하나의 피로움이 진하게 배여올라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프리었다.

(그럼 그것이 세월이 흐른뒤 그의 기억속에서 나를 밀어버리게 했던말인가?)

...한석빈은 드디어 조현철의 바람조절기를 받아들였다. 바람조절기도입의 효과는 대번에 나타났다. 천공시간이 부쩍 당겨지고 한 교대에 2회발과를 벌릴수 있게 되었다. 소대원들의 흐려가던 기분은 비운뒤 개인날처럼 활짝 개였다. 막장에서나 인차에서나 침침에서 그 2회발과이야기로 차고넘쳤다. 갯 속 보원은 대문짝만한 속보를 썼다. 그러나 엄갱장은 그 속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뱉었다.

《그 동문 3회발과를 할수 있었소.》

그 한마디가 발을 여러개씩 달고 집집의 처마밑으

로 날아들었다. 조현철의 이름은 찬사와 존경의 다발속에서 쫓겨났으며 수없는 의혹속에 묻히게 되었다. 한석빈은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저 생억지를 쓴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굴뚝같이 뻗쳐올랐다. 청년갱에서 일하던 조현철이가 소대에 갓 와서 하루계획을 수행 못했을 때 일이 생각 났다. 그때 조현철은 불리한 작업조건으로 하여 교대시간이 다 되도록 착암구멍을 계획대로 다 뚫지 못하였다. 교대성원들은 그냥 다음교대에 인계 하자고 하였으나 그것은 수치라고 하면서 현철은 화약을 장약하고 발파소리를 울렸다. 그날 작업인계를 받으면서 한석빈은 그를 호되게 추궁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엄갱장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띄우며 현철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발파소리를 냈단말이지. 괜찮소. 그 소리를 못듣고서야 잠을 청할수 없지. 앞으로는 웅근 소리를 놓치지 마오.》

그런 엄갱장이 지금은 두번발파소리를 두고 시비질을 하고있다. 한석빈은 얼굴을 찡그리었다. 그는 입이 쓰거워 가타부타 말없이 모든 교대들에서 바람조절기를 도입할것을 지령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엄갱장이 바람조절기를 앗아간 뒤였다. 뒤미처 그는 갱장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석빈은 언짢은 마음으로 갱장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사무실에 없었다. 되돌아나온 한석빈은 현관층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막장에서 금방 나오는 차림새인 엄갱장은 구새먹은 아카시아 나무앞에 서있었다. 때늦게야 뽕죽뽕죽 잎을 내밀기 시작한 아카시아나무 아래 긴의자에 현철이가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간데라는 왜 땅에 놓고있소?》

조현철은 천천히 머리를 쳐들고 그를 물끄림히 바라보았다. 엄갱장은 그의 간데라를 주어들고 《이 간데라가 아직 동무 몸에 붙지 못한걸 보니 막장년 한은 있어두 마음은 광석발에 습새들지 못한것 같소.》라고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조현철은 아무 대꾸도 없이 간데라를 받아 어깨에 메었다.

《왜 오른쪽에 메오? 왼쪽어깨에 메시오.》

독한 성미에 비하면 잔소리 많기가 그지없는 피벽한 엄광국이었다.

《젠장, 간데라야 아무렇게나 메면 될합니까?》

조현철은 불이 부어 투덜거렸다.

《아무렇게나 메다니?! 간데라는 왼쪽어깨아래 심장우에 늘 놓여있어야 하오. 어째서인가 하면 간데라불은 단순한 가스불이 아니라 우리 광부들의 심장의 불이기때문이요.》

《예?!》

조현철은 쾅해진 눈으로 엄갱장을 바라보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갱장은 간데라를 그의 왼쪽어깨에 다시 메워주고나서 사무실로 향했다....

세월이 흐른뒤 지금 그자리에 한석빈이가 앉아 있다. 혁신갱사무실의 웃춤 종합지령대에서는 막장사

람들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지령원의 목선 소리가 울려오고 아래층에서는 아리잡직하게 생긴 처녀가 창문턱에 놓인 은방울꽃 화분에 불을 주고있다. 한석빈은 연당어리처럼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그 처녀를 망연히 바라보고있었다.

《저, 연구사선생님, 저의 창안에 대한 방조는 며칠 후로 미루어줄수 없습니까?》

한석빈은 생각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눈으로 현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조현철의 아들은 한석빈의 추억을 방해할가봐 조심하는듯 의자한끝에 서서 아카시아꽃송이를 주룩 훑고있었다.

《건 왜?》

《사실 그 창안도면을 연구소에 올려보낸 다음에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경제적인의를 배로 크게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면서 추궁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뭐라구?!》

《공명심이 있다고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저의 충성심이 순결하지 못하다고 된육을 하였습니다.》

조현철의 아들은 열적게 웃으며 뒤더수기를 문질렀다.

《허허 ...》

한석빈은 허파에 바람차는 소리같은 허구픈 웃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제끼고 아카시아나무우듬지를 쳐다보았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진한 꽃향기가 폐부에 숨새어들었다. 이른 봄철에 미처 못 느끼였던 그런 진한 향기의 진미가 가슴 몽글하게 젖어온다.

...그날은 휴식날이었다. 희읍스름히 갈라지는 하늘에서 잔별들이 꿈벅이던 그날 새벽, 연회색작업복을 산뜻하게 입은 한석빈은 량손에 맥주병보따리를 무겁게 들고 갱입구로 가고있었다. 세차게 불길을 내뿜는 간데라가 그의 가슴우에서 흔들거렸다. 엿저녁에 한석빈은 소대원들에게 막장을 더 타고않자는 제의를 하고 휴식일 새벽부터 냅다 조겨보자고 부추겼다. 소대원들은 대뜸 일욕심이 부풀어 환성을 질렀다. 이제 소대장이 《후방물자》까지 안고 들어서면 입귀가 찌지게 좋아할 모습이 눈에 선하여 절로 웃음집이 흐물거렸다. 갱입구에 다달오자 난장의 찬대기와 갱안의 더운 공기가 부딪쳐 녹녹하고 서늘해진 바람이 얼굴에 확 끼었다. 갱도 한켠으로 흘러나오는 도량물에서 피어오르는 희뿌연 물김이 갱도안에 자욱히 떠있었다. 마치 한증탕에 들어서는 기분을 느끼며 걷는 한석빈의 마음은 구름처럼 둥둥 떠다. 스물닷새동안에 250미터의 고속도굴진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공화국의 새기록이었다. 그 기록을 쟁취하고 받아안게 될 영예와 환희로 가슴이 벅차 그는 어떻게 굴길을 걸어가고있는지 몰랐다. 작업장 입구에 닿은 그는 무르춤해서 한자리에 굳어졌다. 우죽비죽한 갱벽의 여기저기에 간데라가 데롱데롱 매달려있고 그 아래에 소대원들이 빙 둘러앉았다.

《장아바이 생각에는 풍금의 바람조절원리를 리용하자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석십한 목소리의 임자는 엄갱장이었다. 한석빈은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도 왜서인지 전신에 맥이 다 풀려나가는듯 아래도리가 매시시하였다.

《예, 될것 같습다.》

《그렇습니까? 가만, 거기 서있는게 누구요?》

한석빈은 저도 모르게 간데라불빛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다 말고 앞으로 스택스적 걸어나갔다.

《소대장동무요? 마침 잘 왔소. 이 동무들이 조절기혁신안을 여러가지로 내놓았소.》

한석빈은 그제야 그가 소대원들의 집체적지혜를 모으고 있다는것을 알고 속이 뜨끔하였다.

《조동무, 바람압력을 한 서너기압 더 올릴수 있겠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현철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대답하였다.

《됐소. 그럼 인차시간두 다 됐는데 나가보지요.》

엄갱장은 간데다불종대에 붙은 불뿔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석빈은 난처하였다.

《저, 갱장동무, 우린 오늘부터 두개막장을 더 타고 않으려고 합니다. 로력이 좀 긴장하지만 모두들 두세몫을 감당할 잡도리입니다.》

몇몇 청년들이 기세를 합쳤다.

《해낼수 있습니다. 갱장동지!》

엄갱장은 전혀 뜻밖이라는듯 한석빈을 멍하니 쳐다만 보았다.

《그래서 전교대가 다 남아있었소?》

《예.》

엄갱장의 낯색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 막장에서 졸끔, 저 막장에서 졸끔 그래서 굴진수차 250메터나 채우자고 한단말이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도닐 던 엄갱장은 불현듯 우뚝 멈춰서며 얼굴을 쳐들었다.

《동무가 이런 생각을 해냈소?》

《예...》

순간 엄갱장의 눈에 불찌가 이는것 같았다.

《동무는 언제부터 아지를 지는 법을 배웠소? 당에서 한 마구리에서 250메터굴진을 해서 광맥을 찾으라는 지령밖에 준 일이 없소. 당에서 하나를 통해 백을 만들라면 백을 만들어야지 어째서 그 백을 두세개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거요?》

《어? 말해보시오.》

엄갱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흥분으로 떨고있었다. 한석빈은 처음 한동안 얼떨떨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차 소대원들의 눈길에 자기한테 집중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슴팍을 찢려고 애를 썼다.

《동무는 지금 나라에 귀중한 광석보다 자기한테 필요한 명예를 위해서 소대원들을 어데로 이끌어 가는지 알기나 하오? 무섭소. 사람들의 주위를 빙빙 돌더니 이제 당정책앞에서두 요술을 부리려고 하다니! 보시오. 남에게 심장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당정책 관철에서두 진심을 쏟지 않는단말이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석수가 두렵고 암벽이 굳어서 이러는줄 압니까? 그래서 모두가 사기를 잃은

것 같습니까? 사람을 모르는 갱장동무때문에 손맥을 놓고있단말입니다.》

《뭐라구?!》

《세상에 수혈하구 귀뺨맞는 일이 어데 있습니까? 한켄레의 장갑이 그리두 아깝습니까? 바람조절기가 어쨌단말입니까?... 그래두 뭐 25일까지 광맥을 찾으라구요?...》

엄갱장은 억이 막힌듯 한석빈을 멍하니 쳐다만 보았다. 갑자기 그의 불편이 부들부들 뛰고 눈에서 번쩍 불이 일었다. 그는 한석빈의 뼈를 꺾어버릴듯 투박투박 앞으로 다가왔다. 문득 그의 걸음이 멈춰졌다. 그의 눈빛은 금시 한석빈의 얼굴을 태워버릴듯 이글거렸다. 엄갱장은 입을 짝 다문채 불쑥 돌아섰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걸음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소대원들은 꺼질듯 무거운 침묵속에서 갱도를 떠나가는 엄갱장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

5

그날저녁이었다. 한석빈은 엄갱장에게 불리워 가서 호된 추궁을 받았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 그들은 마당으로 나와 합숙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청룡산마루에 방금 떠오른 달이 어성버성한 그들의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주고있었다. 합숙마당으로 지나치던 엄갱장은 문득 한자리에 멈춰섰다. 불밝은 한 호실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던 그는 한석빈의 팔소매를 끌었다.

《잠깐 저기 좀 가가요... 현철이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것 같소.》

엄갱장은 그답지 않게 흥분에 젖어 나직히 말하였다. 한석빈은 그제야 방안에서 설계탁을 마주하고 앉은 조현철을 알아보았다. 그는 시답지 않은 기색으로 엄갱장을 따라 마당 한켄에 있는 나무의자에 가앉았다. 어째서인지 안절부절하던 엄갱장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동문 여기 좀 앉아있소.》

《?!》

엄갱장은 사무실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피피한 정적속에 홀로 남은 한석빈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앞산에서 싱그러운 풀냄새와 꽃향기를 실은 봄바람이 불어와 한석빈의 찌프린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췄었다. 칼바위들이 우죽비죽 치솟아 강물처럼 좁게 보이는 검푸른 하늘에 별들이 오구구 모여 웃고있었다. 밤하늘을 쳐다보는 한석빈의 귀전에 엄갱장의 석싹한 말소리가 지긋게 맴돌았다.

《동무는 어째서 바람조절기를 받아들였소? 생산을 위해서요. 아니면 그의 성장을 위해서요?... 동무는 그 바람조절기의 최대한 능력을 계산해보았소?... 이것보요. 소대장동무, 우리 일꾼들이란 광부들을 단순히 생산과제 수행으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린 그들모두가 조국을 받들어나가도록 심장을 키워주는 책임을 지고있소. 그런데 동문 순간순간 간감정을 풀어 비위나 맞추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광부들이 동무나 내가 시킨다고 해서 일하고 안하는줄 아오?...》

한석빈은 그의 말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다. 변명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굽히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엄갱장의 목소리는 막을수 없는 힘을 안고 혹독하게 울려왔다.

《동무도 말로는 조국에 심장을 바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적화구나 막구 그 어떤 큰 공적을 세우는 데서만 나타나는줄 아오? 총포탄이 튀지 않는 오늘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주는게 바로 조국에 심장을 바치는거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동무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소? 값죽은 인정이요? 웃음발린 얼굴이요?》

한석빈은 불덩이를 삼킨듯 속이 타들었다. 입안이 말라들어 마른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현철을 바라보는 한석빈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옥치밀어올랐다. 어쩐지 죄스러운 감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듯하였다. 당장 마음을 터쳐놓고 빌고도싶었다. 한석빈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려 소대휴게실로 갔다. 철함에서 맥주병을 꺼내든 그는 그것으로라도 자기의 아픈 가슴을 달래고 싶었다. 아니 이밤을 창안으로 밝히는 현철에게 부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맥주병을 들고 휴게실을 나섰다. 그가 합숙마당에 이르니 어스름 한 달빛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엄갱장이었다. 엄갱장은 석빈이가 다가오자 펼쳐들었던 도면을 둘둘 말아 곁에 놓으며 빙그대 웃었다. 그의 눈에서는 캄캄한 막장에서 불죽은 간데라를 들고 헤덤비다가 사람을 만났을때의 그런 기쁨이 넘치고있었다. 어느 호실에선가 유연한 기타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석빈은 엄갱장이 무슨 도면인가를 가지러 갔다가 왔다는것을 짐작하면서 그의 곁에 말없이 가앉았다. 한석빈의 손에 쥐여있는 맥주병을 알아본 엄갱장은 반색하여 어쩔줄 몰라하며 웨치듯 말하였다.

《그것참 좋은 생각을 했구만. 엉? 허허.》

그의 만족한 웃음에 한석빈은 웅뿃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듯하였다. 엄갱장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띄운채로 담배를 꺼내 피우며 조현철을 이윽히 지켜보았다.

《남에게 진정을 쏟는다는게 사실 힘든 일이야. 술한 뒤욕을 각오해야 하지. ...가슴아픈 순간을 이길 줄도 알아야 하구. ...이걸 겁내는 사람은 진정을 쏟지 못하거던.》

현철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은채 엄갱장은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리다 말고 담배연기를 폐부깊숙이 빨아들었다. 그때 현철이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지 않았더라면 한석빈은 울음을 왈각 터뜨릴번하였다.

《갱장동지!》

엄갱장을 알아본 조현철은 한동안 멍하니 지켜보다 말고 목이 킁 막힌 소리로 불렀다.

《성공입니다. 3회발과는 문제 없어요.》

《엉?!》

엄갱장은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조현철은 도면을 와락 걷어가지고 창문을 훌쩍 뛰어 넘어왔다.

《저런! 신을, 신발을 신으라구.》

그러나말거나 현철은 안길듯 달려왔다.

《이걸 보십시오.》

도면을 내미는 현철의 눈에 성공의 희열이 한껏 타올랐다. 엄갱장은 도면을 덮치듯 와락 앗아들었다. 그는 갈등에 쓰러진 사람이 물을 마시듯 도면을 걸 탐스레 훑어보았다.

《아!》

갑자기 엄갱장은 도면을 천채 스프르 맥을 놓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둥그스름한 얼굴에 피기가 가져진듯 새하얗게 질려갔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예!!》

한석빈은 다급히 그의 몸을 안아흔들었다. 조금 후에 그는 애써 웃음을 띄우며 한석빈에게 도면을 넘겨주었다. 한석빈은 눈앞이 뿌연게 흐려와서 도면을 볼수가 없었다. 엄갱장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놓은 도면말이를 끄당겨 석빈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 펼쳐보던 한석빈은 갑자기 《아!》 하고 외마디소리를 내며 쓰러질듯 비척거렸다. 두장의 도면은 꼭같은것이었던것이다.

(그럼 엄갱장이 이미 도면을 완성했단 말인가?!)

한석빈은 경탄의 눈으로 엄갱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현철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주고있었다. 늘 엄해보이던 그의 눈가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정다운 미소가 함뿍 피어있었다. 그 웃는 얼굴에 열기설기 엉킨 주름살을 보니 그가 갑자기 10년을 당겨 늙은듯 싶어 한석빈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루룩 쏟았다. 엄갱장에게 두손을 맡긴채 말없이 내려다보는 조현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샘솟듯 흘러 내렸다.

《끝내 넘어섰구만! 영? 현철이! ...너석!...》

《흐흑...헉, 갱장동지! 흐흑...》

조현철은 씹어삼키던 울음을 왕 터뜨리며 풀석 주저앉더니 엄갱장의 무릎우에 얼굴을 파묻었다. 엄갱장은 물기가 핑 어린 눈을 습벅이며 흐느끼는 현철의 잔등을 오래오래 쓰다듬어주었다...

지금 한석빈은 조현철의 집에 파서 눈에 익은 엄광국의 글씨를 더듬고있다. 편지를 읽은 한석빈의 눈에 눈물이 자꾸 맺혀와 벌써 몇번째나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편지글줄을 더듬으며 다시 뜯어보곤하였다.

...현철갱장, 갱장이 23년전에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진 한 학생을 구원했던 일을 기억하고있는지. 그 학생애가 바로 내 아들일세. 그 애가 오는 일요일에 장가를 가게 되었구려...

한석빈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와들들 놀라며 편지장을 방바닥에 떨구었다.

(엄갱장의 아들이라니?! 그럼 그때 엄갱장이 자기의 아들을 구원해주었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그런 채찍을 휘둘렀단말인가... 아, 그런줄 모르구. 그런줄도 모르고 내 무슨 망동을 부렸단말인가. 어이쿠!)

한석빈은 머리를 싸쥐었다.

엄광국,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인간미와 향기가 없는 《아카시아나무대기》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

는 아카시아나무같은 사람이었다. 봄벌속에서도 거무튀튀하게 서있던 그 가지돌힌 아카시아나무, 그러나 그것만을 련상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었다. 그는 온갖 꽃들이 피여 사라지는 그때, 강렬한 뜨거움을 안고 비로소 피어나 봄의 마감을 장식하면서 만발하는 아카시아나무꽃이었다. 그리고 그 꽃과 같이 진한 향기를 뿌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인간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심장의 아름다움, 그런 심장의 사랑을 간직한 인간이기때문에 그의 인간미와 향기는 그리도 진하게 오랜 여운을 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것이였다. 한석빈은 가슴속에서 해토무렵의 봄물처럼 왁칼 넘쳐나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며 엄광국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23년전의 그의 목소리, 그의 모습이 하늘처럼 가득 하게 눈앞에 안겨왔다.

교대 3회발파를 할수 있게 한 조현철의 바람조절기가 불씨로 되어 소대원들속에서는 술한 기술창안들이 쏟아져나왔다. 막장에서는 억년 잠든 암벽을 두드리며 거대한 폭음이 련속 터져올랐다. 250미터 굴진의 마지막 발파소리였다. 소대원들은 끝없는 환희와 걱정애 어깨를 들먹이며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나무등걸같은 손으로 거미거미한 령을 술술 만지며 조현철을 바라보는 엄갱장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언즈러이 피여올랐다. 그는 현철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자네 멋뻐하게 한 처녀를 사랑할수 있게 됐네. 그건 자네가 쇠돌허구 먼저 인연을 맺구 <약혼>을 했기때문일세.》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 한석빈의 귀전에 촉촉처럼 터져오르고 그 둥그스름한 얼굴의 미소가 푸른 하늘의 흰구름처럼 피여오른다.

엄갱장이 광업성으로 소환된다는 소문이 좌악퍼지던 그무렵, 조현철은 결혼식차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엄갱장은 역에 나오지 못하였다. 렬차에 오른 조현철이가 배웅나온 사람들속에서 그를 그리도 안타깝게 찾던 일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 다. 엄갱장은 그때 폐석부림장우에 우뚝 서있었다. 초저녁의 희미한 어둠속에 서있는 그의 왼쪽가슴우에서 간데라불빛이 별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이윽하여 그 불빛은 승강대에 선 조현철을 향해 일을 그리며 돌아갔다. 현철은 쏟아지는 눈물을 감쌀듯 웃음절반 울음절반인 얼굴로 정신없이 손을 흔들었다. 한석빈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지막으로 본 불빛이였다.

그러나 그 불빛은 지금 한석빈의 물기머금은 눈엔 도 강렬하게 반사되어 번쩍이였다. 한석빈은 현철의 아들에게 도면을 넘겨준채 한마디의 의견도 없이 집을 나섰다. 무슨 의견을 줄수 있겠는가!

청룡산뒤 하늘가에서 먼 우뢰가 울려왔다. 렬차승강대에 오른 한석빈은 갹구앞에 변함없이 서있는 아카시아나무에 눈길을 주었다. 그는 일생말년에 와서 못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것은 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그 인간의 심장이라는것을 뼈저리게 뉘우쳤다.

한석빈은 평범한 나날속에서 어떻게 사는 인간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는가를 물랐었다.

남들에게 외교적으로 사는 인간, 순간순간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며 또 일을 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공로는 직위로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인간의 순간적향기는 얼마나 매혹적이었던가. 그러나 그 향기가 가지고있는 시간적진폭은 과연 얼마나 길었던가. 한석빈은 점차 일생의 자책으로 가슴속에 남은 23년전 그 한달동안의 자기로 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감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조현철이라는 거목에 가는 뿌리 하나 주지 못하였고

어느 한가닥의 가는 뿌리를 통해서라도 피 한방울, 마음 한끝도 주지 못한 자기를 어찌 기억하고있으랴! 남에게 심장을 바치지 않고 결발림으로 사는 인간을 사람들은 소중한 기억속에 두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한석빈은 후회와 자책속에서 찾은 새로운 진리로 가슴가득 채우며 오래동안 구새먹은 아카시아나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훈훈한 초여름바람이 아카시아꽃향기를 진하디진하게 풍겨주었다.

산촌의 종소리

김 명 심

산촌의 고요를 흔들며
울려오는 종소리
내 고향
정든 교정의 종소리런듯
그날처럼 걸음도 가벼이
산발을 내리니

아, 푸르른 밀림속에
포근히도 안긴 룡양소

언제나 반겨주던 너선생처럼
맑은 위생복의 간호원
다정히 종을 치며
사람들을 약수터로 부르거니

뜨겁게 목메이는 이 마음
울려오는 이 가슴

새들도 깃들지 못하던
이 거칠은 심산을
머루 다래 주렁진
행복의 동산으로 가꾸어

봄이면 꽃속에
가을이면 단풍속에
정든 고향집이런듯
정가로운 룡양소 세워주시고도

약수를 안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던가
시간을 따라가며
약수시간 알리는

정다운 종소리여

새들도 그 정겨운 소리에 모여오는가
아, 은혜로운 햇빛속에
마련되고 가꾸어진
이 동산 이 종소리 들으며
인민의 건강은 날로 피어나거니

보는이마다
량불이 붉은 선녀들인듯
만나는이마다 새 힘이 솟는 청춘들인듯

넘치는 약수 두손에 안고
기쁨 어려 즐기는
료양생들을 바라보니

피어나고 피어나는 이 땅의 천만송이런듯
가슴은 한없이 후덥고
마음은 뜨겁게 어려와

산기슭을 적시는
한가닥 내물소리에도
뜨거운 생각은 깊어만 가는데

울려와라
산촌을 울리며
더 높은 사랑으로 부르는
행복의 종소리 종소리

아, 음향마저 가슴에 안고픈
은혜로운 사랑의 메아리여

새 일터

김정남

1

함박눈은 소리없이 땅위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불빛이 환한 항구내로 들어선 정인범은 방파제를 따라 걸음을 옮기었다. 저멀리 가덕도쪽에 하얀 눈을 쓰고 누워있는 벨트콘베아가 바라보인다. 벨트콘베아가 흘러간 중계창고철도인입선쪽에서는 《새별》기관차가 련결차량을 끌어당기느라고 목갈린 기적소리를 울리고있다. 부두에는 트랙포트들과 지게차들이 붐비고 돌아가는데 항만기중기가 물어올린 세멘트목고(깎판우에 짐을 짜놓은것)가 무역선창구로 등등 떠가고있다. 무역선은 정인범이 3화수승연구소로 출장을 떠나던 날 부두에 낸 《순천》호였다.

흰눈을 쓰고 조용히 누워있는 벨트콘베아, 아직도 부두에 붙어있는 《순천》호, 기중기걸을 맴돌고 있는 지게차들과 트랙포트들, 정인범의 뇌리에는 화물 통과량을 높이려고 사령실지령교환대앞을 떠나지 못하고있을 대장(직장장) 박병태의 얼굴이 떠올랐다.

(벨트콘베아를 종내 살리지 못했는가?…)

정인범은 착잡한 마음을 누르며 대사무실 복도로 들어섰다. 손가방을 놓고 어깨우의 눈을 털던 정인범은 복도를 찌렁찌렁 울리는 박병태의 목소리에 눈이 등그래졌다.

《…도대체 동문 대장의 지시를 어떻게 아는가말이요? 벨트콘베아운전공들을 짐부리는 작업에 돌리라고 했는데 왕청같은데다 로력을 붙였다가 사고를 쳤는데 그래도 할말이 있소?》

《왕청같은데라고요?》

《왕청같은데가 아니면 뭐요? 벨트콘베아에서 말썽은 그 상선기가 아니요?》

《대장동무, 상선기에만 결함이 있다고 확정되지 않은 이상 벨트구간을 정비한것이 잘못이란말입니까?》

《동무와 상선기를 설계한 그 너기사와의 관계를 모를줄 아오? 상선기를 설계한 너기사는 현장에 얼씬도 하지 않는데 동문 상선기가 아니라 벨트구간을 정비했으니…》

《대장동문 그럼 내가 마음에 든 그 처녀를 감싸주자고 벨트콘베아 구간을 정비했다는겁니까? 이 오철수가 그런 인간으로 보입니까? 대장동문 오늘 사고를 친 벨트콘베아운전공이 왜 지게차운전을 배우자고 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장의 말을 맞받아치는 벨트콘베아 중대장 오철수의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정인범을 못박아세웠다.

《뭐요? 동문 그래 사고를 친 운전공을 두둔하는

거요?》

박병태의 노기를 띤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운전공들은 짐부리기를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걸 대장동문 벌써부터 알았어야 합니다.》

《누가 짐부리기를 좋아서 하오? 짐부리기가 싫거든 다 가란말이요.》

《가라면 누가 겁낼것 같습니까.》

대장과 중대장간에 오가는 상서롭지 못한 언쟁은 좀처럼 끝날것 같지 않았다. 사무실앞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엿듣다가 복도에 서있는 소조원을 보고는 걸음을 뺐다. 가슴을 조이며 망설이고 있던 정인범은 문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손기척을 울리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전화기를 두손으로 움켜쥔 박병태가 눈을 지릅뜨고 응접탁앞에 서있는 중대장 오철수를 쏘아보고있었다. 대장의 시선에서 풀려나온 오철수의 얼굴은 한순간 어쭙은 표정이 어리다 미간이 찌프러지며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가라면 가지요.》

오철수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종이장을 박병태앞으로 밀어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중대장동무!》

정인범의 목소리는 오철수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소조원동무, 내버려두시오. 걸핏하면 저런다니까요.》

오철수가 사라진 문을 쏘아보던 박병태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물었다. 무거운 공기가 서린 방안에는 박병태의 너부죽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담배연기가 떠돌았다. 정인범은 오철수가 밖으로 나가면서 쥐여뿌린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안전기술과에서 발급한, 사고를 친 운전공에게 10일간의 안전교양을 받게하라는 통지서였다. 확인란에는 휘갈려쓴 중대장 오철수의 수표가 있었다.

《소조원동무, 이게 야단이 아니요.》

박병태는 후 한숨을 내쉬며 주먹으로 이마를 짚었다.

《난들 벨트콘베아를 왜 돌리고싶지 않겠소. 화물 통과량에 목이 뗏는데 돌아가지도 않는 벨트콘베아에 운전공들을 붙여놓고 빈들빈들 놀릴수야 없지 않소.》

《벨트콘베아를 세운지 오래 됐습니까?》

박병태는 대꾸를 하지 않고 생산지령서 묶음을 소조원앞에 내놓았다. 정인범은 교대별 생산지령서를 훑어보았다.

벨트콘베아에 의한 화물상선작업이 중단된것은

정인범이 출장을 떠난 그 다음날 낮교대부터였었다.

《콘베아 상선기가 또 고장입니까?》

정인범은 생산지령서목록을 밀어 놓으며 물었다.

《상선기인지 <코끼리코>인지 그게 또… 그래서 운전공들을 짐부리기에 돌리라고 했는데 벨트콘베아를 정비한답시고…》

대장이 성을 낼만도 했다. 운전공들을 짐부리기에 돌리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오철수중대장은 기대정비를 위해 몇명의 운전공들을 남겨놓았었다. 그랬었는데 한 운전공이 점심시간에 지게차 운전수가 세워놓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항만기중기를 받아놓았다. 지게차는 수리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천만다행으로 기중기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곧바로 밀고들어갔더라면 지게차도 운전공도 바다물에 곧부닥힐 뻔했다.

정인범은 눈귀를 쏘프리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자, 담배라도 태우오.》

대장이 침묵을 깨뜨리며 담배갑을 정인범이앞으로 밀어놓았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참 그랬던가? 담배란 유해로운것이라고 하지만 속이 탈 때에는 이거라도 피워야지.》

대장은 새 담배가치를 이어서 또 피워물었다.

소조원은 미소를 짓고 대장을 쳐다보다가 화제를 돌렸다.

《대장동지, 생산지령서를 보니까 <순천>호를 레일이면 뿔수 있을것 같구만요.》

《그래서 오금에 불이 일도록 뛰여다니며 총사령한테 빌붙어 지게차를 끌어왔는데 한쪽에선 왕청 같이 사고를 쳐놓고 대장을 코펜 망아지처럼 끌려 다니게 하니… 오철수, 그 친구 별뚱시가 사나와가지구 점점 엇서기만 한단말이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벨트콘베아에 온후부터 사람이 달라졌단말이요. 지금은 지게차도 성차하지 않으니 원…》

《콘베아 능률이야 지게차에 대겠습니까.》

《하지만 콘베아가 제대로 돌아가야말이지. 그 보다는 그 친구가 <코끼리코> 기사하고 사이가 버그저진후부터 나한테 원망을 품었소. 내가 <코끼리코> 기사에게 책임을 넘겨씩우고 벨트콘베아를 돌리지 않자고 하는가 한단말이요. 오늘 일만 봐도 그렇단말이요. 결국은 상선기때문에 벨트콘베아가 말썽인데 왕청같은 벨트구간을 정비한다고 로력을 불었다가 사고를 치지 않았소. 그러고도 할말은 있다고 뽀개질이 아니요. 오철수가 나한테 뽀개질을 한것도 결국은 그 <코끼리코>기사때문이요.》

《<코끼리코>기사란 누구입니까?》

《상선기를 설계한 기술파의 강수옥이란 처녀기사가 있지 않소.》

《대장동지, 상선기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코끼리코>라고 합니까?》

《소조원동무도 보았겠지만 상선기가 신통히도 코끼리코처럼 생기지 않았소.》

정인범은 대장이 가슴속에 품고있는것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 고마웠다.

생활에서는 누구나 언쟁을 하고난후 비록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모욕당한 자존심과 피로움을 털어놓게 되는것이다. 대장도 그런 사람이였다.

《중대장동무가 강수옥기사를 사랑했는가요?》

《세성에다 대고 선포를 안했으니 그렇다고 말할수 없으나 아무튼 서로 좋아했던것만은 사실이요. 그런데 그 <코끼리코>가 말썽을 부리자 너기사는 말길을 끊었던말이요. 소조원동무, 내 오늘밤 화집에 이런 말을 하는데 새겨듣고 어디가서 읊기지는 말아주오. 직장에 오자부터 벨트콘베아를 살려 보겠다고 3화수송연구소에 다녀온 소조원동무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어리석은지 모르겠소.》

정인범은 대장의 얼굴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정인범은 울퉁 치밀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말마디에 힘을 넣어 말을 했다.

《제 생각엔 벨트콘베아를 빨리 살리려면 항만기중기를 끌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항만기중기를 끌어 내겠다고요? 소조원동무는 항만기중기가 있어서 벨트콘베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게 아니요?》

《항만기중기가 있으니 벨트콘베아를 고쳐서 쓸 생각을 안하고있지 않습니까?》

《벨트콘베아가 고장없이 잘만 돌아가면야 누가 항만기중기를 쓰겠다고 하겠소. 하지만 벨트콘베아때문에 미달한 계획을 하자니 별수 있소? 그 기중기는 우리 대의 생명선이요.》

박병태는 술진 눈섭을 치뜨고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대장동지, 통지서에 수표를 해야지요.》

사업노트를 끼고 밖으로 나가려던 박병태는 찌프린 얼굴로 안전교양통지서에 수표를 하면서 물얼거렸다.

《흥! 열흘씩이나? 문제로군…》

2

정인범은 오철수를 찾아 함숙으로 갔다. 정인범이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오철수는 항구쪽으로 난 창문을 마주하고 앉아 기타를 타고있었다. 침대와 책상, 원탁 등이 규모있게 놓여있는 방안에서 정인범의 시선을 끈것은 책상우에 놓여있는 짐배와 항만기중기 모형이었다. 바다와 무역선, 갈매기를 그린 풍경화가 모형도위에 놓여있었다. 정인범은 바다와 항구를 사랑하는 오철수의 마음을 보는것만 같았다.

감상적인 음조를 울리던 오철수는 무슨 생각이 났

는지 기라신을 내려 훑더니 한숨을 내린다.

《중대장동무!》

오철수는 뜻밖에 나타난 소조원을 보자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직도 대장과의 충돌에서 폭발했던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있는 오철수의 등실한 얼굴은 밝지 못했다. 이 순간 오철수는 소조원이 대장방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까밝히지 못하고 뛰쳐나온 것이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소조원앞에 서있기만 했다.

《자, 손님이 왔는데 서있기만 하면 어찌겠소. 자, 앉읍시다.》

정인범은 빙그레 웃으며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소조원동무도 저를 속으로 욕했겠지요?》

《아까 일을 판결하러 여기에 온것이 아니요. 솔직히 말한다면 중대장동무가 그렇게 물러설줄 몰랐소.》

《내가 물러섰다고요?》

《그래 그 벨트콘베아가 어떻게 건설된건데 그걸 버리고 가겠다는거요?》

《저도 혁신을 하고싶습니다. 내달리고싶단말입니다. 이 오철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겠단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 펄펄 댄다고 될 일이 아니요.》

오철수는 고개를 숙이었다. 오철수를 바라보는 정인범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오철수와는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다는 생각이 정인범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이다. 그는 문앞에 놓았던 가방을 오철수앞에 옮겨놓았다.

《중대장동무, 이 가방에서 무엇이 나올것 같소?》

오철수는 웃음이 비긴 소조원의 얼굴에서 뜨기운 정을 느끼었다. 소조원이 가방에서 꺼내놓은것은 구력에 넣은 사과였다.

《얼음을 뺀 사과인데 별맛이요.》

방안에는 향긋한 사과냄새가 퍼돌았다.

《이렇게 중대장동무를 찾게 될줄 알았더라면 차칸에서 사과를 더 샀을건에...》

《소조원동무, 방금전에 감정을 앞세웠다고 강타를 먹이더니 언 사과로 또 강타를 먹이는군요.》

오철수는 소조원이 맨승맨승한 방안의 분위기를 가지자고 사과를 꺼내 놓았다는것을 그제야 느끼고 있었다. 소조원에게서 후더운 정을 느끼고있는 오철수는 가슴속을 치받치던 피로운 감정이 봄눈처럼 녹아 내리는것 같았다.

《소조원동무, 내 성질이 덜돼먹어서 참지 못하고 나중엔 피로움을 당하곤합니다. 오늘밤 일도 그렇지요. 내가 참았어야 하는건데... 난 대장동무가 그 누구보다 벨트콘베아를 적극 밀고나갈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장동무가 부두대에서 중대장으로 있을 때 제대되어 그에게서 부두일을 배웠습니다. 대

장동무는 우리가 힘겨워할 때마다 앞으로는 이 항구에서 스위치만 누르면서 일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랬던 대장동무가 어찌면 그렇게도...》

《그래서 너기사와도 사이가 버그러졌겠소?》

《소조원동문 벌써 그 이야기를...》

오철수는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며 멧적게 웃었다.

《중대장동무, 사과를 공연히 내놓은줄 아오?》

《그렇다면 언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요.》

오철수는 빙그레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기술과에 강수옥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공업대학을 졸업했지요. 우리는 벨트콘베아를 건설할 때 서로 친했지요. 그때 나는 돌격대장이였습니다. 그 동무가 벨트콘베아상선기를 설계했는데 그 상선기가 코끼리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은 상선기를 <코끼리코>라고 불렀지요. 수옥동무는 처음에 그걸 별로 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상선기가 말썽을 일으키게 되자 대장동무가 현장에 나타난 수옥동무를 보고 <코끼리코> 기사라고 하면서 상선기를 쓸수 없다는 문건을 작성하든가 아니면 쓸수 있게 해놓으라고 했지요. 그런 일이 있는 후 수옥동무는 발길을 끊었지요. 그래서 어느날 밤 시간을 내어 그를 찾아갔지요. 나약한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동정보다 분격이 치밀어올랐습니다. 나는 벨트콘베아가 상선기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과에 불박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동문 벨트콘베아를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내밀겠는가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상선기를 고치지 못하겠으면 아예 발길을 끊으라고 했지요. 아마 가슴이 아팠을겁니다. 돌아와서야 나는 처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한것을 후회했지요.》

정인범은 밤이 깊도록 오철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속에서 나왔다. 함속을 나와 그제야 출장지에서 돌아온것을 보고하기 위해 청사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정인범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사람들의 생활은 한곡으로만 흐르는것이 아니었다. 한줄기 한줄기 제갈래로 흘러가고있는 광물을 하나의 지향속에 대하의 흐름으로 흘러들도록 할수는 없는것인가?...

소조책임자를 만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멎은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도글도글 맴돌이를 하며 빛을 뿌리고있었다. 날씨는 잠풍했다. 정인범은 잠자리에 눕고싶은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함속으로 옮겨지던 발길을 돌려세웠다.

프락또르와 지게차들이 제시간에 일을 할수 있게 하자면 구내의 눈을 쳐야 한다.

사무실에서 말뚝잠을 자고난 정인범은 창문이 푸름푸름해 올 때 눈가래를 들고 중계창고앞마당의 눈

을 치기 시작했다.

중계창고앞마당의 눈을 다 쳐내고 벨트콘베아가 놓인 구내의 눈을 치고있을 때 출근한 로동자들이 눈가래와 비자루를 들고나왔다. 도구가 없는 사람들은 커다란 깔판널쪽랑끝을 바줄에 매어 승벽내기로 눈을 밀고나갔다.

《제기랄것, 눈은 왜 이렇게 세관게 와가지고...》

늦게야 자루가 부러진 눈가래를 얻어들고 나온 대장이 투덜대며 하는 말이었다.

《대장동지,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들지요.》

《그건 소로 발갈이를 하던 때에 하던 소리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럼 가대기도 소로 발갈이를 하던 때에 나온 말이 아닙니까?》

정인범은 빙그레 웃으며 대장을 쳐다보았다.

《하, 이거 공연한 소리를 했다가 소조원동무에게서 면박을 받는군...》

박병태는 면구스러운 모양 히죽이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왈살스럽게 눈가래를 밀어나갔다. 한참동안 눈가래를 짹짹 밀고나가던 박병태는 허리를 펴더니 저쪽에서 눈가래질을 하고있는 허우대가 큰 소대장을 불렀다. 눈가래를 눈더미에 박아놓고 다가오는 소대장의 둥근 이마에서 김이 서려올랐다.

드넓은 구내의 눈을 말끔히 쳐낸 로동자들은 눈가래를 둘러메고 휴게실로 흩어져갔다.

정인범은 사령실로 들어갔다.

《...총사령실!...》

박병태가 지령교환대의 수화기를 들고 총사령실을 찾고있었다.

《도대체 일을 하라는거요? 팔짱을 끼고 놀라는거요? 오늘 <순천>호 상선을 끝내지 못하면 체선(배가 항구에 입항한후 계약된 기일내에 짐을 실어주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을 먹는다는걸 알고있겠는데 지게차를 10대밖에 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대장동무, 지게차나 많이 주면 뭘하오? 대장동무가 지게차에 붙일 상차공 로력을 낳기라도 하겠소?》

지령교환대의 확성기에게 울려나오는 총사령의 목소리가 방안을 드렁드렁 울리었다.

《총사령 벨트콘베아운전공들이 있지 않소?》

《대장동무 그믐밤이구만. 소조에서 벨트콘베아 운전공들을 한명도 떼지 말라고 했소.》

《뭐요? 소조가?...》

대장은 정인범을 흘금 돌아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묻는 눈길이었다. 대장은 소조원이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자 교환대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총사령이 교환대의 코드를 뽑았는지 방안을 울리던 확성기는 침묵을 지키었다. 박병태는 거둬 신호를 올렸으나 응답이 없었다.

(제기랄것, 이거 코코에 문제로군...)

수화기를 털썩 내려놓은 대장은 소조원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물었다.

《소조원동무, 어떻게 된일이요?》

《벨트구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벨트구간을? 오철수동무가 벨트구간을 정비한다고 제마음대로 로력을 떼가지고 일을 벌리다가 사고까지 쳤는데 또 정비한단말이지요?》

《세멘트포대가 파손되는것이 상선기에서만이 아니라 벨트구간에서 파손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선기가 아니라 벨트구간이라구요? 모르겠소. 소조원동무까지...》

대장은 문을 닫고 사라졌다.

3

중계창고 앞마당은 마치나도 돌개바람이라도 인듯했다. 방금 《새별》기관차가 끌어다놓은 화차들의 문을 따고 세멘트포대를 깔판우에 옮겨쌓기가 바쁘게 지게차들은 짐을 떠들고 창고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순천》호는 저녁교대를 앞둔 때에 부두에서 떨어져나갔다.

《뿌웅!-》기적소리로 노을 비낀 항구를 울려놓고 정박장으로 서서히 들어서고있는 《순천》호, 정인범은 생각에 잠기여 방파제우에 서있었다. 이런 순간에는 노을비낀 항구의 정서에 심취되어 설레는 가슴을 마음껏 내맡기고 방파제우를 걸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인범은 생각이 깊었다. 《순천》호가 부두에서 서서히 떨어져나가던 그 순간에 사람들의 얼굴에 어리던 그 미소, 그것은 땀으로 이루어진 미소였다. 그 미소가 정인범에게는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이였다.

박병태가 다가왔다.

《소조원동무, 오늘 수고했소, 하루만 넘겼어도 체선을 먹는건데.》

하루종일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건네는 박병태의 말은 그답지 않게 곱살긋었다.

《저야 뭐 대장동지는 세멘트포대를 두포대씩이나 들어서 깔판에 쌓지 않았나요. 그렇게 힘이 장수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도 이젠 똥았소. 부두대에서 짐부리기를 할 때에는 하루종일 일하고도 저녁에는 오금이 따서 영화관으로 달려가더랬소. 더놓고 말해서 짐부리기는 힘든것이지요.》

박병태는 구멍이 난 가죽장갑을 바다물에 처넣었다. 정인범은 생각깊은 시선으로 물우에서 떠돌다가 기슭으로 밀려나오는 장갑을 바라보았다. 박병태도 그를 마주보았다.

《소조원동무가 장갑을 끼지 않고 일하는걸 목격했을 때 사실은 내 마음도 아팠소.》

정인범은 가슴이 뭉클해올랐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박병태를 쳐다보았다.

박병태에게도 이렇듯 인간의 미가 풍기고 있었던
가식은 생각이 떠올랐다.

《대장동지, 벨트콘베아를 돌립시다. 그러면 우리
도 흥겹게 일할수 있습니다.》

박병태는 묵묵히 갈매기가 날고있는 정박장을 바
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눈길을 돌리며 입을 열
었다.

《소조원동무, 나도 심장을 지닌 인간이요. 터놓고
말해서 오늘아침 운전공들을 소조가 떼지 못하게 했
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좋지 않았소. 벨트콘
베아가 잘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소.》

《대장동지, 3화수송연구소 기술자들도 벨트콘베
아는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벨트콘베아를 설계한 그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소. 그렇다면 벨트콘베아가 저렇게 서있는데
왜 속수무책이랴오? 연구소사람들은 멀리에 있어서
강건너 볼보듯 한다치고 었어지면 코닿을데에 있는
너기사를 보란말이요.》

《대장동지처럼 생각한다면 훌륭한 기술혁신이 나
온다고 해도 생산에 도입하기가 어려울겁니다.》

《아니 그럼 뭐 나때문에 벨트콘베아가 돌아가지
않는단말이요?》

박병태는 슬진 눈섭을 치뜨고 휘둥그래진 눈으로
소조원을 쳐다보았다.

정인범은 터벌터벌 걸어가는 대장을 런던의 정이
담긴 눈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대장동지도 짐부리
기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인범의 눈앞으로는 박병태가 화차에서 세멘트
를 두포대씩이나 들어내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인범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발밑에서 파도가 철
썩이는 방파제밑을 더듬었다.

기슭으로 밀려나와 조개껍질 무지에서 덩굴고있
는 가족장갑이 그의 눈을 아프게 하였다. 박병태의
손에서 언제나 떨어지지 않던 가족장갑이었다.

정인범은 마음이 별로 서글퍼지는것을 느끼었다.
대장도 저 가족장갑처럼 기슭으로 밀려나 쓸모가 없
게 될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멍치끝을 훑어내리는것
이었다...

강수옥기사가 있는 기술과 설계실은 종합청사 맨
웃층에 있었다.

설계대가 놓여있는 넓은 방안에는 그만이 홀로 앞
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정인범은 그와 마주앉았다.

《기사동무, 벨트콘베아를 돌리자고 공무직장 수리
공들과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기대를 정비하고있습
니다. 오철수중대장동무는 밤을 밝혀가며 일하고있
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또 세멘트포대가 파손될겁니

다.》

한순간 불꽃처럼 확 타오르던 처녀의 리치적인 눈
빛은 짙은 음영이 비끼며 눈귀에 알릴듯 말듯 실금
같은 잔주름이 잡히었다. 정인범은 슬그머니 얼굴을
돌리었다.

처녀의 가슴속 상처를 건드려 마음을 괴롭히는것
이 아닌가?

동정과 런던의 감정이 정인범의 가슴을 사로잡았
다. 그러나 정인범의 마음속에서는 사사로운 개인문
제를 초월한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
르고있었다.

(세멘트포대가 파손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면
서도 기사동문 모욕당한 자존심때문에 설계실을 지
키고있었던란말인가? 로동자들이 짐부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단말인가?)

자기 감정을 누르고있는 정인범의 얼굴은 솟불처
럼 뜨거워났다.

《기사동문 세멘트포대가 파손된다는것을 확신하
면서 왜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요?》

처녀는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반문하고
머리를 다소곳 숙이였다.

《상선기를 설계한것은 기사동무가 아닙니까?》

《저예요. 그러나 어떻게 제가 거기로 다시 나가
요?》

《로동자들이 짐부리기를 하고있는데 기사동문 모
욕당한 자존심때문에 한적한 이 설계실앞에서 맴돌
고있어야 한단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거예요.》

《기사동문 그 상선기를 설계할 때에 어떤 명예나
표창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동자들을 위해서 3대기
술혁명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안고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동무는 오늘은 어떻게 살고있습니까? 전
기사동무를 찾아올 때 벨트콘베아를 다시 돌리기 위
해 로동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면 기사동무가 현장
으로 달려나가겠다고 할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톱여물을 썰다가 입을 열
었다.

《소조원동무, 저의 마음은 괴로왔어요.

저는 상선기가 말썽을 일으켰을 때 기술자의 사명
을 상실한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남몰래 몸부림을 쳤
어요. 상선기를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장동
문 쓴의보듯하지. 그러나 저는 괴로움을 참고 상선
기 개작설계를 끝냈어요. 계획에 물린 상선기수채를
스공장에서 제작해올 때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와
서 계획에도 없는것을 스공장에서 해주겠다고 하겠
는지 알수 없어 망설이던중이었어요.》

《개작설계를 했단말이지요? 그런걸 저는 모르고
기사동무를...》

《저도 랑심을 지닌 사람이예요. 노동자들이 짐부리기를 하는걸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어떻게 뒤전에 물러앉을수 있겠어요.》

정인범은 기뻐다. 처녀기사는 대장동무가 생각하고있는것처럼 살고있는것이 아니었다. 불현듯 오철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철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기사동무, 우리 소조가 기사동무를 도울테니 힘을 합쳐봅시다. 아마 오철수중대장동무랑 기사동무가 개작설계를 끝냈다는것을 알면 무척 기뻐할겁니다.》

너기사의 가름한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미소가 피어났다.

정인범은 설계도면말이를 들고 설계실을 나섰다.

항정문으로 들어선 정인범이 수문다리를 건넌을 때 트랙트르와 지게차들이 가덕도쪽으로 꼬리를 물고 달려가고있었다.

(대장동지가 벨트콘베아운전공들을 짐부리기에 붙이자고 저렇게 많은 트랙트르와 지게차를 증강한것이 아닌가?)

정인범은 옆으로 지나가는 지게차에 뛰어올랐다. 저멀리 허공중에 무명필처럼 여러 갈래로 흘러간 벨트콘베아가 눈앞으로 다가들수록 기쁨으로 설레던 정인범의 마음은 파도에 씻기여 먼바다로 흘러 가버린듯 무거웠다.

4

잠풍하던 날씨는 저녁이 되자 수평선에서 파도를 몰아오는 세찬 바람이 눈가루를 날리며 기승을 부리었다.

썰물이 있을 때마다 저 멀리 바다쪽으로 밀려갔다가는 기승을 못잊어서인지 밀려오군하는 얼음장들은 항구의 방파제옆에 얼음산을 이루며 덧쌓이였다.

정인범은 땅거미가 그물그물 지어내리는 방파제를 따라 걷고있었다.

그는 가시돋힌 눈가루가 솜외투 목깃속으로 파고드는것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정인범은 벨트콘베아에 의한 화물상선작업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 이 저녁 가슴을 누르는 중압감에서 헤어나올수 없어 이렇게 홀로 걷고있는것이였다.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박병태대장의 도고한 기상이였다. 상선기수채를 걸쳐 선박의 창구로 떨어저내리는 세멘트포대를 지켜보던 박병태는 오철수중대장에게 기대를 세우라고 지지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사령실을 찾아 기중기로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 했다.

무선전화기를 빼앗기고 창구에 퍼더버리고 앉았던 오철수는 대장결에 다가서며 다시 기대를 돌려보겠다고 하였다.

《벌써 몇번째요? 아득바득해서 겨우 허리를 펴게

했는데 또 벨트콘베아에 매달려 씨름을 하자는거요? 화물통과량에 목이 매여 허덕이게 되면 중대장동무가 책임 지겠소?》

《대장동문 허리를 펴수 있겠지만 우린...》

대장은 오철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돌아서더니 창구사다리로 올라갔다...

대장이 시운전이 실패한데 대하여 조금이나마 아쉬워하는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어도 정인범은 이렇듯 마음이 괴롭지 않았을런지도 몰랐다.

그런 일군이 있다는것이 가슴아팠다.

탑모양 오탁하니 솟은 비발도등대가 있는 방파제까지 걸어온 정인범은 그제야 소조책임자로부터 일이 끝나면 오라고 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던 통계원처녀의 말이 생각났다.

무엇때문일가? 모임날도 아닌데...

소조책임자는 뜻밖에도 차표까지 주면서 밤차로 평양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밖으로 나온 정인범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며 소조책임자의 말이 귀가에서 맴돌았다.

《...인범동무, 형님이 라는 무역선 <혁신>호가 며칠전에 청진항에 입항했는데 만형이 있는 평양에 올라와 결혼식을 한다오. 그래서 함흥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 평양에 올라와계신다누만, 형님이 라는 <혁신>호가 집을 싣고 곧 조국을 떠나게 된 다오. 아직 결혼식날자까지는 한 일주일 남았는데 매일 평양에 올라가 그간 그림던 회포도 나눌겸 꼭 쉬라구.》

정인범의 눈앞으로는 년로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일손을 놓지 않고있는 어머니였다.

보고싶었다.

어머니도 만형님도 그리고 또다시 조국을 떠나 대양의 파도를 헤쳐갈 형님도...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가?

형님이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늘 걱정을 하시더니... 형수는 어떤분일가?

정인범은 어떻게 합숙층계를 올라 자기 방으로 들어섰는지 알수 없었다.

정인범이 방안에 들어가 외투를 벗어 침대우에 던져놓는데 문이 방싯 열리며 합숙관리원이 꾸레미를 들고 들어왔다. 관리원은 대장이 꾸레미를 들고 와서 소조원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고 했다.

정인범은 종이로 포장을 한 꾸레미를 펼쳤다. 인삼주 2명과 실파가 들어있었다.

(대장동무가 결혼식에 간다는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

정인범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창문가로 다가섰다.

불밝은 항구가 눈에 안겨왔다.

가박지에 닳을 놓은 무역선들과 부두의 기중기들, 그의 눈길은 저 멀리 가덕도 벨트콘베아 쪽으로 달려갔다.

가슴을 부풀어오르게 하던 기쁨은 사라지고 짐부리를 하고있을 로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로동자동무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고있는데 소조원인 내가 형님 결혼식에 떠나가야 하는가?)

정인범은 고개를 숙이고 방안을 거닐었다. 문득 오철수의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장에게서 무선전화기를 빼앗기고 그를 무섭게 쏘아보던 오철수의 험상스럽던 얼굴이다.

벨트콘베아가 돌아가는것을 보고야 강수옥기사를 만나겠다고 해가며 기대를 정비하던 오철수, 그는 자기가 말한대로 벨트콘베아에 의한 상선작업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처녀를 찾아가서 만나지 않을것이다.

이 밤 항구도시의 밤거리를 함께 거닐어야 할 오철수와 너기사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있는데 나는 떠나야 하는가? 아직 결혼식날까지는 며칠 남았는데...

정인범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기차가 출발할 시간도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정인범은 s공장으로 갈것을 결심하였다.

(어머니, 형님 저를 용서하세요.)

정인범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합숙접수실로 내려갔다. 그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번호판을 돌려다. 오철수중대장은 나오지 않았다. 정인범은 오철수에게 s공장으로 간다는것을 알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벨트콘베아를 정비해 놓을것을 부탁하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오철수가 대장과 맞서서 어떤 일을 저질러놓을런지도 모른다는 위구심때문에 그러는것이였다.

거듭 수자판을 돌렸으나 오철수는 나오지 않았다. 정인범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s공장으로 간다는 사연을 간단히 적었다. 오철수중대장에게 전하여줄것을 합숙관리원에게 부탁하고 정류소로 나오니 마침 전차가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항구도시를 떠난 기차는 눈덮인 벌판과 구릉지대의 높낮은 야산들을 멀리 밀어던지며 달려갔다. 한 시간나마 달린 기차는 불야경을 이룬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승강대우에 나선 정인범은 기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에게 길을 띄워주면서 흠에 서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혹시 형님이 나왔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어쩔수없이 끌려가는 정인범이였다. 한시바빠 만나고싶은 마음을 안고...

이윽고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정인범은 저도 모르게 승강대손잡이를 꼭 틀어잡았다. 《어머니 형님, 며칠후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정인범은 그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속삭였다.

정인범은 눈귀를 쪼프리고 수도의 거리로 눈길을 보냈다.

네온등불빛이 휘황한 백화점도 창광원도 그리고

천리마거리와 창광거리, 정답게만 안겨오는 수도의 모든것을 남겨놓고 기차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려갔다.

정인범이 s공장에 온지도 3일이 흘러갔다. s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상선기수채를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호소하여 제작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인범은 첫 제품이 나오는것을 보고 떠날 생각을 하고 소조책임자에게 알리려고 공장정문으로 나오고있었다.

접수실쪽에서 누구인가 부르는 소리에 정인범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소조원동무!》

《아니 중대장동무가?》

뜻밖에도 중대장 오철수가 접수실에서 달려나오고있지 않는가?

《중대장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명청히 있자니 속이 쿵쿵해서 어디 견딜수가 있어가지요. 그래 달려왔지요.》

정인범은 그가 온것이 반가웠다. 오철수는 불같은 성미를 참지 못해 상선기수채제작을 도우러 왔을것이다. 정인범은 그를 데리고 체신소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소조원동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소조원동무들이 로동계급에게 호소했더니 이달안으로 제작해주겠다고 했소.》

《됐군요. 그런데 새 개작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술자동무들이 설계를 놓고 합평회를 했는데 이번엔 자신이 있다고 했소.》

《꼭 성공해야겠는데.》

오철수는 눈이 내려앉은 거리의 은행나무가지를 다져놓으며 뇌이였다.

유리가루같은 눈이 오철수의 머리와 어깨우에 차분히 내려앉았다.

《중대장동무, 수옥동무를 만나고 떠나왔소?》

《수옥동무요? 상선기수채를 제작해 가지고 가서 만나지요 뭐.》

오철수는 히죽 웃으며 정인범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체신소에 이르렀다. 정인범이 시외전화를 신청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방열기결에 놓여있는 긴의자에 앉았다.

소조원이 떠난후 대(직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주던 오철수는 졸음이 실린 눈을 깜빡거리다가 졸기 시작하였다. 정인범은 빙그레 웃으며 소설책을 펼쳐들었다.

전화를 취급하는 처녀가 손등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울리며 전화가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정인범은 시외전파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항교환입니까? 소조책임자방에 대주시오. ... 정인범입니다. 지금 s공장에 와있습니다. 예, 일이 진행되는것을 보아 래일저녁에 평양에 가겠습니다.》

네, 결혼식전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범은 s공장에 오게 된 사연을 간단히 말했다. 형님결혼식에 간줄 알았던 소조책임자는 놀라는기색이었다. 이윽고 정인범은 설계실로 전화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곧 설계실이 나왔다. 마침 강수옥이 전화를 받았다.

《…정인범입니다. s공장로동계급들이 수채를 이달중으로 제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참 그렇게 빨리요!》

《기사동무, 중대장동무도 s공장에 와있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전화를 바꾸겠습니다.》

정인범은 전화실문을 열고 의자쪽에 머리를 돌리었다.

《중대장동무!》

눈을 번쩍 뜬 오철수는 전화실쪽을 바라보았다. 정인범은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전화가 나왔습니까?》

눈등을 쓱쓱 비비며 다가온 오철수가 물었다.

《중대장동무, 전화를 받소. 수옥동무가 나왔소.》

《수옥동무요?》

오철수는 눈을 홑뜨며 소조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정인범이 내민 수화기를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는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새물거렸었다.

《수옥동무가 기다리요.》

제촉을 받고서야 오철수는 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수옥동무요? … 소조원동무가!… 동무도 이곳에 와서 소조원동무를 도와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겠다구?… 나말이요? 오늘 왔소. 수채를 제작하여 불이기전에는 떠나지 않겠소…》

수화기를 놓고 나오는 오철수의 웃음어린 얼굴을 바라보는 정인범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었다.

저 미소속에 소조원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것이 아닌가!

5

소조책임자에게서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정인범은 대장방으로 들어갔다. 박병태는 작업지령서에 도장을 누르고있었다.

《대장동지, 밖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한시간만 쓰면 안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어디다 쓰자고?》

박병태는 인준통에 도장을 꼭 박아놓고 소조원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자동차를 쓰겠다고 하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던것이다.

《화물역에 도착한 짐을 실어오자고 그럼니다.》

《그 차는 물고기를 실어오자고 대기시켜놓은건데 어떻게 한다? 무슨 짐이요?》

《대장동지, 강수옥기사가 새로 설계한 수채를 오철수동무랑 s공장에서 만들어 부쳤습니다.》

《뭐요? 그 녀기사? …》

박병태는 모든것이 뜻밖이었다.

그래서 오철수가 휴가를 받았단말인가.

박병태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지만 했다… 며칠이 지나갔다.

벨트콘베아상선기를 교체하는 기술지도를 강수옥기사가 담당하였다.

시운전은 또 실패하였다.

시운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난 박병태는 기증기로 작업할것을 지시하고 중계창고로 걸어갔다. 작업을 도와주러 나왔던 기술과의 기사들과 수리공들은 맥살이 풀려 퍼더버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정인범은 컴퓨터로 상선기의 정밀도를 계산하고 있는 강수옥기사결으로 다가갔다.

《소조원동무, 상선기는 정상이에요.》

《기사동무, 그런데 왜 세멘트포대가 터질가요?》

《글쎄요. 세멘트포대가 벨트콘베아를 타고나오다가 손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인범은 벨트콘베아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상선기가 정상이라면 벨트콘베아에서 손상을 입을수도 있지 않는가?)

정인범은 대장을 만나러 중계창고로 갔다. 대장은 사령실에 있었다.

《사령동무, 보관말이요. 내 뭐라고 했소? 복선을 쳤기에 말이지 벨트콘베아를 믿었다가 지게차를 더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뻔했소.》

지령교환대의 수화기를 내려놓고난 대장이 사령을 쳐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대장동지, 상선기는 정상입니다.》

정인범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아니 방금 세멘트포대가 터진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세멘트포대가 벨트콘베아를 타고 흘러오다가 도중에서 손상을 받는것 같습니다.》

《그럴수 없소. 문제는 그 상선기란말이요.》

박병태는 얼굴을 붉혔다.

《대장동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인범은 의자에 앉았다. 사령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대장은 의자를 당겨 소조원앞에 마주 앉았다.

《대장동지는 말로는 짐부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벨트콘베아를 살리려고 애쓰게 않습니다까.》

《소조원동무, 나도 벨트콘베아를 건설할 때 땀방울을 쏟아부은 사람이요. 로동자들에 대한 관점이 서있지 않다고 모두들 비판을 하는데 소조원동무까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오. 섭섭하단말이요.》

《대장동지가 진심으로 벨트콘베아를 돌리자고 애

를 썼다면 우리 대 노동자들은 언녕 집부리기가 없는 새 일터에서 일하게 됐을 겁니다. 대장동지가 기계로 흥겹게 일하도록 애쓰는것이 노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것을 모르신단말입니까? 대장동지, 전 언제부터 이 말은 하려고 했지만 대장동지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

박병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소조원 정인범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부두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정인범은 대장에게 다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뇌이며 걸었다.

《대장동지, 대장동지는 낡은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방파제에 이른 정인범은 바다쪽을 바라보았다. 무역선이 닻을 놓고있는 정박장에서 맴돌고있던 얼음장들이 바다로 떠내려가고있었다. 썰물을 따라 항구로 흘러들어와서는 백곰처럼 웅크리고있다가 밀물이 시작되면 서로 밀치고 닥치고 하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얼음장들이었다. 생각에 잠겨어 방파제로 걸음을 옮기던 정인범을 벨트콘베아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구름다리인양 세멘트 기둥에 떠받들리어 저 멀리 중계창고로 일매지게 뻗어나간 벨트콘베아, 세멘트 포대를 싣고 흘러가야 할 콘베아는 숨을 죽이고 누워있다.

벨트콘베아를 타고서라도 세멘트포대가 손상 받는것을 알아내야 한다.

비록 위험이 막아선다 해도...

정인범은 주저도 동요도 없이 중계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기었다.

중계창고로 들어간 정인범은 무선전화기로 전동장을 찾아 벨트콘베아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콘베아가 돌기 시작했다.

세멘트포대를 벨트우에 태워놓은 정인범은 무선전화기를 들고 벨트콘베아위로 올라섰다.

멀리 바다쪽으로 뻗어나간 벨트콘베아, 안테나를 뽑아놓은 무선전화기를 들고 벨트콘베아위로 걸어 나가고있는 3대혁명소조원 정인범,

그를 처음에 발견한것은 전동장 산업텔레비존앞에 앉아있던 운전공처녀였다.

전과 다름없는 시운전이라니 생각하고 스위치를 넣었던 잠자리날개처럼 하르르한 머리수건을 쓴 처녀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가슴을 조이며 텔레비존화면을 지켜보고만있었다.

소조원이 벨트콘베아를 탔다는 뜻밖의 전화를 받고 박병태가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을 때 정인범은 벌써 전동장가까이로 걸어가고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왔다.

(소조원동무가 벨트콘베아를 타게 된것은 나때문이 아닌가? 오죽 애가 탔으면 저렇게까지...)

박병태는 오철수가 벨트구간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제동을 걸지 않았더라면 소조원동무가 저렇듯 생명을 내대고 흘러가는 벨트콘베아위로 걸어 가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정인범을 바라보던 박병태는 전동장을 향해 부리나케 달려가며 소리 쳤다. 《세우라!- 세우라!-》

숨넘어가듯 다급히 웨치는 대장의 목소리가 정인범의 귀가를 스치고 날아갔다. 그러나 정인범은 대장이 어디서 달려오며 소리를 치는지 바라볼수 없었다.

(운전공이 대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를 세울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랑패다. 대장동지보다 먼저 전동장에 가닿아야 한다.)

그는 무선전화기 단추를 누르고 전동장을 불렀다. 《전동장!- 내 말이 들리는가?... 속도를 높이라! 속도를...》

한편 전동장문을 열어 젖히는 박병태의 목구멍에서 겨불내가 풍기였다.

《기대를 세우라!》

눈이 울렁해서 대장을 쳐다보고있는 뒤에 오철수와 너기사가 서있었다. 방금 여기로 달려온 모양 겹칠린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고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누가 벨트콘베아를 돌리라고 했어?》

《소조원동지가...》

운전공이 울먹거리며 대답했다.

《소조원이?... 당장 기대를 세우시오.》

운전공이 전원개폐기의 빨간 단추를 눌렀다.》

《후!-》

박병태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중대장동무도 너기사동무도 소조원이 벨트콘베아위로 걸어가는것을 보고도 기대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지?》

대장은 허공을 바라보며 맥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그 누구를 질책할 때의 도고한 기상은 없었다. 그 누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하는 목소리였다. 이때 소조원이 전동장안으로 들어섰다. 정인범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대장동지, 세멘트포대는 3호구간에서 타격을 받고 갇히고있습니다.》

운전공이 손수건을 소조원에게 내밀어주었다.

《소조원동무, 거기가 어디라고요?》

박병태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물기가 어린 눈으로 정인범을 쳐다보았다.

뜨거운 격정이 가슴속에서 굵이치고있는 박병태는 정인범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소조모임에 참가하고 가덕도로 돌아오던 정인범은 박병태가 항만기중기를 끌어내고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부두로 달려갔다.

박병태가 기발을 쳐들고 기중기운전공에게 신호를 보내고있었다.

정인범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그는 대장결으로 다가갔다.

《대장동지, <생명선>을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소조원동무, 룡담마우. 우리 대의 생명선은 이제부터 이 항만기중기가 아니라 저 벨트콘베아요!》

이 순간 대장은 짐부리기를 없애려면 항만기중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하던 정인범의 말이 생각났다. 그 말속에 남긴 소조원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던것

인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오늘에야 깨닫지 않았는가!

박병태는 시대의 흐름속에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뒤걸음질을 하고있던 자기 박병태를 이끌어 준 혁명의 전위 정인범을 미더운 눈길로 쳐다 보았다.

손을 들어 상선기를 가리키는 대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 피어 났다.

때마침 수평선을 붉게 태우며 솟아오른 해빛이 부두에 정박한 무역선의 마스트와 하늘가에 드리운듯 저 멀리로 뻗어있는 벨트콘베아우를 비쳐주고 있었다.

갈매기가 나래를 퍼덕이며 날고있는 방파제우로는 오철수와 강수옥이 나란히 걸어가고있었다.

병사시절

홍 성 두

병사시절

병사시절

나의 한생애

이 시절이 없다면

무엇이 남으랴

짧아서 빛나는 시절이던가

길어서 빛나는 시절이던가

병사시절

병사시절

가슴에 충을 안은 애 어린 병사도

이 시절 맞아

영생하는 삶을 오늘에 지니고

어제날 로병도 이 시절 안고 살아

변함없이 빛나는 전사의 삶!

오, 병사시절

병사시절

한시절에

영원한 삶을 안겨주고

영원한 시절을 이어주는

너 소중한 시절, 나의 시절아!

더 바라지 않노라

훈장도 명예도...

전술훈련의 실참

전우들과 함께 찍은

한장의 소박한 사진을

병사시절의 값높은 표창으로

내 소중히 간직하려니

얼마나 행복하랴

먼 후날에도

병사시절의 그 사진 보며

가슴에 안긴

귀여운 손자들에게도

병사시절을 말해주며 산다는것은...

오, 고마운 당의 품속에

꽃피난 나의 삶

빛나라 병사시절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

몸도 마음도 불타는 청춘

남이 가고 해가 가도

이 가슴에 깃들어 너만은 아니갈 시절

오, 병사시절

병사시절

나의 한생애

이 시절있어

모든것 없어도 좋으리

병사시절의 그 이름만 남는다면!

아, 나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영원한 병사!

무쇠기둥

리 수 덕

강선의 하늘가에 붉게 타는 주홍빛 아침노을이 강물우에 비껴 대동강줄기가 그대로 걸쭉한 쇠물의 흐름인양 그물그물 감돌아내리는 여기 강철기지건설장 구내길은 오늘도 못사람들의 물결이 잠시도 쉼새 없다.

혹은 렬차를 타고, 혹은 고속도로와 지름길로 쉬임없이 찾아드는 각이한 직종의 사람들... 그 태반은 로력지원자들이다.

건설장에 당도한 사람들은 누구라 없이 진펄을 차고 보란듯이 울쭉불쭉 솟아오르는 회전로건설장의 웅장한 모습과 강철생산기지의 방대한 규모를 놓고 놀라기도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파연 조립공들이 장하구만, 길이가 수십메터나 되는 저 회전로동체를 어떻게 조립했을까?》

《어디 그뿐이요? 저 아찔한 무쇠철탑과 굴뚝은 어떻게? 떠가던 구름장을 들이받겠는걸.》

허나 어느 누구도 그 억척같은 구조물들을 믿음직하게 땅우에 떠받들고있는 건물기초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는데 바쳐진 건설자들의 티없는 마음과 숨은 노력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술한 사람들이 건설장 한복판에 서서 찬탄의 목소리를 합치고있을 때 류재원작업반장은 반원들과 함께 원료저장장 기초공사장에서 기초말뚝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작을사한 키에 다부진 몸집, 쇠꼬치에 부대끼면 금시 땀강소리라도 날듯 장단이 있어 보이면서도 술 많은 두 눈섭아래 약간 부은듯한 눈두덩이며 두툼한 입술이 어딘가 내성적이면서도 솟부드러운 감을 주는 류재원반장은 이른아침부터 굴착기주변을 감돌며 류다른 흥분과 기대에 휩싸여있었다.

한것은 오늘이 바로 10여일째나 백열전을 벌려온 《기초말뚝박기경기》를 결속짓는 날이었기때문이었다.

무릇 모든 건설에서 기초공사문제가 중요한것이지만 한메터만 땅을 파도 감탕과 지하수가 솟구치는 습지대에 공장은 세워야 하는 이곳 건설자들에게 있어서 기초공사를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건설의 속도와 질을 조건짓는 관건적일 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날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달려와서 일감을 내라고 독촉했고 술한 자재와 설비들을 실은 렬차들이 밀려들었다.

기초공사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일정에

오르게 되자 건설지휘부에서는 이 돌파구를 열어나갈 방도의 하나로써 기초말뚝박기 생산경기를 조직했던것이다.

경기에는 이미 금속공장건설작업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거나 기계화수단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단위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첫날부터 치렬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길차게 자란 갈대과 부들풀숲속에서 때없이 우짖는 갈새의 청높은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던 강기슭이 삽시에 기계의 동음으로 꽉 찼다.

줄지어 달려온 불도젤들이 푹을 밀어제며 진펄을 메꿔나갔고 여기저기 산개된 굴착기들이 역세게 내뿜친 무쇠팔뚝에 건 쇠바줄로 무쇠망추를 추켜올렸다 찼었다하면서 밤낮없이 기초말뚝을 박아 나갔다.

이 경기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것은 류재원반장이 속한 작업조였다.

기초말뚝박기 경기 결속날자가 다가옴에 따라 현장 《전투속보》, 출력높은 방송차의 확성기에서 류재원작업반 전투원들의 이름들이 자주 울려나왔다.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것이었다.

《재원반장! 뭘 그렇게 긴장해 쏘여? 1등이야 떼놓은 당상인걸.》

키가 꺾두룩한 장시량 포장반장이 구리빛얼굴에 사람좋은 미소를 담고 재원반장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하는 말이였다. 아무 응답도 없었다.

하건만 말수더구가 워낙 많고, 일단 하고싶은 말이면 바람벽을 마주하고서라도 다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인 장시량의 말문은 도무지 단길 줄 몰랐다.

《방금 세멘트를 싣고오다가 저쪽 친구들의 작업장엘 가보지 않았겠나.그런데 우리 밤꿈치를 물고 따라오던 그 동무네들 수준이란게 이제 겨우 200번째 말뚝을 박는 형편이라니까... 허허허.》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해, 마지막에 웃는자가 가장 잘 웃는자라지 않아.》

마치 눈길로 그 육중한 무쇠망치를 끌어올렸다가 내려쥘기라도 하듯 굴착기의 무쇠팔뚝 한끝에 시선을 존재 하는 재원반장의 말이였다.

《허허... 이 사람이 구운 게도 집게발은 먼저 떼놓고 먹겠군그래. 그 친구들이 뒤떨어진 15개말뚝을 한것새에 봉창할것 같아? 어렵없지, 그러니 우승기발과 경쟁상품 받을 준비나 하라구. 이번 받는 고급 텔레비죤수상기 5대는 자네 작업반 합숙생들 방에 차려주세. 하긴 그 친구들이 텔레비죤 받침대를 벌

써 다 만들어놓았더군.》

그러거나 말거나 채원반장은 땅속에 한치 두치 박히는 말뚝안내철관주변에 물을 끼얹으며 덩덤히 서 있었다.

위낙 제대군인 총각시절의 합숙생활때부터 그의 독한 성미를 잘 아는 장시량은 더 말할 재미를 잃은 듯 굴착기운전공 안군흡에게로 징징징징 걸어 갔다.

《여 어때? 오전중에 230개 채울수 있지?》

《두말하문 잔소리지, 콩크리트 혼합물이나 너넉히 마련하라구.》

굴착기의 소란스런 음향을 뚫고 운전사의 켑켑한 목소리가 채원의 귀전에까지 울려왔다.

바로 이때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다.

장단 맞춰 고르롭게 울리던 무쇠망추의 다짐소리가 똑 떼음과 동시에 뽕뽕히 행키워오르내리던 굴착기의 쇠바줄이 원통안내기둥박으로 튕겨나와 너슬 너슬해진 한끝을 불뚝없이 드러냈다.

무쇠망추의 고리에 비끄러졌던 쇠바줄이 닳아 끊어져나갔던것이다.

굴착기의 동음이 몇 주 주변에서 일하던 콩크리트 혼합공들이며 휘틀조립공들, 골재를 운반하던 자동차운전사들이 왁 쓸어왔다.

《웬일이야?... 뭘? 쇠바줄이 거덜나?》

《야단인걸, 망추가 저렇게 깊이 배졌으니 좁은 관속으로 들어가서 쇠바줄을 비끄러낼수도 없구...》

《할수 없지 땅을 활 파제끼구 망추를 꺼내는수밖에 ...》

《그걸 파제끼자문 하루품은 잘 들겠는데 그럼 말뚝박기경기가 볼장 다 봤지 뭘.》

저저마다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섬기거니받거니 하는 소리다.

일인즉 정말 난처하게 되었다.

어느새 기여올랐는지 굴착기의 팔 한끝에 걸터 앉아 입을 짹 벌리고 서서 시꺼먼 원통안내기둥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밑에서 울리는 분분한 의견을 듣는 작업반장의 마음은 무등 안타까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말뚝을 박자면 아직 5~6미터의 깊이를 더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 어차피 망추를 건져내어 가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쇠바줄을 어떻게 망추고리에 련결시킨단말인가?)

땅을 파헤치고 망추를 빼낼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품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까지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것은 문제도 안되었다. 문제는 기초말뚝 15~20개를 박을 시간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개념만이 아니 었다.

지금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공사의 건설속도가

기초공사에 많이 달려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류재련 반장에겐 날마다 박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말뚝이 준공의 쇠물뿔 만발할 영광의 그날에로 잇닿은 길에 놓인 징검돌처럼 생각되었다.

하루가 새롭고 한시가 새로왔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면 온 건설장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 땀 방도는 없다. 저 원통관속에 들어가서 망추고리에 쇠바줄을 련결시키자.)

이렇게 작정을 하니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거뜨해지는것 같았다.

《아니 반장동문 뭘 그러고있다. 황새 썸구멍 들여다보듯...》

장시량반장이 일시 가라앉은 사람들의 기분을 돈 귀주기라도 할듯 일부러 너스레를 피우는 소리에 채원반장은 생각에서 깨어나 굴착기팔의 사다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장시량이 모여선 사람들의 잔등을 떠밀며, 돌아가 일하면서 대책을 궁리해보라고 돌려보내자 굴착기 결에는 세사람만이 남았다. 류재련, 장시량 두 반장과 굴착기운전수 안군흡이였다.

그들은 한낱한시에 이곳 강선땅에 와서 독신자 합숙 한방에 제대군인 배낭을 풀어놓은 이래 오늘까지 한초소에서 일하는 동갑나이 친구들이였다.

《뭘 긴말할새 없지, 내 생각엔 무쇠망추를 꺼내느라 애쓸것없이 그대로 둔채 구우에 콩크리트 혼합물을 다져넣어 기둥을 박자는거야.》

한순간 흐르는 침묵이 답답했던지 성미급한 장시량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꺼내는 말이였다.

《아니 망추의 예비두 없는데 그럼 당장 무얼 가지구 기초말뚝을 박는단말인가? 어쨌든 망추는 살려야 해.》

두눈이 얼롱해서 안군흡이 말하였다.

《그건 걱정 말게, 무쇠망추는 내가 이미 조피직장에 <특수주문>해둔게 있으니 늦잡아도 오전중이면 여기에 가져다놓수 있어.》

장시량은 금시 달려갈듯 장대한 몸을 벌컥 일으켰다.

《그건 안되네.》 채원반장의 목소리가 장시량의 발목을 그러잡듯 웅글게 울렸다.

《그럼 대체 어찌자는건가? 땅을 파헤치자구? 흥 그새면 우승기발은 락자없이 22건설사업소동무들한테 넘어가네, 그럼 우리가 무슨 꼴이 되나? 사업소에선 그래두 우릴 크게 밉구 이번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나, 단순히 우리들이나 직장의 명예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들이 생산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소를 떠나던 날 종업원들은 물론 사택마을 너인들과 중학교 학생들까지 떨쳐나와 꼭 1등을 하고 돌아오라고 당부했었다. 사업소의 한 책임일군은

작업조를 책임진 류재원반장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이번 경기가 3대혁명붉은기 관정에서도 좋은 계기로 될수 있다고 은근한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사업소의 명예도 귀중했고 집단의 부락과 믿음을 지키는것도 중요했다. 그러나 재원반장은 건설자의 량심, 당원의 량심을 저버릴수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속있게 사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한가지 일을 만들어 공명이나 세우려고 하거나 혁명의 리익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하여 허물이나 감추려 하는것은 혁명가의 품성이 아닙니다.》

재원반장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한동안 말없이 원통안내기둥 아구리를 지켜보고있었다.

그 모양에 속이 더욱 달았던지 장시량이 또 참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다.

《반장! 세멘트혼합물이 굳어지기전에 어서 밀차를 부르자구 기둥을 다지잔말이야, 그까짓 여섯개 말뚝중의 하나인데 뭐라나.》

물론 기초말뚝은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건물의 주춧돌이 되는것은 아니었다.

여섯개의 기초말뚝을 두개씩 쌍을 지어 일정한 간격으로 박은 다음 그우에 말뚝들을 련결시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하나의 주춧돌을 형성했던것이다.

《자, 그러니 말뚝 하나땀에 공연히 1등자리 떼우지 말구 결심을 내리게, 땅속의 기둥인데 누가 보길 하나 알기를 하나… 지금은 또 경기관정원들도 자리를 뜨고 있지 않나.》

장시량의 이 말에 솟부드러워보이던 류재원반장의 두눈에 노기가 어렸다.

재원반장의 눈을 보자 장동무는 한순간 속이 띠끔했다. 그러나 그는 재원의 마음을 눈썰미하려듯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더 보렸다.

《사실 우리끼리니말이지 지금 우승기발과 텔레비존 5대가 저 22건설사업소와 우리 사업소 사이를 오락가락하네. 자칫하면 말뚝 하나에 목이 메서 데굴데굴 우리 문턱에 굴러 온 복을 제발로 차버릴수 있어. 그러니…》

순간 회초리를 내려치는듯한 재원반장의 목소리가 장동무의 말허리를 끊어버렸다.

《뭐라구? 자네 언제부터 누구의 얼굴을 쳐다보며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나? 언제부터 그 무슨 타산을 앞세워가며 일하게 됐나말이야? 그래 우리가 분초를 다뤄 아글타글 기초말뚝을 박는게 공명이나 떨치구 상품이나 타자구 하는 일인가?》

반죽줄게 웃으며 접어들던 장동무의 얼굴이 대قم

이그려졌다.

《아니 1등을 하구 상품을 타서 나쁠건 뭐가?》

재원반장은 피로운듯 마른 침을 삼키고나서 말을 이었다.

《자네 벌써 잊었나?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이기며 저 제강소의 인발직장을 세우던 때를 말이야. 그때 두 경쟁은 치렬했지. 그러나 어느 한사람도 공사가 끝나면 차례질 그 어떤 특전이나 물건을 타산하며 일한 사람은 없었네. 오직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한생각뿐이었지.》

자네두 생각나겠지. 일년감 몇알씩 나누며 경쟁을 총화짓던 그 유쾌하던 날이!》

회억에 젖은 반장의 음성은 저으기 조용해졌다.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1960년대초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강선 제강소 인발직장을 일으켜세우던 건설의 벽찬 그 날에 류동무와 강동무는 승벽을 다투는 두 돌격대의 중대장들이었다. 그때 전투장면 누가 먼저 말을 뱉는지 이번 경쟁총화의 상품시상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드디어 경쟁이 승부없이 끝나 두 단체에 특별상품이 차례졌다. 그런데 상품을 싣고 온 자동차엔 뚜껑을 짝 덮은 대형늪바탕 여섯개가 주련이 놓여 있었다.

박수갈채속에 상품을 받아안고 중대에 돌아와 뚜껑을 열어보니 무르익은 일년감이였다.

와- 웃음이 터졌다. 그날 전투원들은 그 일년감을 몇알씩 나누며 준공될 새 공장에 아버지수령님을 모실 한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웠었다.

《하지만 그땐 그때구 지금은 80년대가 아닌가? 형편이 다르단말이야.》

《그러나 우리의 충성심엔 변함이 없어야 하네. 지금 우리가 어떤 땅에 기초말뚝을 박고있나? 해방후 강선의 로동계급을 선참 찾아주신 그날부터 진날 마른 날 가리지 앓으시고 한평생 사랑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에도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물려주시려고 감탕길을 헤치시며 몸소 터잡아주신 이곳이 아닌가?》

《누가 그걸 모르나?》

《알고도 실천 안하는게 탈이야, 우린 지금 수령님의 그 사랑의 자욱자욱에 무쇠기둥을 박고 있어. 그러니 그 하나하나의 기둥엔 티끌만한 흠집도 있어선 안돼.》

그러자면 땅속에 박는 기둥보다 먼저 이 마음속에 충성의 역센 기둥을, 무쇠기둥을 세워야 하네.》

장동무는 말문이 막혔다. 어색한 한순간이 흘렀다.

《자 어서 땅를 파내세, 망추를 건지자면 판수야 없지 않나?》

두 반장사이에 끼여서 한동안 딱해 서있던 굴착기

운전수가 팔소매를 걷고 나서며 하는 말이였다.

《아닐세, 좋은 방도가 있네.》

재원반장이 이렇게 말하며 옷동을 벗고 한발나섰다. 늘 런닝그바람에 일한 탓에 해벌에 타고 강바람에 다스려져 청동빛으로 물든 역센 팔뚝이며 움틀뭉틀 힘살이 도드라진 실한 어깨와 가슴이 드러났다.

《이걸 내 몸에 끼었게.》

운전수에게 물이 차있는 바깥쪽을 내어밀며 재원반장이 말하였다.

《아니 저 철통안에 들어가려구? 안돼. 위험하네.》 운전수는 펄쩍 뛰며 물려섰다.

《사람두, 강선의 용해공들은 천리마대고조때 전기로를 살리려고 절절 끓는 로속에두 뛰어들었는데 이까짓게 뭐가?》

재원반장은 들었던 물바깥쪽을 머리에 일듯 추켜올리더니 온몸에 쏟아부었다.

《이건 그저 물이 아니라 <윤활유>거던 허허.》

반장은 유쾌히 웃고나서 누가 붙잡을새도 없이 물참봉이 된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굴착기 팔을 타고 기어올랐다. ...이윽고 그는 굴착기운전수가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쇠바줄 한끝을 쥐고 원통기동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메터 두메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원통벽에 온통 매닥질해진 미끈미끈한 감탕이 잔등과 팔과 다리에 섰다섰다 닿았다. 비리다 못해 역하기까지 한 감탕내가 코를 찔렀다.

고개를 곧추 쳐들어야 둥근 손거울만큼한 푸른 하늘이 보일뿐 철기동안은 눈을 감은듯 새까맸다. (과연 이속에서 망추의 꼬리를 찾아 쇠바줄을 땄수 있을까?)

드디어 반장은 한끝에 닿았다.

그새에 물이 습새여올라 정쟁이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또하나의 애로였다. 반장은 발더듬, 손더듬으로 망추고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감탕을 헤치며 한동안 애쓰던 끝에 고리를 찾았다. 이제 쇠바줄을 걸어 로매는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여느 바줄같지 않아 쇠바줄이 다보니 매듭을 짓기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허리를 굽히려면 이마가 벽에 닿고 꾸그러 앉으려면 엉치가 벽에 닿아 마음대로 움직일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쇠망추가 지압에 눌러 빼내기 힘들텐데...)

마음의 긴장때문인지 처음엔 써늘하게 느껴지던 철통안이 열에 들뜨는것처럼 화끈 달아올라 온몸에서 땀발이 흘러내렸다.

순간 어디선가 힘찬 취주악소리가 울려왔다. 《결전의 길로》였다. 이때 귀익은 목소리가 머리우에서 울렸다.

《반장동무! 올라오게 교대하자구.》

《빨리 올라오게, 사업소기동대가 왔네. 자네 딸도 왔단말일세.》

이때 바깥은 못사람들로 법석 끓고있었다.

사업소기동대가 방송차와 함께 달려와서 구두선동과 취주악을 연주했고, 합숙식당과 사택마을 녀인들이 와서 야외식당을 차려놓고있었다. 게다가 《전투속보》와 중앙의 신문기자들까지 찾아와서 묻고 캐는바람에 장동무는 어지간히 바빠 돌아가다가 재원반장을 불러대려고 굴착기팔에 뛰어올랐던것이다. (그래 저 노래는 우리가 전우의 시체를 묻고 결사전으로 나가며 부르던 노래지. 그때 우린 곤난이란 단어조차 몰랐었지.)

재원반장의 입으로는 웅그러운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전우를 잊지 말아라... 그는 신고하던 끝에 쇠바줄을 겨우 한매듭짓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한 매듭으로는 미라했다. 굴착기가 쇠바줄을 당길 때 풀려질수 있었기때문이다. 또 한매듭, 다시 또 한 매듭을 짓고나니 온 몸이 나른해졌다. 안도의 숨을 쉬며 머리를 쳐드니 쪽빛하늘을 배경으로 거울에 비친듯한 장동무의 얼굴이 안겨왔다.

지금껏 걱정어린 눈으로 지쳐본 그였던것이다.

《다 뻤나? 수고했네. 어서 올라오라구, 지금 바깥엔 경사야, 저저마다 꽃다발을 안겨주겠다고 주련이서있네. 기자들두 왔어!》

그의 말을 증명하러는듯 환영곡소리, 박수소리, 방송원처녀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울려왔다.

재원반장은 더럭 겁이 났다.

(이제 무슨 큰일이라구?)

그는 많은 사람들앞에 나서는데것이 노상 쑥스럽게만 생각되었다. 이제라도 이런 원통기동속에 다시 들어가라면 웃으며 섰을 나설수도 있었다. 그러나 꽃다발앞에, 뭉툭길앞에 나선다는것은 두렵기만했다.

《아니 뭘해? 빨리 나오라니까.》

《여보게! 못나가겠네, 저 사람들이 댄 작업장에 떠나기전엔 안나가겠어.》

《원 참 성미두... 글썄 나오라니까.》

한참 싱갱이질이 오갔으나 여기서도 역시 장동무가 지고말았다.

재원반장은 끝내 사람들이 세멘트혼합장으로 옮겨간후에야 쇠바줄을 타고 올라왔다. 《정말, 정말 수고 많았네.》 마치 멀리 떨어져 오래동안 해졌다 만난 친구이기 라도 한듯 재원반장의 어깨를 불안으며 장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뭘 이러나 괜히 어색하게...》

재원반장은 장난스럽게 장동무의 옆구리를 쿡찌

르며 빙긋 웃었다.

《뭘 할말은 없소, 행동으로 비판했으니 앞으로 행동으로 고치겠네.》

늘 웃음 반지기이던 그 얼굴에 지금따라 근엄한 빛을 머금고 장동무가 말했다.》

굴착기팔에 걸터앉아 마음을 나누는 두 반장의 모습을 운전칸에서 바라보는 안동무의 가슴도 뜨거웠다.

드디어 무쇠망추가 되살아났다. 굴착기는 잃은 시간을 봉창하며 다기차게 기초말뚝을 박아나 갔다....

이날 전투현장과 지휘부앞 대형속보판에는 《류채원작업조가 기초말뚝박기 경기에서 단연 1등!》 《축하한다. 기초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전투원동무들을!》이란 글발이 나붙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이날 해질무렵, 노을비낀 강쪽에는 나란히 앉아 건설장을 취한듯 바라보는 세사람이 있었다. 류채원과 장동무, 안동무였다. 방금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모두 거뜬한 기분들이었다.

그들앞에는 노을이 비껴 마치 화끈 단 강철지붕갈

어진 하늘을 떠받든 무쇠철탑들이 들쭉날쭉 솟은 새 강철기지건설장이 장엄히 펼쳐지고, 뒤에는 그들이 60년대초에 구슬땀 바쳐 지은 제강소의 인발직장이 강변에 발을 잠그고 웅장히 솟았다.

《자넨 뭘 생각하나?》 장동무가 채원반장에게 묻는 말이었다.

《우리 건설자들의 궁지와 보람에 대해서...》

《결국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구만. 그러나 그것은 건설자라구 해서 누구나 다 느낄수 있는건 아니지, 자네가 말한것처럼 오직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을 떠받들 순결한 충성심을 마음의 기둥으로 무쇠기둥으로 간직하구 일하는 건설자만이 느낄수 있는거지.》

장동무가 마디마디 힘을 주어 말했다.

《자. 래일부터는 저 기초우에 철탑을 세우는 새 전투가 벌어지겠는데 우리 가면서 그거나 토론하자구.》

셋은 먼지를 툭툭 털며 일어섰다.

강둑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강선의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여주고있었다.

강냉이밭속의 서정

김 준 립

금시
말속에 들어섰건만
나는 몰라라
발머리가 어뎌지
끝이 어뎌지를

언제 봐도 높고 푸르던 하늘
지금은 개꼬리에 닿아있어
손을 들면 한손에 다 잡을듯
작구나
쫓빛하늘

함께 일손잡은
이웃들도 보이지 않아
목청 모두어 불러보니
웬걸
몇발자국앞에 있어

갑자기 웬일이냐고
한치앞도 못본다 놀려줘도
나는 좋네

숲처럼 밀림처럼 우거진 강냉이
정답도록 내 어깨머 불을 스쳐

그 누가 문득
어깨를 툭 치며
부르는듯 찾는듯
얼굴에 대답하며 둘러보니
아이참
팔뚝같은 강냉이 이삭
등뒤에서 빙긋 웃네

속아도 내 좋아
그래도 좋아
가슴가득 차오르는 만풍의 기쁨
이삭들을 매만지며
이삭 쫓아가던 걸음

아, 열겉음도 못가
길을 잃었어도
마음은 흘러 한畝이라네
고마워라 당의 은덕, 수령님 은혜여!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이 추구하는 《내면화》의 본질과 그 반동성

은 종 석

(1)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방해하여 나섬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고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에서 최근에는 눈에 띄이는 현상의 하나는 이른바 《내면화》의 경향이다.

물론 《내면화》의 경향은 부르조아문학에서 새로운것이 아니며 미일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로서 자본주의세계의 잡다한 반동문에 사조와 경향이 무질서하게 퍼지고있는 남조선문단의 경주에도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조아문학에서 나타나는 심리주의적내면추구의 경향은 현실생활을 파고드는 창작 경향과 대치되는 하나의 현실도피적인 문화현상으로서 생활을 떠난 《내면세계》의 묘사와 순수 《심리》의 추구에 기울어지는것으로 특징된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것이 성격창조의 필수적요구라는것은 문학원론의 초보적상식이다.

인간을 사건전개의 수단으로만 추상적으로 메마르게 보여주던 문학으로부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펼쳐보이는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제기한 문학에로의 이행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었으며 사회주의문학발전의 거대한 진보였다.

사회주의문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에 부닥치는 과정에 체험하는 인물의 심리적충격과 움직임, 그 발전과정을 섬세하고 생동하게 묘사하며 인물의 생활과 투쟁, 행동세계를 개성적인 체형세계와 밀착시켜 그림으로써 산 인간의 성격을 보여 주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성장하는 인간의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부르조아문학에서 나타나는 심리추구적경

향은 인간과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실주의문학에서의 내면묘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생활과 밀착된 내면세계의 묘사,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고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는 체형세계의 묘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부르조아문학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고 현실을 떠난 그 어떤 《자의식》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생활과 동떨어진 인간의 병적이며 동물적인 심리를 인위적으로 과장하여 그린다.

부르조아문학의 심리추구적경향은 현실과 생활, 정치와 계급적리해관계를 떠난 《순수한》 문학을 창조한다는 기만적이며 허위적인 구호밑에 지배층과 부르조아특권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순수문학의 한 현상이다.

그것은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격화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감화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기피하며 부르조아사회의 현실적모순을 음폐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복무하는 반동적경향이다.

최근 남조선반동문학에서 논의에 오르내리는 《내면화》 경향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

남조선의 한 반동평론가는 최근 어느 한 십사평에서 《...근년의 작품들은 심리적인식세계에 근거를 두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사회적인 문제나 력사의식에 천착하는》 경향과 대조적인것으로 설명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에서 나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하거나 과거의 력사를 음미하는 창작적경향과는 대치되는 경향, 사람들의 《심리적인식세계》를 추구하는 《내면화》 경향이 남조선문학에서 하나의 뚜렷한 특징으로 되었다는것이다.

이것은 자주와 예속, 민주와 파쑈, 통일과 분열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고있는 현실의 침예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지난날의 교훈속에 오늘의 현실을 투영하는 력사주제의 경향마저 기피하면서 그 어떤 순수 《심리적인식세계》에 집착하여 파들여가는것이 바로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단에서 논의되는 《내면화》 경향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최근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내면화》 경향이라는것을 살펴보면 그 본질적내용은 현실생활에서 제재를 취하고 인간을 생활속에서 형상하는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완전히 격폐된 《자의식》 세계를 추구

하거나 생활을 떠나 인간의 심리와 내면세계를 고립적으로 묘사하는데 있다.

현실과 완전히 절연된 《자의식》의 세계를 추구한다는것은 인간의식의 객관적내용이 거세된 그 어떤 몽환적인 《의식》상태를 파고드는것으로서 인간의 건전한 내면세계의 묘사와는 인연이 없다.

생활과는 인연이 없이 고립적으로 내면심리를 추구한다는것도 내면세계의 진실한 반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의 내면심리세계는 생활을 떠난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서 느껴지고 변화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사상정신상태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생활을 떠나 인간의 심리적의식세계를 파고드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내면화》 경향은 인간심리의 구체적분석이나 내면세계의 심오한 묘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심리의 불가사의하고 기형적인 내면세계를 조작해 내는 허황한 반사실주의적경향이며 모순에 찬 남조선현실을 외면하고 《자의식》의 울타리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실도피적경향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에서 《내면화》 경향은 순수 문학조류에서뿐아니라 실존주의문학 몇 프로이트주의미학에 기초한 반동문학조류들에서도 각기 그것들의 특성에 맞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의 《내면화》 경향은 인간인식의 내용은 《주관적체험》뿐이라고 주장하는 케르케골의 실존주의와 인간행동의 원동력을 《잠재의식》 《무의식》에 있다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있다.

사회현실과는 동떨어져 심리적의식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내면화》 경향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이 출판과 공포, 성적방종과 애욕을 인간심리의 본원적 특성으로 묘사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실존주의철학의 《창시자》인 케르케골이 객관적 실재를 부인하고 인간인식의 내용은 주관적인 《체험》뿐이라고 하면서 그 《주관적체험》의 기본내용을 《알지 못할 그 무엇에 대한 불안한 공포》라고 주장하였다는것은 주체의 사실이다.

레르케골과 니체, 쾰르트르와 카뮈 등의 실존주의 철학과 미학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을 따라 특히 전후에 남조선땅에 급속히 만연되었으며 실존주의에 기초한 문학은 이른바 《전후파》문학의 기본조류를 이루었다.

실존주의문학은 이미 규탄과 배격을 받고 《번영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작가들의 창작에서 정신적지반으로 되고있으며 이여의 퇴폐적문학과 방법상 혼합을 이루고 나타나

고있다.

《성적본능》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잠재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추동한다고 하는 프로이트주의는 인간을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리성에 대한 본능의 우위를 설교하고 성적본능의 개방을 고취한다.

프로이트주의 역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함께 특히 전후에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반동문학의 정신적바탕의 하나로 되었으며 《성문학》의 일대 범람을 가져왔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순수문학》에서 현실도피적인 《내면화》 경향이 강화되고있는것과 함께 실존주의와 프로이트주의미학에 기초한 문학조류에서도 《내면화》 경향이 더욱더 성행하고있다.

현실도피의 문학, 생활외면의 문학은 계급사회에서 현실의 모순이 격화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는 시기에 더 극성스럽게 제창되고 번성한다.

그것은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불길이 억제할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차게 타번지는 력사적 시기에 현실의 첨예한 문제로부터 인민대중의 시선을 판데로 돌리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사상독소가 반동적통치계급에게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에서 성행하는 현실을 떠난 《내면화》의 경향은 날로 거세차게 타번지는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인민대중과 청년학생들을 끌어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반동적인 경향이다.

(2)

남조선의 부르조아반동문학은 이른바 《내면화》를 통하여 사회와 절연된 불가사의한 《자의식》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고독과 불안, 대복과 색정을 설교하면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타락과 굴종으로 이끌어가려고 잡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내면화》 경향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절연된 내면세계, 현실과 격렬된 《자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리아무개라고 하는 남조선의 한 반동시인은 자기의 《사색》과 《체험》 세계를 설명하면서 《앞에도 뒤에도 가득한 어둠... 작은 방을 지탱하는 네벽이 더운 나를 죄여왔다. 방은 하나의 관이 되기도 했다. 나는 관속에 누워있는 시체였다.》고 썼다. 여기에서 《방》은 《개인적인 사고의 세계》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관처럼 현실과 완전히 절연된 어

둑속에서 《시상》을 더듬는다는것이다.

이 무덤속같은 《세계》가 바로 《개인적인 사고의 세계》, 《나만의 사고세계》라고 하면서 이 반동시인은 《사람이 없고》 《책들도 없는》 《이 방에서》 《나는 시를 썼다》고 잠꼬대같은 소리를 늘어놓고있으며 네벽으로 차단된 이 《관》속에서 《시체》와 같이 완전히 현실을 망각하고 지은 자기의 시를 현실적인 대상을 가지지 않는 《비대상의 시》라고 부르고있다.

리해를 돕기 위하여 그 《비대상의 시》중에서 《전화》라는 제목을 단 시의 한구절은 들어보자.

《개미가 절망이 탄식이 욕설이 어제부터야요. 부쓰의 아이러니야요. 부쓰 부쓰 그래요. 장화 케네쓰.》

동이 닿지 않는 난해한 말마디들을 횡설수설 뿔어놓은 이 시 아닌 시가 바로 현실과 격폐된 《자의식》의 세계를 추구한 《내면화》경향의 산물이다.

이러한 시가 남조선부르조아시단의 《길잡이》로 추대되어 《현대문학》의 수상작품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내면화》를 추구하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진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시에만 한한것이 아니다.

《돌의 발톱》이라는 제목을 단 소설은 책상우에 놓인 돌을 두고 떠오르는 한 정신이상자의 내면세계를 추구하면서 맥락이 닿지 않는 표상들은 이것저것 두서없이 엮어놓고있다.

인간의 건전한 사고로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정신상태》를 두고 남조선반동문학의 중진이라고 하는자들은 《의식화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원형질 혹은 혼의 상태라고 할수 있을까?) 즉 미분화 그대로의 어떤 상태》라고 하면서 《의식의 립장으로는 그렇지만 의식의 저편에서 바라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니 훌륭한)대상이라고 할수 있다》고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의식화이전의 《원형질》의 의식상태란 도대체 무엇이며 《의식의 저편에서 바라본다》는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의식은 인간뇌수의 기능이며 의식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고급한 속성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이전의 정신상태란 리해될수도, 있을수도 없으며 의식을 가지지 않고 대상을 파악할수 있는 그 어떤 《의식의 저편》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이러한 몽롱하고 불가사의한 《내면세계》를 묘사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가

능성의 길잡이》라고 추켜올리고 부추기는자들은 그것으로써 반미반괴피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자주의식을 흐리게 하며 그들을 무기력과 권태로 이끄는 반동적역할을 놓고있다.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내면화》경향은 다음으로 인간의 심리를 현실과 유리시켜 고립적으로 추구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현실과 유리된 인간의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은 우선 현실이 안고있는 사회적문제성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리세계를 파고드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첨예하고 복잡한 현실속에서 제재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인 인간의 내면심리를 탐색하는데로 지향하며 인간본연의 순수한 심리를 분석묘사한다는것이다. 여기에 《내면화》경향의 반동적특징의 하나가 있다.

사회적문제와 관련이 없는 인간의 심리를 추구한다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본질적특성과는 인연이 없는 본능적인 심리를 들추어낸다는것을 말한다.

사실상 사회적문제와 련관이 없는 심리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본연의 심리》로 될수 없으며 사회적속성을 거세한 심리는 생물학적속성의 심리 동물적인 심리 이외의 다른것으로 될수 없다.

현실문제와 동떨어져 인간의 심리를 추구한다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이 불안과 고독, 애욕과 색정의 세계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실과 유리된 인간의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내면화》경향은 사회적문제와 직접적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심리를 추구하는데서 뿐아니라 모순된 남조선현실이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성을 띤 소재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나타나고있다.

현실이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와 관련된 생활을 다루는 경우에도 그것을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심화하고 해명하는것이 아니라 순수한 심리현상에 귀착시키고 생활을 떠나 인간의 심리를 고립적으로 추구해들어가는것이다.

이 경우에도 추구된 심리의 내용은 역시 불안과 고독이며 색정이다. 작품에 끌어들인 사회적인 소재와 사건은 불안심리나 성적본능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설정되었을뿐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비록 사회적문제성을 띤 소재와 사건을 설정하였다 하여도 주체사상적지향에서 사회적문제성의 해명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며 형상창조의 경향에서 현실생활에 대한 탐구묘사와는 상반되는 《내면화》로 엮여지고있는것이다.

이 경우나 저 경우나 현실문제와 유리된 인간의 심리를 추군하는 《내면화》경향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은 불안과 고독, 색정과 성욕을 《인간본연의

심리》로 내세우고 설교함으로써 인민대중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정신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타락과 절망에로 이끄는 반동적독소로 되고있다.

현실과 유리된 심리세계를 추구하는 《내면화》 경향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인간본연의 심리는 불안과 고독이라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와 타락, 허무와 죽음에로 이끌어 간다는데 있다.

불안과 고독은 역사무대에서 자기 운명을 다산 멸망하여 가는 계급의 고유한 심리이다.

그러나 불안과 고독을 주제로 한 남조선부르조아 문학은 그것을 력사와 진보의 원쑤들, 인민을 등진 무리들의 고유한 심리로서가 아니라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상으로 묘사하면서 온갖 사회악을 빚어내는 모순된 현실을 비호하고 사람들을 타락과 절망속에 몰아넣으려고 꾀하고 있다.

《집파리의 량심》이라는 단편소설은 세상에 《의령사건》으로 알려진 한 괴뢰경찰관의 살인만행을 취급하고있다.

하루밤사이 한놈의 살인귀가 근 백명에 달하는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여 세상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 치명적인 살인행위는 광주를 동족의 피바다로 만든 회색의 살인악당이며 인간백정인 전두환역적의 품속에 길들여진 남조선괴뢰경찰만이 저지룰수 있는 만행이었다.

그것은 어떤 한 개별적경찰관의 조폭한 성격이나 정신상태에 근원을 둔 문제도 우연히 일어난 현상도 결코 아니였으며 전두환과 같은 살인광패무리가 군림하고 있는 남조선사회의 필연적산물이 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소설을 쓴다면 초보적으로 주인공 살인귀와 그가 저지른 만행을 사회관계속에서 그리고 해명해 나갔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다. 가슴에 한마리의 파리가 앉은것이 발단이 되어 악의 심리가 발동되고 그것이 흉악한 살륙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살인자의 변태적인 심리변천 과정을 조작해내고있다.

결국 소설은 내면적인 심리추구를 통하여 괴뢰경찰의 귀족같은 살륙만행을 개별적인물의 변태적인 심리의 작용으로 호소하고있으며 한마리의 파리로 하여 이러한 커다란 참사가 빚어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불안한 세상인가 하는것을 강조하면서 《불안》과 《절망》의식을 고취하고있다.

온갖 범죄가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의 본질적모순을 우연의 너울로 감싸주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파썸적폭압으로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살수없는 현실을 현대의 인류가 직면한 공통한 운명인듯이 전도하며 인민들을 생에 대한 공포와 절망속에 몰아넣으려 하는데 바로 이 작품의 반동적독소가 있는것이다.

《내면화》를 추구하는 반동문학가들은 불안과 함께 고독이 또한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운명이라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인간불신과 생에 대한 허무, 환멸과 죽음에로 이끌려고 책동하고 있다.

한 살인녀의 고독한 심리를 그린 소설 《순례자의 노래》의 경우가 그 한 예로 된다.

소설은 살인을 하고 정신병원에 갇다른 한 녀인이 가족들과 친지들, 길가의 절인녀성에게서까지 버림과 배척을 받으며 겪는 고독과 울분의 심리로 엮여지고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녀인의 호소를 왜 그의 남편까지도 들으려고 조차하지 않는지 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가함이 없이 버림받은 녀인의 심리세계의 움직임만을 일면적으로 추구하면서 작가는 고독을 오늘의 인간들의 불가피한 운명인듯이 설교하고있으며 《쓸쓸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깊은 어둠속으로》 발을 옮기는 주인공의 뒤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있다.

불안과 고독의 심리를 추구하는 《내면화》경향의 반동성은 특히 불안을 없애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무릎을 꿇라고 로골적으로 설교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소설 《숨어사는 그림자》에는 해방후 우연히 좌익운동에 참가했다가 산속으로 피신하여 평생을 중으로 살아간다는 한 늙은이와 괴뢰도당의 체포의 마수를 피해 이 절에 와 숨어있는 젊은이, 두 인물이 설정되어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안고있는 인간관계인가. 그러나 각자는 굳이 온갖 가능한 이야기와 사건을 피하고 이것을 인간의 불안심리를 추구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며 일생을 도망자로 불안속에 살아간다는 늙은이와 고백으로 작품을 엮어나가고있다. 사람없는 심산유곡의 새울음소리조차 자기를 위협하는 못인간들의 목소리로 들려 편안히 잠도 못들고 죽으면 뉘까지도 구천에서 쫓길것 같아 공포에 떠는것이 소설이 그려내고있는 로인의 내면세계의 전부이다. 불안심리를 제멋대로 확대 과장하여 작품을 꾸며나가던 각자는 마감에 늙은이가 일생을 불안속에 살아가는것보다는 차라리 총에 맞아 죽든가 붙잡히는 편이 훨씬 맘편하다고 젊은이를 설교하는 장면을 설정하고있다. 젊은이가 끝내 자기 말을 들으려고 안하자 이령감은 《자신의 삶을 닦고있는 또하나의 인생을 그저 둘수 없다》고 결심하고 이튿날 수상한 젊은이가 왔으니 잡아가라고 경찰지서에 고발한다.

여기에서 작자는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군사 파썸악당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참다운 배움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슬기로운 투쟁에 나섰던 애국청년을 살인자들에게 제물로 넘기려는 밀정의 범죄, 인간의 량심을 모독하는 이 타기할 범죄를 불안심리를 없애기 위한 방면으로 미화

하고있다. 이쯤되면 이것은 사실상

문학이 아니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한 《포고문》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력사와 민족을 등진자들의 내면심리에 기여하여 불안과 고독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현시대 인간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절망과 비애, 범죄의 길로 떠미는 여기에 현실과 유리된 인간심리를 추구하는 《내면화》경향의 악랄한 반동적독소가 있는것이다.

현실과 유리된 인간심리를 추구하는 《내면화》경향의 반동성은 또한 색정과 애욕의 세계를 그려 사람들을 성적방종과 타락으로 이끄는데 있다.

사회적문제성, 사회적관계를 떠난 《내면세계》의 추구는 곧 룡감적인 관능의 세계, 동물적인 애욕의 세계의 추구로 되고있다.

근심한 남편을 속이고 20년전 처녀시절의 애인을 찾아 집을 나선 녀인이 느끼는 그 무슨 《근원적인 향수》를 그린 《하오의 외출》이나 려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젊은 남녀의 변태적인 심리를 추구한 《땅끝에 갔더라》와 같은 소설들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성본능이 인간의 모든 정신적지향과 행동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성격방향과 패륜패덕을 미화하는것은 《애욕문학》의 반동적본성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 특히 청년학생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소이다.

민족의 운명이나 민중의 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집념하지 않고 오직 본능적요구에만 충실한 노예가 될것을 강요하는 색정문학의 지향점은 바로 식민지통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반동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각성되고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전두환매국역적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정신적타락과 무기력으로 이끌어가는 마약인 색정문학은 더없이 비위에 맞는것이 아닐수 없다.

《내면화》를 추구하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반동성은 또한 종교적인 신비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그려내어 사람들을 숙명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데서도 표현된다.

종교는 인간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인간의 운명은 《하느님》이나 그 어떤 신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므로 신이 제시한 불행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앞에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으며 순종과 인내, 자기희생만이 래세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교하는 종교는 사람이 우주에 날아 가는 오늘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자주 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운명에 순종하는 온순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마약으로, 통치계급의 유효한 지배

의 도구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괴뢰도당의 식민지통치의 요구에 따라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와 미신이 범람하고있으며 그 반영으로 문학에서도 종교적심리를 묘사하거나 종교의 교리나 성서를 제재로 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들을 종교의 세계에 깊이 끌어들이면서 인간의 무기력을 고취하고 무저항을 설교하는 반동적작용을 하고있다.

소설 《비워둔 자리》는 한 외과 의사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전락되는 심리변천과정을 추구하고 있다.

처음에 그리스도교도인 약혼녀의 결혼조건부에 응하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외과 의사가 치료에서 속수무책에 빠질 때마다 《하느님》을 불러 구원을 청하면 힘이 솟고 일이 잘 풀려나가는것을 《실지로 체험》하면서 안해가 원망할 정도로 헌신적인 교인으로 된다는것이다. 허황한 이야기와 가공적인 심리를 꾸며 나가면서 작가는 인간은 본연에서 무기력 한 존재이며 《하느님》을 믿을 때만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종교적설교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남조선의 반동적시인 서정주가 구약잡언의 구절을 가지고 쓴 그 무슨 《고대유태풍》의 시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가 있다.

한때는 시적대상의 《가시적인 한계》를 벗어나 《불가시적명역》을 노래하겠노라고 현실생활을 떠나 케케묵은 《물교구세인연관》을 찾던 그가 오늘은 또 예수교 성서의 구절을 《내면화》하여 뺄어놓은 물건에 시라는 딱지를 붙여 내돌리고있다.

이것은 문학을 종교전전의 도구로 삼아 남조선 인민들의 반항기세를 꺾고 그들을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온순한 노복으로 만드는데 적극 복무하고 있는 남조선부르조아문학의 타락성과 범피성, 반동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부르조아문학에서 추구되고있는 《내면화》경향은 사회와 격폐된 《나만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거나 현실생활과 유리된 인간심리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애국과 매국간에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에서 떼여내어 《내면심리》의 울타리속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을 불안과 공포, 타락과 절망, 무기력과 순종의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반동적작용을 하고있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남조선문학의 동향을 예리하게 살피며 사소한 부르조아적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현대조선문학의 빛나는 전성기를 마련한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어 머 니

(쓰련) 니콜라이 리렌코브

별판에선 사시나무 바람과 속삭이고
술발의 종비나무 흰눈썹 찡그러라
어머니의 세아들들 전선으로 떠나가고
집에는 세 며느리들이 남았을뿐

소금같은 흰눈은 별빛속에 흘날리고
둥근달은 어디로 숨어버렸나
책상두리엔 며느리들 모여앉아
남편들을 그리며 눈물 흘리어라

허나 어머니만은 눈물을 몰랐어라
가슴아픈 리별도 슬퍼하지 않았어라
명령받고 전선으로 떠나던 그때에도
슬픔을 묵새기며 아들과 작별했거니

앞의 여생도 오래지 않았건만
동이 트면 언제 벌써 바느질을 하는구나

며느리네 아이들도 보살피는구나
매아들 조금씩 돌봐야 하였으니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앉아
마치 피로움은 전혀 없는듯
손자의 긴양말을 떠주기도 하고
손자들의 덧저고리도 손질해주네
눈보라의 회오리소리도 들리지 않는듯
별판에서 어린숲의 설레임도 들리지 아니한듯

-로친네의 심장은 돌심장이야-
눈물짓던 며느리들 이야기하네

뭐라고? 어머니의 슬픔은 눈물을 모른다네
심장속 깊은곳에 고이 간직되었거니...
허나 전선에서 아들이 돌아온 그날엔
어머니도 맘껏 목놓아 울리라네

네가 내 마음이지

홍 광 혁

층층 다락발에
풍년만세 부르는듯
하늘가에 개꼬리 높이 쳐든
자주빛수염의 강냉이 이삭아

너를 보니
너에게 기울인 정 뜨겁게 솟구쳐
한가슴에 안고 쓰다듬고싶구나
애지중지 키워온 나의 정성 습배인
너는 진정 내 마음이지

이삭아!
부를수록 정겹구나
피를 주고 살을 준
내 살붙이같이

오색비단 필필이 수놓아가던
방직공의 나의 진정-
강냉이포기마다 바친
소조원 내 마음이 어려
저리도 탐스러우냐 강냉이이삭

별들도 뜨기전
이슬이 돌을 때부터

달이 떠 다시
이슬이 돌을 때까지
내 마음 네품에 가있었거늘

이삭아
너 어떻게 영글었더냐
이슬도 돌지 않는 왕가물에
이 한몸 생명수로 흘러서라도
흐르는 관개수에 한줄기 더 보태어
포기마다 팔뚝같이 실한 이삭
수령님께 보여드리고싶은
충성의 이 한마음

간절한 이 한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마음들에
샘물처럼 부어주고 부어주며
츠렁바위 삼십리 물길을 열며
내 오르내린 길 그 열마인가

꽃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흘린 땀 바친 정이 밀거름되어
너 그리 탐스러우냐
알찬 이삭
바라는 마음들이 알알이 영글은

충성의 이삭

천오백만톤 높은 봉에 얹혀져
공산주의노을 찬란히 피워올릴

환희의 이삭!

수령님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실 천금같은 이삭이
충성의 이 한마음 다 바친
아, 네가 내 마음이지!

2월의 백두산

리 은 정

이 땅의 상상봉인가
홀려흐르는 흰구름을
나래인듯 허리에 감고
높이도 솟은 백두산정
흰 눈꽃 내려 쌓이고쌓이는데
만병초는 피여 반겨웃어라

여 기로구나
우주의 암흑을 불사르며
장엄한 백두의 해돋이가 시작된곳
장설을 녹이며 온갖 꽃 피어나고
향도성 찬란히 솟아오른곳

귀기울이면
서리꽃 피는 백두밀영가
항일의 녀전사들
축복의 마음담아 부르던
자장가소리 은은히 들려오는듯...
승엄하여라, 환희로워라

백설덮인 저 천지에
슴배여있어라
천지의 맑은 물에
가슴적시며 키워오신
인류를 위한 대해같은 사람

천리수해에 갇들어있어라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맹세

억천만번 싸워이길
혁명의 의지, 혁명의 절개

머리 들면 노호하던 구름도
아득히 물러서라
봄우뢰 세차게 메아리치고
노을인가, 붉게 피어나며
천변만화하는
저 백두의 하늘가에서
천재적지략, 빛나는 예지를
키우셨나니

영광이여라
광막한 백두밀림속
멸적의 총소리에
용맹을 키우시고
고난의 눈보라에
담을 자래우신
혁명의 요람, 백두산정에
우리 오르고있음은

아, 2월의 백두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 력사의 성산
우주의 축복인듯
눈꽃은 꽃보라처럼
온 천지에 휘날리고있어라
만병초는 피고 또 피어라

단죄한다, 매국역적을

리 동 후

우리는 보고있다
신통히도 겹에 질린 두꺼비눈처럼

통방울을 굴리는놈
그 무슨 불행의 소름이 끼친듯

움츠리고 서성거리는
미친개의 물골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구별한다
메뚜기상통에 주둥이를 빼들고
인민앞에 《선심》을 쓰노라
악취를 풍기는놈
징그럽고 흉측한
《인간집승》을

전두환
참으로 네 하는것은
철면피의 극치
미제의 상전앞에서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너절하게 꼬리치며
나라를 팔아먹는
너는 극악한 매국노

그 어느 역적들도
포악성과 잔인성에서
너를 따를자 없었나니
전두환 네놈은
남녘땅을 대학살의 참극으로
피로 물들인
살인광, 민족의 백정

듣느냐
서슴없이 매국문서에 도장을 찍은
네놈의 죄행을 두고
온 남녘땅
격랑처럼 불길처럼 일어번지며
웨치는 저 함성을
《전두환은 퇴진하라!》

민족의 분통이나
하늘도 피땀으로 타고
흐르는 강물도
뒤번지며 솟구치며 몸부림치다
한낮에도 마른번개 일며 우뢰친다
《전두환살인마의 죄행을 단죄한다》

승냥이의 비린내 풍기는
그 젖을 빨며 자란놈
그래서 너는 식인종의 주구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하수인
네 넓은 대양건너 백악관에 가있거니

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분렬과 살륙에 환장이 된
네놈의 입에서 감히
《조국》이란 신성한 이름을
말할수 있느냐!

네가 서있을 한치의 땅도
네가 마실 한모금의 물도
이 땅엔 없다
너는 벌써 온 민족앞에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

기억하라!
히틀러, 도조의 뒤를 이은
박정희역도의 말로를
바로 것처럼 비참한 운명이
네놈에게 차례질 그 시각이 다가왔음을

저지른 그 최악으로 하여
죽어도 벗지 못할 역적이기에
네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불태워 재로 날려도
사무친 분노와 원한을
다는 풀길 없나니

우리는 본다
전두환 네놈이
비루먹은 미친개처럼
아우성치며 빠드러지는 물골을

미제를 등에 업은 매국역적들이
달리는 뿔수 없었던 그 운명
바로 네놈에게 차례졌거니
네놈이 파놓은 죽음의 함정에
너는 처박히리라

그것이 다름아닌
조선인민이 너에게 주는
력사의 준엄한 선언이며
네놈의 죄악을 징벌하는
우리의 단호한 대답이여라!